ISSN 2765-7302

중앙유라시아한국학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2021년 제 1집 창간호

2021. 05. 31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http://iukorean.net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중앙유라시아한국학

2021년 제 1집 창간호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ISSN 2765-7302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중앙유라시아한국학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2021년 제 1집 창간호
2021. 05. 31.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http://iukorean.net

“이 학술지는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AKS-2018-INC-2230009)”

| 차 례 |

고구려와 부상의 대대로(大對盧) 체계 -부상의 세계- 5
지배선 (연세대학교)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 43
괵셀 튀르쾨주 (S.Göksel Türközü,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

우크라이나 한국어교육에서 온라인 강좌 사례 연구 67
박 안토니나 (우크라이나 우신스키 국립 사범대학)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87
-이주여성의 학부모로서의 역할 확립-
손영은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 김자혜(가천대학교 한국어학센터)

New challenges of the Korean Department in Hungary 133
: Dynamic expansion and focus on language education in a university setting
MECSI Beatrix and NGUYEN Krisztina
(Eötvös Loránd University, Hungary)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171
: Discussing The Issue Of Research Approaches
Anastasia GURYEVA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학회 규정 및 투고 안내 195

| Contents |

A study of Dae-Dae-Roe(大對盧) system of Goguryo and Busang(扶桑)
-World of Busang- 5

Ji, Bae-Sun (Emeritus Professor, Yonsei Univerity)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urkey 43

S.Göksel Türközü (Erciyes Üniversitesi, Turkey)

Examples of online Korean courses in Ukraine in Eastern Europe

Pak Antonina 67
(Southern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K. D. Ushinsky, Ukrainia)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using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
-Establishing the role of migrant women as parents- 87

Youngrun Son (Istanbul University, Turkey))
Jahey Kim (Gacheon University)

New challenges of the Korean Department in Hungary
: Dynamic expansion and focus on language education in a university setting 133

MECSI Beatrix and NGUYEN Krisztina
(Eötvös Loránd University, Hungary)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 Discussing The Issue Of Research Approaches 171

Anastasia GURYEVA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Journal Regulations & Thesis Submission Regulations 195

고구려와 부상의 대대로(大對盧) 체계
-부상의 세계-

지배선*

목 차

1. 서론
  1.1. 역사의 실재
2. 대대로(大對盧) 체계
3. 양(梁) 무제(武帝)의 불교
4. 동쪽으로 간 문신국(文身國)과 대한국(大漢國)과 부상국(扶桑國)
5. 결론

〈논문개요〉

북위의 대(代)에서 대진국(로마)은 3만 9천 4백리이다. 낙랑군에서 왜국까지는 7천여 리이다. 왜국에서 동북쪽에다가 문신국, 문신국의 동쪽으로 대한국,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다시 베링 해를 건너 부상국까지는 3만 2천여 리였다. 중국에서 서쪽의 대진과 동쪽의 부상국은 거리가 같다.

『주서』의 「고구려전」에 대관에는 제1의 관품으로 대대로가 있다. 대대로는 왕이 주는 관직이 아니다. 이는 부상국의 대대로는 제1의 관품과 같은 제도이다.

『삼국사기』에서 말하길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의 벼슬은 모두 12등급이니 제1은 대대로 혹은 토졸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밖에 『삼국사기』는 『책부원구』는 '고구려는 후한 때 그 나라에서는 상가·대로 등이 있고, 일설에는 큰 벼슬에 대대로가 있고'라는 것은 부상국의 제1 관직인 대대로의 관직과 동일하다.

부상국의 제1관직은 대대로, 제2관직은 소대로 라는 것은 고구려 관직과 동일하다.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동양사학

이는 고구려의 부족의 관품의 유형이다. 고구려의 지파인 북아메리카의 부상국이었다.

주제어: 고구려, 대진, 부상, 대대로, 대로

1.서론

서양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베링해(Beringia)를 넘어서 북아메리카(North America)로 건너와서 살았다. 기원전 500년경 이후 북미지역은 수렵·채집문화에서 점차 벗어나 농경과 교역이 발달했다. 여러 인디언 부족은 집단매장을 위해 수많은 고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마운드 빌더스(Mound Builders)문화라고 한다.[1] 오늘날의 아시아에서 어느 민족에서 건너간 곳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고구려와 같은 종족인 나라가 부상국인 것 같다.

1.1. 역사의 실재

낙랑군은 한 무제 원봉 3년(B.C.108)에 열렸다.[2] 한 무제의 군사가 원봉 3년에 낙랑군을 만들고, 원봉 4년에 현도군이 열렸다.[3] 한 무제는 군사로 싸워서 원봉 4년에는 고구려 일파였던 부상(扶桑)은 더 멀리 동쪽으로 이주하였던 것 같다. 이때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로 고구려 일파는 동진(東進)하여 베링해를 건너 북아메리카 부상국을 만들었다.[4]

"부상(扶桑)의 늙은이가 깊은 깨달음을 발하여"라는 말로 시작되는 『설매헌부』가를 듣는다. 그 이색(李穡)이 말한다.[5] 여기서 부상(扶桑)국

1) 이보형, 「아메리카 원주민과 신대륙의 정복」, 『미국사 개설』, 일조각, 23-25쪽.
2) 『漢書』권28하「地理志」 樂浪郡조, 1627쪽.
3) 『北史』권94「高句麗傳」 漢武帝元封4年조, 3111쪽.
4) 『梁書』권54「扶桑國傳」 808쪽.

을 생각한다. 또한 『선본해제 1』에는 부상록(扶桑錄)은 '숙종 45년(1719)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이 책은 그때 사절로 간 사람들의 일본의 기행록이다.'[6] 이는 이때 부상록이 잘못 쓰여진 예이다.

2. 대대로(大對盧) 체계

고구려의 중국정사는 『후한서』의 「고구려전」에서 관직에 형태를 언급하였다.

>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1천 리 밖에, 남면에서 조선·예맥이 있고, 동면에 옥저가 있으며, 북면에 부여와 접하였다. 그 지역은 사방으로 2천 리이며, 많은 큰 산과 계곡이 있으며, 사람들이 산속에서 생활하였다. 고구려는 밭농사 지대가 협소하여,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기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습속이 음식 방면에서 절약하고, 단지 궁실을 짓는 것을 좋아하였다. 동이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구려는 부여의 일족이라고 하며,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법도는 상당히 같으며, 단지 궤배 할 때 한 다리를 펴고, 걸어갈 때는 항상 뛰어간다. 고구려는 모두 5개 부족으로,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 소노부에서 먼저 왕을 칭하고, 후에 점점 쇠약해져서, 후에 계루부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고구려는 관직이 있고, 상가·대로(對盧)·패자·고추대가·주부·우태·사자·백의선인이 있다. 한 무제가 조선을 타도할 때,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고, 현도를 관할하게 하였고, 고구려에 장구와 북을 치는 악공을 주었다. 그들의 관습은 음탕하고, 정결을 좋아하며, 밤이 되면 남녀들이 모여서 함께 가무를 즐겼다. 고구려인은 귀신·사직과 영성에 제사하는 것을 좋아해서, 10월에

5) 『東文選』권3「雪梅軒賦」 92쪽, 민족문화추진회. 1998, 重版.
6)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 1』, 1970, 222쪽.

제천하며 대규모 집회를 하여, 「동맹」」이라 칭한다. 고구려의 동부에 하나의 큰 굴이 있어, 그곳을 수신이라 하고, 그들은 10월에 수신을 맞이하고 제사한다.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색채인 무늬가 있고 실로 만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금은으로 된 장식을 만들어 입는다. 대가·주부는 모두 부건을 쓰며, 관과 두건과 같지만, 뒤편은 없다; 소가는 머리에 절풍의 관을 쓰고, 형상은 변과 같다. 그들은 감옥이 없으나, 형벌이 있다. 가관 무리가 상당한 후에 죄가 있는 사람을 죽이며, 죄인의 처자와 아이들은 노비로 한다. 그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크면, 데리고 가고, 후에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금은과 재물은 모두 장례에다 쓰고, 그들은 돌을 쌓아서 분묘를 만들고, 분묘 위에다가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는다. 거기의 사람들이 흉폭하고 급하며, 힘이 있어서, 싸움질을 잘하며, 물건을 노략하는 것을 좋아하며, 옥저·동예는 모두 고구려에 통치를 받는다.[7]

고구려의 대략적인 위상에 관한 모습이다. 고구려는, 중국의 북쪽이 아니라 요동의 동쪽 1천 리 밖에, 남면에 조선·예맥이 있고, 동면에 옥저가 있으며, 북면에 부여와 접하였다. 그 지역은 사방으로 2천 리

7) 『後漢書』권85「高句驪傳」 2813쪽, 高句驪, 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地方二千里, 多大山深谷, 人隨而爲居. 少田業, 力作不足以自資, 故其俗節於飮食, 而好修宮室.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故言語法則多同, 而跪拜曳一脚, 行步皆走. 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其置官, 有相加·對盧·沛者·古鄒大加·主簿·優台·使者·帛衣仙人.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 其俗淫, 皆潔淨自憙, 暮夜輒男女群聚爲倡樂. 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襚神, 亦以十月迎而祭之. 其公會衣服皆錦綉, 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無牢獄, 有罪, 諸加評議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其婚姻皆就婦家, 生子長大, 然後將還, 便稍營送終之具. 金銀財幣盡於厚葬, 積石爲封, 亦種松柏. 其人性凶急, 有氣力, 習戰鬪, 好寇鈔, 沃沮·東濊皆屬焉.

이며, 많은 큰 산과 계곡이 있으며, 사람들이 산속에서 생활한다. 고구려는 밭농사 지대가 협소하여,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기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의 습속이 음식 방면에서 절약하고, 단지 궁실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동이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구려는 부여의 일족이다.[8] 그들의 언어와 법도는 상당히 같으며, 단지 궤배 할 때 한 다리를 펴고, 걸어갈 때는 항상 뛰어간다.

고구려는 모두 5개 부족으로, 소노부[9],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10] 소노부에서 먼저 왕을 칭하고, 후에 점점 쇠약해져서, 후에 계루부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고구려는 관직이 있고, 상가·대로(對盧)·패자·고추대가·주부·우태·사자·백의[11]선인이 있다. 그런데 패자가 있어서 대로(對盧)가 없다. 실권자의 직인 대대로(大對盧)를 선임하는 귀족 연립정권 체제를 수립하였다.[12] 이러한 제도인 부상국 대대로(大對盧)의 이야기와 통한다.[13] 그렇다면 패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大對盧)가 없었다. 그 관계는 다음에서 밝혀진다. 한 무제가 조선을 타도할 때,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고, 현도에 관할하게 하였고, 고구려에 장고와 북을 치는 악공을 주었다. 한 무제 때의 고구려라는 칭호가 있었다. 고구려인이 결혼을 할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크면, 데리고 간다. 이는 고구려와 부상국이 같은 제도이다.[14] 이에 대한 뒤에 나올 부상의 결혼제도이다. 그러나 『후한서』의 대로(對盧)는 있으나 대대로(大對盧)라는 명칭은 없다.

고구려는 5족 제와 패자와 대로를 두지 않았던 예가 있었다. 즉『삼국지』의 「고구려전」을 보자.

---

8) 兩族이 同系인 것은 始祖神話(東明·朱蒙傳說)과 同類로 推測한다.
9) 『三國志』는 「涓奴部」라 하고, 『翰苑』注에 『魏略』은 「消奴部」라고 한다.
10) 李賢의 注에는 唐初의 五部는 다른 말로 썼던 것이 있고, 이 五族은 地緣的 部族集團이다.(三品彰永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참조.)
11) 『三國志』는 「皁衣」로 쓰였다.
12)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서울:사계절, 1999, 286쪽.
13) 『梁書』권54「扶桑國傳」 貴人第一者爲大對盧조, 808쪽.
14) 『梁書』권54「扶桑國傳」 其婚姻조, 808쪽.

> 본래는 다섯 부족이 있었는데, 연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가 있다. 본래 연노부를 왕으로 삼았는데 점점 세력이 미약해져, 계루부가 그를 대신했다. 한나라 때, 그들에게 타악기 연주자와 기예가 있는 사람을 하사하고, 항상 현도군에서 조복과 옷과 책을 받았으며, 고구려 령이 그것의 명부를 관장했다. 후에 점점 교만해지고 방자해져 다시는 군에 나오지 않고 동쪽 변방지역에 작은 성을 쌓아 조복과 두건을 그 속에 두고 해마다 계절이 되면 와서 갖고 간다. 지금 호인을 이 성을 책구루라고 부른다. 구루라는 것은 구려에서 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들의 관제에는 대로(對盧)가 있을 때에는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으면 대로(對盧)를 두지 않는다. 왕의 종족 가운데 대가는 모두 고추가라고 한다.[15]

고구려의 왕이 선출 때에 5 부족에서 연노부에서 나오다가 세력이 약해져서 계루부가 대신하였다. 전한 때의 피리 불고 나팔 부는 자를 하사하였고[16], 이때 조복과 옷과 책(幘)을 현도군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고구려 영이 명부에서 관장하였다. 그 후 교만해져서 변방의 작은 성을 짓고 해마다 때가 되면 가져간다. 이를 호인이 이 성을 책구루라고 한다. 고구려에서 구루라는 의미는 성을 뜻한다. 그들의 관제에는 대로(對盧)가 있을 때는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을 때는 대로(對盧)가 없다. 앞의 『후한서』의 「고구려전」과 『삼국지』의 「고구려전」도 대로(對盧)가 있을 때와 같다. 이는 고구려와 부상국의 둘째 소대로(小對盧) 양식의 관제이다.[17]

서위(西魏)가 주(周, 557-581)로 바꾸어 후인들은 북주(北周)라 부른

---

15) 『三國志』권30「高句麗傳」 843쪽,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漊. 溝漊者, 句麗名城也.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16) 『後漢書』의 「賜鼓吹技人」과 同文.

17) 『梁書』권54「扶桑國傳」 第二者爲小對盧丕, 808쪽.

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관직이다. 즉『주서』의「고구려전」의 내용이다.

> 대관에는 대대로(大對盧)가 있고, 다음은 태대형·대형·소형·의사사·오졸·태대사자·대사자·소사자·욕사·예속·선인과 아울러 욕살이 있고, (관위는) 전부는 13등급이 있고, 내외의 정치를 분장했다. 대대로(大對盧)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며 뺏은 것으로 자기의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왕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에는, 내란의 죄와 외적에 내응하는 죄는, 불로 처리하고, 그 후에 참수하여, 그 위에 가인들을 노비로서 재산을 몰수한다. 절도는 (남의 물건의) 10배로 징수한다. 만약에 지불할 수 없을 경우는, 공사의 차금으로 하는 경우는, 그 자식이나 딸의 가치로 하여 노비로서 (팔며), 그 금액을 보상하게 한다.[18]

고구려의 대관이 13등급이 있어서 정치를 분장하여 관리한다. 대관에는 대대로(大對盧)가 있다. 고구려 제1위의 관등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임무를 지닌 고구려의 수상 직인 대대로(大對盧)이다.[19] 다음은 태대형·대형·소형·의사사·오졸·태대사자·대사자·소사자·욕사·예속·선인과 아울러 욕살이 있다. 대대로(大對盧)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며 뺏은 것으로 자기의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왕이 임명할 수 없다. 형법에는, 내란의 죄와 외적에 내응하는 죄는, 불로 처리하고, 그 후에 참수하여, 그 위에 가인들을 노비로서 재산을 몰수한다. 절도는 남의 물건의 10배로 징수한다. 만약에 지불할 수 없을 경우는, 공사의 차금(借金)으로 하는 경우는, 그 자식이나 딸의 가치로 하여 노비로서 팔며, 그 금액을 보상하게 한 제도이다.『주서』의 내용은 대대로(大對盧)는

18)『周書』권49「高麗傳」 885쪽, 大官有大對盧, 次有太大兄·大兄·小兄·意俟奢·烏拙·太大使者·大使者·小使者·褥奢·翳屬·仙人幷褥薩凡十三等, 分掌內外事焉. 其大對盧, 則以彊弱相陵, 奪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 其刑法, 謀反及叛者, 先以火焚爇, 然後斬首, 籍沒其家. 盜者, 十餘倍徵贓. 若貧不能備, 及貸公私債者, 皆聽評其子女爲奴婢以償之.

19) 임기환,『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209쪽.

왕이 임명할 수 없다. 대대로(大對盧)의 관직은 귀족과 같은 형태이다. 부상국과 같이 대대로(大對盧)는 제1의 관품이다.[20]

양 무제의 '천감의 치'를 쌓았다. 그러나 불교의 숭상과 기강이 해이되어서 동위(東魏)의 후경이 투항하여, 그를 후대하여 북벌을 도모하였으나 오히려 양나라는 진패선에게 멸망하였다. 양(502-557)에서 본 고구려의 위치와 관호 등의 이야기다. 고구려와 연계된 부상국에 관한 이야기는 양나라의 『양서』만 유일하게 나온다.

『양서』의 「고구려전」에 나타난 내용과 같다.

> 고구려의 토지는 대략 2천 리이며, 나라 가운데는 요산이 있고, 요수에서 발원한다. 고구려 왕은 환도산 아래에 건축되어 있다. 이 국가는 큰 산이 많고 계곡도 심하며, 평지의 소택이 없으며, 백성은 산에 의지하며 살며, 식수는 산간지수를 먹으며, 그러나 평지에 살며, 단지 좋은 땅이 없으며,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은 절식의 습속을 하고 있다. 백성은 건조한 방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의 거주하는 방은 좌변(左邊)의 건조가 한 대옥이며, 대옥에는 귀신을 제사하며, 또 제사 사직의 신과 그 집안의 영성을 제사한다. 백성의 성격은 흉맹하며, 남의 창고를 약탈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의 관직은 상가·대로(對盧)·패자·고추가·주부·우태·사자·조의·선인 등의 이름이 있고, 존비가 같지 않고, 각각의 등급이 있다. 그들의 언어와 풍속이 있고, 부여와 같은 것이 많다: 단지 성격·의복과 부여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 고구려는 본시 5족이 있으며,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 본래 소노부에서 왕이 되었으며, 후에 역량이 쇠약해져서, 계루부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21]

---

20) 『梁書』권54「扶桑國傳」 貴人第一者爲大對盧丕, 808쪽.

21) 『梁書』권54「高句驪傳」 801쪽, 句驪地方可二千里, 中有遼山, 遼水所出. 其王都於丸都之下, 多大山深谷, 無原澤, 百姓依之以居, 食澗水. 雖土著, 無良田, 故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立大屋, 祭鬼神, 又祠零星·社稷. 人性凶急, 喜寇抄. 其官, 有相加·對盧·沛者·古鄒加·主簿·優台·使者·皂衣·先人, 尊卑各有等

고구려의 토지는 대략 2천 리였다. 고구려는 요하의 상류 요산이 있으며, 요수에서 발원한다. 고구려왕은 환도산에 있다[22]. 이 국가는 큰 산이 많고 계곡도 심하며, 평지의 소택이 없으며, 백성은 산에 의지하며 살며, 식수는 산간지수를 먹으며, 그러나 평지에 살며, 단지 좋은 땅이 없으며,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은 절식의 습속을 갖고 있다. 백성은 만든 방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고구려는 대옥에서 귀신을 제사하며, 또 제사 사직의 신과 그 집안의 영성을 제사한다. 백성의 성격은 흉맹하며, 남의 창고를 약탈하였다. 고구려인의 흉맹하여 남의 창고를 약탈을 잘하는 것은 북아시아인과 통하는 기질이다. 『양서』에서는 고구려의 관직은 상가·대로(對盧)·패자·고추가·주부·우태·사자·조의·선인 등의 이름이 있다. 부상국은 대로(對盧)는 제1의 대대로(大對盧)이고, 제2의 소대로(小對盧)의 관품과 같은 것이다.[23]

고구려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즉 『양서』의 「고구려전」에 기록을 보자.

> 한(漢) 시기의 조정은 그들의 의책·조복·고취를 주었고, 그들은 항상 현도군에서 가서 받았다. 후에 그들은 점점 교만하여져서, 다시는 현도군에 오지 않았으며, 단지 동계에다가 쌓은 소성에 주는 것을 받으러 왔으며, 지금은 이 성을 책구루라고 한다. '구루'라는 말은 고구려 언어에 있어서 '성'이라는 말이다. 고구려의 관원을 임명할 때, 대로(對盧)라 하는 것은 패자를 설치하지 않으며, 패자에는 대로(對盧)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들의 백성들은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국 중의 읍락의 남녀는, 매일 밤에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정결한 것을 좋

級.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本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微弱, 桂婁部代之.

22) 『水經注』에 「遼水는 遼山에서 나오며」, 小遼水(遼水)는 지금의 渾河이다.

23) 『梁書』권54「扶桑國傳」 貴人第一者爲大對盧, 第二者爲小對盧丕, 808쪽.

아하고, 양조를 잘한다. 그들은 궤배 할 때에 한 다리를 내고, 걸을 때는 뛰기를 한다. 매년 10월에 제천대회를 하며, 대회를 칭하기를 “동명”이라 한다. 참가대회는 의복은 모두 다 금은 장식으로 한다. 대가·주부는 머리에다가 중국의 책과 유사한 것과 같이 뒤부분은 비어있다; 소가의 머리는 절풍으로, 형상은 중국의 변과 같다. 그들 국가에는 뇌옥(감옥)이 없고, 사람이 범죄 하면, 대가·소가의 관원들이 평의 한 후에 죄인을 죽이며, 처자와 아이들은 관청에서 몰수한다. 그들의 백성은 음탕한 것을 좋아해, 남녀 간에 사적으로 도망을 간다. 결혼 후에, 점점 죽을 때의 의복을 만들어 둔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할 때에 곽은 있고 관은 없다. 후장을 좋아하며, 금은의 돈으로 죽은 자의 배장을 한다. 매장한 후에 돌을 쌓아서 분묘로 하며, 주위에 송백을 심는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처로 한다. 고구려국은 말이 크기가 작으며, 등산을 잘한다. 국가의 백성은 숭상하여 기력이 있어, 활과 화살을 방패와 창을 잘하며, 백성은 모두 기갑을 잘하며, 작전에 능하다. 옥저·동예는 모두 다 고구려에 속하였다.[24]

전한 시기의 조정은 고구려인들의 의책·조복·고취를 주었고, 항상 현도군에서 가서 받았다. 그들은 점점 교만하여져서, 다시는 현도군에 오지 않았으며, 단지 동계에 축조한 소성에서 주는 것을 받으러 왔으며, 지금은 이 성을 책구루라고 한다. ‘구루’라는 말은 고구려 언어에 있어서 ‘성’이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처로 한다. 이는

24) 『梁書』권54「高句驪傳」 801~802쪽, 漢時賜衣幘·朝服·鼓吹, 常從玄菟郡受之. 後稍驕, 不復詣郡, 但於東界築小城以受之, 至今猶名此城爲幘溝婁. “溝婁”者, 句驪名“城”也.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其俗喜歌儛, 國中邑落男女, 每夜群聚歌戲. 其人潔清自喜, 善藏釀, 跪拜申一脚, 行步皆走. 以十月祭天大會, 名曰 “東明”. 其公會衣服, 皆錦綉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所著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無牢獄, 有罪者, 則會諸加評議殺之, 沒入妻子. 其俗好淫, 男女多相奔誘. 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其死葬, 有椁無棺. 好厚葬, 金銀財幣盡於送死. 積石爲封, 列植松柏. 兄死妻嫂.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尙氣力, 便弓矢刀矛, 有鎧甲, 習戰鬥. 沃沮·東穢皆屬焉.

유목 기마민족의 형사취수제(兄死取嫂制)이다. 고구려의 관원을 임명할 때, 대로(對盧)라 하는 것은 패자를 설치하지 않으며, 패자에는 대로(對盧)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상국의 제1 관품, 제2 관품인 대대로(大對盧)와 소대로(小對盧)이다.[25]

남북조시대의 『북사』에서 말하는 고구려의 관위는 다음과 같다.

> (고구려의) 관위는 (순서에) 대대로(大對盧)·태대형·대형·소형·경후사·오졸·태대사자·대사자·소사자·욕사·예속·선인이 있고, 합하여 12등이 있고, 내외의 정치를 분장하고 있다. 대대로(大對盧)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빼앗아서 자신이 그 위치에 오르는 것으로서 왕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 내평·(외평)·오부의 욕살이 있다.[26]

고구려는 신라의 침략과 역사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관위는 『수서』에 대대로(大對盧)·경후사가 없고 『북사』에 대로(對盧)·의후사가 없다. 그렇다면 고구려 시대에 12등이다. 『북사』에서는 대대로(大對盧)가 갖는 위치는 강자의 득세이다. 왕이 그 부서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고구려와 부상국이 대대로(大對盧)의 위상이라는 의미가 크다.[27]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바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 『수서』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관직에는 태대형이 있고, 다음은 대형, 다음은 소형, 다음은 대로(對盧), 다음은 의사저, 다음은 오졸, 다음은 태대사자, 다음은 대사자, 다음은 소사자, 다음은 욕치, 다음은 예속, 다음은 선인으로 모두 12등이요, 또 이밖에 내평·외평과 오부욕살이 있다」고 하였다.[28]

---

25) 『梁書』권54「扶桑國傳」 貴人第一者爲大對盧, 第二者爲小對盧조, 808쪽.

26) 『北史』권94「高麗傳」 3115쪽, 官有大對盧·太大兄·大兄·小兄·竟侯奢·烏拙·太大使者·大使者·小使者·褥奢·翳屬·仙人, 凡十二等, 分掌內外事. 其大對盧則以强弱相陵奪而自爲之, 不由王署置. 復有內評·五部褥薩.

27) 『梁書』권54「扶桑國傳」 貴人第一者爲大對盧조, 808쪽.

고구려의 관직 가운데 나타난 대로(對盧)의 관직은 부상국의 제2 관직과 같은 것이다.[29]

『삼국사기』에서 말하길 『신당서』에서 다음과 같다.

>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벼슬은 모두 12등급이니, (첫째는) 대대로(大對盧) 혹은 토졸이라고도 한다. 둘째는 울절로서 도서와 문부를 맡고, 셋째는 태대사자, 넷째는 조의두대형이니, 조의라는 것은 선인이다. (이들은) 국정을 맡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바뀌나, 직책을 잘 수행하면 그렇지 않다. 무릇 대체되는 날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서로 공벌한다. 왕은 궁문을 닫고 지키다가 이기는 자의 말을 들어서 임명한다. 다음에는 대사자·대형·상위사자·제형·소사자·과절·선인·고추대가라 하는데 막리지·대막리지·중리소형·중리대형이라고도 한다.[30]

고구려의 12등급으로 첫째는 대대로(大對盧) 혹은 토졸이라고도 한다. 부족장적 신분층에 속하는 대로(對盧)가 분화해 고구려 중기에 생겨난 것인데, 늦어도 5세기 후반경에는 대로(對盧) 관등은 소멸되고 대대로(大對盧)만이 7세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대로(大對盧)는 부상국의 제1의 관등이다. 고구려는 후에 대대로(大對盧) 이후는 막리지 체계로 바뀐다.

『삼국사기』에는 말하길 『책부원구』에서 다음과 같다.

---

28) 『三國史記』권40「雜志」職官하, 389쪽, 隋書云, 高句麗官有太大兄, 次大兄, 次小兄, 次對盧, 次意俟著, 次烏拙, 次太大使者, 次大使者, 次小使者, 次褥著, 次翳屬, 次仙人, 凡十二等, 復有內評·外評·五部褥薩.

29) 『梁書』권54「扶桑國傳」第二者爲小對盧丕, 808쪽.

30) 『三國史記』권40「雜志」職官하, 389쪽, 新唐書云, 高句麗官凡十二級, 曰大對盧, 或曰吐拙, 曰鬱折, 主圖簿者, 曰太大使者, 曰皁衣頭大兄, 所謂皂衣者仙人也, 秉國政三歲一易, 善職則否, 凡代日, 有不服則相攻, 王爲閉宮守, 勝者聽爲之, 曰大使者, 曰大兄, 曰上位使者, 曰諸兄, 曰小使者, 曰過節, 曰先人, 曰古鄒大加, 又云, 莫離支, 大莫離支, 中裏小兄, 中裏大兄.

『책부원구』에는, 「고구려는 후한(後漢) 때 그 나라에서는 관직을 설치하였는데, 상가·대로(對盧)·패자·고추대가(고추대가는 고구려에서 빈객에 관한 일을 맡아 하니 (중국의) 대홍려 같은 것임) 주부·우(혹은 우로도 되어 있음)태·사자·조의·선인이다. 일설에는 큰 벼슬에 대대로(大對盧)가 있고 다음에 태대형·대형·소형·의사저·오졸·태대사자·소사자·욕저·예속·선인이니, 욕살까지 아울러 모두 13등이며, 다시 내평·외평이 있어, 내외의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고 하였다. 이상은 중국 역대사서에 보이는 것이다.[31]

『삼국사기』의 『책부원구』에서 고구려는 후한 때의 일설에는 큰 벼슬에 대대로(大對盧)가 있다. 이는 부상국의 제1 관직인 대대로이다.[32]

양(梁)에서 동이에 대한 것을 간단히 표현하였다. 즉 『양서』의 「동이전」을 보자.

동이의 각국의 가운데, 조선이 제일 크며, 그는 기자의 감화를 받아, 그들의 각종 기계는 아직 중국의 예악 제도가 그대로 있다. 위(魏) 시대에, 조선 이동은 마한·진한이 여기에 속하였고, 대대로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 양자강을 넘어서, (건업, 남경)으로 옮겨서 동진 시대(317-420)에서, 황해를 건너서 동으로 가면, 고구려·백제 등의 국가이며, 송·제의 시기는 항상 파견된 사자가 조공품을 바쳤다. 양조(梁朝)가 건립된 이후에, 조공품을 바치는 나라가 더욱 증가 되었다. 부상국(扶桑國)은,

31) 『三國史記』권40「雜志」職官하, 389쪽, 冊府元龜云, 高句麗, 後漢時其國置官, 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古鄒大加, 高句麗掌賓, 客之官, 如大鴻臚也), 主簿, 優(一作于)台, 使者, 皂衣, 先人, 一說大官有大對盧, 次有太大兄, 大兄, 小兄, 意俟著, 烏拙, 太大使者, 小使者, 褥著, 翳屬, 仙人, 幷褥薩, 凡十三等, 復有內評, 外評, 分掌內外事焉. 右見中國歷代史.

32) 『梁書』권54「扶桑國傳」 貴人第一者爲大對盧丕, 808쪽.

>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다. 보통 연간에는, 도인(道人)이 와서 나는 부상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것이 부상국에 관한 특별한 보고였으며, 거기에 기록된 것이다.[33]

동이(東夷)에서 조선이 제일 크다. 조선은 기자의 감화를 받아, 그들의 각종 기계는 아직 중국의 예악 제도가 남아 있다. 위(魏) 시대(220∽265)에, 조선 이동은 마한·진한이 있고, 대대로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 이는 기자부터 계속해서 위(魏) 시대까지 교류가 있었다. 장강의 남천 이후는 동진이 보낸 사자는, 바다를 띄워서 동으로 가면서 고구려·백제 등의 국가교류를 하였다. 송(420-478)·제(479-502))의 시기는 항상 파견된 사자가 고구려와 백제는 조공품을 바쳤다. 양조(502-557)가 건립된 이후에, 조공품을 바치는 나라는 더욱 증가 되었다. 양나라도 더욱 번성하여 통교하였다.

부상국(扶桑國)은 양나라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다. 보통 연간(520-527)에는, 부상국 사문(沙門) 혜심이 와서 나는 부상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것이 부상국에 관한 특별한 보고였다. 이는 중국의 역사에서 부상국이 처음 등장한다. 부상국의 도인이 온 것이 최초의 일이다. 즉『양서』에서 「동이전」에 구성의 순서는, 고구려·백제·신라·왜·문신국·대한국(大漢國)·부상국(扶桑國) 있는 제전(諸傳)의 순서이다.

문신국(文身國) 이하는, 일인(日人)이 말하는 가공의 전적으로 분류한다. 문신국은 왜국의 동북 7천여 리이며, 대한국은 문신국의 동쪽으로 5천여 리이다. 이 양나라 조에는 풍습과 습관의 기사가 있고, 중국 관계를 기술하지 않았다. 부상국 조에는, 남제의 영원 원년(499)에, 사문 혜심이 형주(호북성 강릉)에 왔고, 부상국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부상국은 대한국의 동쪽으로 2만여 리이고, 중국의 동쪽에 있었던 나라이다.

---

33)『梁書』권54「東夷傳」 800∼801쪽, 東夷之國, 朝鮮爲大, 得箕子之化, 其器物猶有禮樂云. 魏時, 朝鮮以東馬韓·辰韓之屬, 世統中國. 自晉過江, 泛海東使, 有高句驪·百濟, 而宋·齊間常通職貢, 梁興, 又有加焉. 扶桑國, 在昔未聞也. 普通中, 有道人稱自彼而至, 其言元本尤悉, 故幷錄焉.

이노우에 히데오 교수가 쓴 『동아시아민족사 1 정사동이전』에서 『양서』의 동이전(東夷傳) 가운데 문신국 이하의 서술은 가공의 것이라 서술할 필요가 없다.[34] 이는 그가 사실을 모르는 행위이다. 그러나 부상국 사문 혜심이 형주에 왔다는 사실이다. 이노우에 히데오는 가공의 제전(諸傳)이라서 본서(本書)는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의 중흥이 일어난 양(梁)이 아닌 남제(南齊)에 내도한 해가 다르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또 문신국·대한국·부상국은 있었던 것을 모두 『양서』의 기록들이다. 이노우에 히데오의 견해와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35] 고구려를 동양의 위치에서 중심사상의 맥을 짚었던 행적과 부상국의 혈연관계였다. 고구려와 부상국 관계도 그런 동일한 연장 선상에서 취급하였다.

3. 양 무제의 불교

부상이 『양서』에 게재되어 있다. 왜 부상국 사문(沙門) 혜심이 기록되었다. 양나라 시대가 외국과 관계를 맺을 적극적이었다. 북방의 북조(北朝)와의 관계 때문이다. 양나라는 중국의 권토중래를 믿었던 그때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다.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 바다로 뻗어가기 위해 동쪽의 왜와 서쪽의 부남·천축과 관계도 활발하였다. 양 무제는 중국 대륙을 수복하려던 때에, 남제(南齊)의 부상 사문 혜심이 형주(荊州)에 나타난 것이다.

『양서』의 부상국 사문 혜심의 이야기다. 사문 혜심의 남제(南齊) 영원(永元) 원년(499)이라고 온 해를 표기하고 있다. 그때 부상 혜심이 형주에 왔다.

불교 전파의 천축 아육왕이 관한 기록이 양 무제 때에 보인다. 『남

34) 井上 秀雄, 『東アジア民族史 1 正史東夷傳』, 平凡社, 1974, 20쪽.

35) 『梁書』권54「東夷傳」 諸夷傳에 그 중에 東夷傳이다. 扶桑國조에 齊 永元 원년(499)에, 그 나라의 승 慧深이 荊州(湖北省 江陵)에 왔다. 東夷傳序文과 文身國은 架空의 諸傳이다. 扶桑國傳과는, 僧侶의 渡來 年度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井上 秀雄, 「梁書東夷傳」, 『같은 책』, 20쪽.

사』의 「부남국전」에 보인다.

> 처음에 대동 3년 8월에, 양 무제는 아육왕의 불탑을 개조하는데 구탑 아래에 있던 사리와 불지·불발을 캐냈다. 불발은 청감색으로 하고, 중들은 손으로 끌어당기고, 불발은 손의 동작을 장단의 변화를 맞추어, 손을 펴면 조개의 라문형으로 말아버린다. 『승가경』에 의하면, 「불발은 색이 청하며 세하다. 옥경의 실과 같다.」 『불삼매경(佛三昧經)』에 의하면, 「내가 전에 궁중에서 머리를 감을 때, 자로 머리를 재어 크기가 1장 2척이다. 손을 놓으면 우측으로 돌며, 원래의 조개라문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재한 것은 양 무제가 득도한 불발의 완전히 같은 것이다. 아육왕은 즉 철륜왕이고, 부도제에서 왕으로 칭하고 천하를 통일한다.[36]

천축 아육왕을 어떻게 신봉한 것인지 아는 바다. 그래서 양 무제가 몸 바쳐서 헌신한 아육왕경을[37] 신봉한 아육왕의 불상을 다시 그때 와서 개조하였다. 양 무제가 개조한 것이 아육왕 불탑이다. 인도 아육왕이 철륜왕이고 부도제의 통일천하를 꿈꾸었다. 고구려의 「요동성육왕탑」도 그런 아육왕의 천하 통일을 생각했던 모양이다.[38]

이러한 유형의 것은 양 무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육왕 탑의 오대 계율에 관한 기록이다.

> 일찍이 꿈에서 불조가 그에게 준 보제의 기록을, 그에게 승력 보살이라는 이름이다. 이에 도현경은 무현 아육왕탑에 와

---

36) 『南史』권78「扶南國傳」 1954쪽, 先是, 三年八月, 武帝改造阿育王佛塔, 出舊塔下舍利及佛爪髮, 髮青紺色, 衆僧以手伸之, 隨手長短, 放之則旋屈爲螽形. 按僧伽經云,「佛髮青而細, 猶如藕莖絲.」 佛三昧經云, 「我昔在宮沐頭, 以尺量髮, 長一丈二尺. 放已右旋, 還成螽文.」 則與帝所得同也. 阿育王卽鐵輪王, 王閻浮堤一天下.

37) 森 三樹三郎, 『梁の武帝-佛教王朝の悲劇-』 平樂寺書店, 1956, 147~148쪽.

38) 『三國遺事』권4「遼東城育王塔」 100쪽, (東國文化社, 1956)

서 서원을 해서, 불교의 5대 계율의 규제를 받았다. 후대에 양 간문제가 남서주 자사로 가서 있을 때에, 그의 풍채의 품행을 탄복하여, 그를 후당으로 모시고, 간문제는 백성의 옷을 입고 갈건을 쓰고 그를 만났다. 간무제와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가서, 간문제는 도홍경을 대하길 굉장히 숭상했다. 양무제의 천감연간에, 단약을 무제에게 올렸다. 중대통 초년에, 또 양도를 바쳤는데, 하나는 선승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위승이라 하여,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진기한 것이다.[39]

양 무제, 즉 소연 때에 도현경을 꿈에서 준 불교의 기록이다. 그런 아육왕 탑에서 서원을 발한 것은 불교의 5대 계율의 관한 것이다. 양무제와 그의 아들의 간무제의 성격도 불교의 5대 계율이다. 그러나 양 간무제는 재위기간이 2년을 조금 넘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불교의 교리로서 아육왕 탑을 바라 본 것이다. 『요동성육왕탑』은 고구려의 건국한 인물들도 이를 알았다. 동아시아 사상에서 최초의 일이다. 시기는 전한 무제시기의 흉노의 휴도왕시절의 탑이다.

양 무제 보통 원년(520) 여름 4월 갑오 일에 하남 왕이 파견한 사자에게 방물을 바쳤다.[40] 이해가 양나라에 대하여 고구려·부남·단활국이 모두 조공을 바쳤다. 즉 양의 전성기였다.

양 고조(무제, 재위 502-549년)가 즉위하자, 왜왕 무의 봉호를 정동장군으로 주었다.[41] 양 무제 천감 원년에 고구려왕 고운과 함께 주었던 백제왕 여대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양서』의 「무제기」의 천감 원년 4월 무신에 "진동대장군 왜왕 무에게 정동대장군을 주었다."

---

39) 『南史』권76「陶弘景傳」 1899쪽, 曾夢佛授其菩提記云, 名爲勝力菩薩. 乃詣鄱縣阿育王塔自誓, 受五大戒. 後簡文臨南徐州, 欽其風素, 召至後堂, 以葛巾進見, 與談論數日而去, 簡文甚敬異之. 天監中, 獻丹於武帝. 中大通初, 又獻二刀, 其一名善勝, 一名威勝, 並爲佳寶.

40) 『梁書』권3「武帝起」 普通元年 夏四月 甲午조, 63쪽;『建康實錄』권17「高祖武皇帝」普通元年 4月조, 476쪽.

41) 『梁書』 武帝紀 天監원년(502) 4월 戊辰조에, 「鎭東大將軍, 倭王武, 進號征東將軍」이라고 되어 있다, 36쪽.

고 기록되었다.[42] 그런데 양 무제는 백제와 왜와 같은 정동대장군을 주었다. 이는 양이 주변을 평정하려는 심산이다. 이는 남제 화제를 추존하였던 의식의 하나였다.[43]

양 무제 천감 11년(512) 4월에 "백제·부남·임읍 국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고 한다.[44]양 무제 중대통 6년(534)[45], 대동 7년(541)[46]에, 백제가 여러 차례 보낸 사자가 조공품을 바쳤다. 이때 대동 7년 3월 양에 준 것이 고구려·백제·활국 순서였다. 고구려를 상위에 놓았다.

이때 북위가 고구려 사신을 만났다. 즉『삼국사기』의 고구려 문자명왕 때의 일이다.

> 13년 4월에 사신을 북위에 보내어 조공하니 (북위) 세종(효문제)이 동당에서 그 사신 예실불을 만나 보았다.[47]

북위 효문제가 고구려 사신을 만났던 해이다. 그 동안 조공의 물건이 황금은 부여는 물길에서 나고, 백제에 사라가 병합하니 또한 물길과 백제 때문이라 하였다. 또 멀리 있는 나라는 양 고조(소연)의 조서로 고구려에 말하던 때였다. 즉『삼국사기』를 보자.

> 17년에 양의 고조(소연)가 조서를 보내어 가로되, 「고구려왕 낙랑군공 모는 그 성관이 무던하여 공역이 상속 불절하니 마땅히 질명을 높이고 조가의 넓힐지니, 무군대장군 개부의동삼사의 관작을 준다」하였다.[48]

---

42) 『梁書』권2「武帝紀」 天監元年 4月 戊辰조, 36쪽, 鎭東大將軍倭王武進號征東大將軍.
43) 『梁書』권2「武帝紀」 天監元年 4月 戊辰, 追諡爲齊和帝조,36쪽.
44) 『梁書』권2「武帝紀」 天監11年 4月조, 52쪽, 百濟·扶南·林邑國幷遣使獻方物.
45) 『梁書』武帝帝紀, 中大通6년 3월 甲辰조 참조, 78쪽.
46) 『梁書』武帝帝紀, 大同7년3월조 참조, 85쪽.
47) 『三國史記』권19「高句麗本紀」 文咨明王조, 174쪽, 十三年,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1991, 乙酉文化社.)
48) 『三國史記』권19「高句麗本紀」 文咨明王조, 175쪽, 十七年, 梁高祖下詔曰,

이는 남북조의 북위는 고구려를 치려는 듯 한 인상과 양은 고구려를 도와서 새로운 관작을 주었다. 두 나라는 서로 각기 다른 양상이다. 그렇다면 양은 주변세력을 규합하려는 생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국이 사문 혜심이 폭넓게 규합하려 하였다. 게다가 불교국가인 양무제를 환영한 사문 혜심도 양을 도왔다.

고구려 안장왕 2년 정월에 양에 보내 조공하였다. 그 해 2월의 상황을『삼국사기』에서 보자.

> 2월에 양의 고조(소연)가 왕을 봉하여「영동장군도독영평이주제군사고구려왕」이라 하고, 사자 강주성을 보내어 왕에게 의관과 검패를 수여하려 하였던바, 위병(魏兵)이 해상에서 그 사자를 잡아 낙양에 보냈다. 위주가 왕을 책봉하여「안동장군영호동이교위요동군개국공고구려왕」이라 하였다. 9월에 양에 조공하였다.[49]

남북조시대에 중국에서 벌어진 양과 북위와의 대립이다. 서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안장왕 8년과 9년에 양에게 계속해 조공하였다.

고구려 안원왕이 즉위하자, 즉『삼국사기』에 즉위하던 해에 조서를 내렸다.

> 양의 고조가 조사를 보내어 (전왕의) 벼슬을 잇게 하였다. (중략 2년) 4월에 양에 조공하였다. 6월에 위에 조공하였다. 11월에 양에 조공하였다.[50]

高句麗王樂浪郡公某, 乃誠款著, 貢驛相尋, 宜豐秩命, 式弘朝典, 可撫軍(一作東)大將軍開府儀同三司.

49)『三國史記』권19「高句麗本紀」安臧王 2年조, 176쪽, 二月, 梁高祖封王爲寧東將軍都督營平二州諸軍事高句麗王, 遣使者江注盛, 賜王衣冠劍佩, 魏兵就海中, 執之送洛陽, 魏封王爲安東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秋九月, 入梁朝貢.

양이 고구려 신왕의 작위를 준 것이다. 고구려 안원왕은 양에 대해서 조공을 많이 가져다 바쳤다.

양 무제에 관한 기록이 있다. 『건강실록』권17에는 소연(蕭衍), 즉 무제가 연결되었다. 천감 2년(503)에 부남·구자·중천축국에서 양에게 사지를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또 양이 법왕사, 영건사, 불굴사, 영수관을 지었다. 천감 4년에 경업사를 지어고, 천감 5년에 정거사를 지어고, 천감 6년 8월에 광택사를 지어고, 천감 7년 7월에 열반사를 지었다.[51] 이와 같은 사찰을 무수히 많다. 이는 다 『건강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것도 양 무제 때의 기록이다. 게다가 고구려, 백제, 왜의 장군직을 수여했다. 양의 국력평창으로 불교의 융성을 꾀하였으나 그의 헛된 꿈은 양 무제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문화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사문 혜심은 불교의 양(梁) 문화와 연결고리였다. 양 무제가 반세기 가깝게 황위에서 북조에 대항하여 불교 팽창과 더불어 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권의 형성이 불발되었다.

4. 동쪽으로 간 문신국과 대한국과 부상국

문신국(文身國)에 관한 이야기다. 즉 『양서』의 「문신국전」에 보인다.

> 문신국은 왜국의 동북에 7천여 리에 있다. 문신국의 인신상에는 호랑이 상과 같은 화문이 있다. 사람의 이마 위에는 삼도문이 있고, 문신이 곧은 것을 존귀한 것이고, 문신이 모양이 곡선인 것은 낮고 천하다. 이 백성의 생활은 즐겁고 평화로워, 생산하는 것이 늘 풍부하여, 가격이 매우 싸며, 행인이 마른 음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집이 있으나

50) 『三國史記』권19「高句麗本紀」 安原王 元年조, 176쪽, 梁高祖下詔襲爵. (中略, 二年,) 夏四月, 遣使入梁朝貢, 六月, 遣使入魏朝貢,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51) 『建康實錄』권17「高祖武皇帝」 天監2年조. 472~474쪽.

> 성곽은 없다. 문신국왕이 거처하는 방은, 금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들의 집 주위에는 구덩이가 있어, 넓이는 한 장이고, 물이 흐를 때는 수은 같은 흐르는 것 같다. 시장에는 값비싼 물품들이 있다. 경범 죄인을 매질을 하고 ; 중죄인은 호랑이 밥으로서 먹이가 되게 하며, 만약 호랑이 밥으로서 먹지 않으며, 하루 밤을 지나서야 그를 사면해 준다.[52]

문신국은 왜국의 동북에 7천여 리에 있다. 고구려에 북방에 있으며, 바로 시베리아다. 문신국의 인신 상에는 호랑이 형상과 같은 화문이 있다. 사람의 이마 위에는 삼도문이 있고, 문신이 곧은 것은 존귀한 것이고, 문의 곡선인 것은 낮고 천하다. 이 백성의 생활은 환하고 즐거워서, 나는 것이 풍부하며, 가격도 매우 싸며, 행인이 건량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그들은 집은 있으며 성곽은 없다. 문신국왕이 거처하는 곳은, 금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성곽이 없다는 뜻은 저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집 주위에는 구덩이가 있고, 넓이는 한 장이고, 물이 흐를 때는 수은이 흐르는 것 같다. 시장에 값어치 있는 물건이 많다. 경범 죄인을 매질을 하고 ; 중죄인은 호랑이 밥으로서 먹이가 되며, 만약 호랑이 밥으로서 먹일 수가 없으며, 하루 밤을 지나서야 그를 사면하여 준다. 즉 그들은 호랑이를 키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시베리아 호랑이이다. 다시 말해 연해주 지역 북방에 사는 호랑이다. 그 지역은 그러타면 연해주 북방지역인 듯 싶다. 문신국은 연해주 북방과 오늘날 사할린 섬이다. 그와 같은 문신국의 내용은 『통전』의 「문신」과 같다.[53] 또 같은 문신국은 『남사』의 「문신국」의 내용과 같다.[54]

---

52) 『梁書』권54「文身國傳」 807쪽, 文身國, 在倭國東北七千餘里. 人體有文如獸, 其額上有三文, 文直者貴, 文小者賤. 土俗歡樂, 物豐而賤, 行客不齎糧. 有屋宇, 無城郭. 其王所居, 飾以金銀珍麗. 繞屋爲塹, 廣一丈, 實以水銀, 雨則流于水銀之上. 市用珍寶. 犯輕罪者則鞭杖, 犯死罪則置猛獸食之, 有枉則猛獸避以不食, 經宿則赦之.

53) 『通典』권186「文身」 文身, 梁時聞焉조, 5025쪽,(北京:中華書局, 1988).

54) 『南史』권79「文身國」 文身國在倭東北七千餘里조, 1975쪽.

문신국에서 동쪽으로 5천여 리가면 대한국이다. 즉『양서』의「대한국전」을 보자.

> 대한국은 문신국의 동쪽으로 5천여 리에 있다. 대한국에는 병기가 없어, 전쟁하질 않는다. 그들의 풍속은 문신국과 같으나 언어는 차이가 있다.[55]

대한국은 문신국의 동쪽으로 5천여 리에 있다. 문신국에서 시베리아 동쪽으로 5천여 리다. 대한국은 병기가 없으며, 전쟁이 없다. 이 뜻은 그들이 처한 곳이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곳이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 대한국의 풍속은 문신국과 같으나 언어는 차이가 있다. 이곳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경계에 있는 캄차카반도이다. 그러한 나라에는 병기도 없다. 대한국은 풍속이 문식국과 같으며 언어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통전』의「문신」과 기록과 같은 나라다.[56] 또한『남사』의「대한국」의 내용도 같다.[57]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여 리에 있는 부상에 관한 이야기다. 고구려와 같은 일파로써 멀리 간 부상이다. 즉『양서』의「부상전」에 관한 부분이다.

> 부상국은, 제(齊) 영원 원년에, 부상국의 사문 혜심이 형주에 와서 말하길: "부상국은 대한국의 동쪽으로 2만여 리로, 그곳은 중국의 동쪽이다. 그 지방은 굉장히 부상목이 많으며, 그것 때문에 부상을 넣어 국명을 지었다. 부상 나뭇잎과 오동나뭇잎과 유사하며, 처음 나는 것은 죽순과 같은 것으로, 부상국인은 모두 처음 나는 부상의 나무 잎을 먹는다. 부상의 과일 씨는 마치 홍색 같다. 부상의 나무껍질은 직조한 의복으로

55)『梁書』권54「大漢國傳」 807쪽, 大漢國, 在文身國東五千餘里. 無兵戈, 不攻戰. 風俗並與文身國同而言語異.
56)『通典』권186「大漢」 大漢, 梁時聞焉조, 5025쪽.
57)『南史』권79「大漢國」 大漢國在文身國東五千餘里조, 1975쪽.

만드는데, 그것은 면과 같다. 그들이 거주하는 탑의 널빤지 덮개였다. 부상국은 성곽이 없다. 문자가 있고, 부상의 나무 피는 종이와 같이 쓴다. 투구와 병기가 없으며, 무기로 쓰지 않는다. 부상국의 국법은, 남북에다가 두 개의 감옥이 있다. 죄가 가벼우면 남쪽 감옥에 넣으며, 중한 죄면 북쪽에 넣는다. 죄의 사면이 있으면 남쪽의 죄범을 사면하고, 북쪽의 죄를 지으면 사면하지 않는다. 북쪽의 감옥은 죄를 범하며, 남녀가 같이 있으며, (거기서 낳은) 남자 아이가 8세 되면, 감옥에 나가 노복이 되고, 여자 아이가 9세가 되면, 감옥에 나가 노비가 된다.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 나간다. 귀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국가가 대회를 소집하여, 범죄인을 갱 중에서 양보하나, 집회의 사람들이 죄인의 먹고 마시며 회의에서, 장차 죽을 것을 결별하는 것과 같다. 연후에 범죄인의 주위에 분위기로, 한 층으로 이러한 범죄인을 배척한다며, 그러한 담임 관직을 승인하지 않고, 범죄인의 자손까지도 담임 관직을 승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삼층까지도 연결과 범죄인의 7대 자손 모두 관직을 인정하지 않는다.[58]

부상국은 남제 영원(永元) 원년(499)에 부상국 중 혜심이 와서 한 이야기이다. 그는 형주에 와서, 말하길: “부상국은 대한국의 동쪽으로 2만여 리로, 그 곳은 중국의 동쪽이다. 그 지방은 굉장히 부상목이 많으며, 그것 때문에 부상을 넣어 국명을 지었다. 그는 오늘날 캐나다의 단풍잎을 국기로 삼는 것과 같다. 부상 나뭇잎과 오동 나뭇잎과 유사

58) 『梁書』권54「扶桑傳」 808쪽, 扶桑國者, 齊永元元年, 其國有沙門慧深來至荊州, 說云: “扶桑在大漢國東二萬餘里, 地在中國之東, 其土多扶桑木, 故以爲名. 扶桑葉似桐, 而初生如笋, 國人食之, 實如梨而赤, 績其皮爲布以爲衣, 亦以爲錦. 作板屋. 無城郭. 有文字, 以扶桑皮爲紙. 無兵甲, 不攻戰. 其國法, 有南北獄. 若犯輕者入南獄, 重罪者入北獄. 有赦則赦南獄, 不赦北獄. 在北獄者, 男女相配, 生男八歲爲奴, 生女九歲爲婢. 犯罪之身, 至死不出, 貴人有罪, 國乃大會, 坐罪人於坑, 對之宴飮, 分訣若死別焉. 以灰繞之, 其一重則一身屏退, 二重則及子孫, 三重則及七世.

하며, 처음 나는 것은 죽순과 같은 것으로, 부상국인은 모두 처음 나는 부상의 나무 잎을 먹는다. 부상의 과일 씨는 마치 홍색 같다. 부상의 나무껍질은 직조한 의복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면과 같다. 그들이 거주하는 탑의 널빤지 덮개였다. 부상국은 성곽이 없다. 문자가 있고, 부상의 나무 피는 종이와 같이 쓴다. 아메리카 인디언과 같이 성곽이 없으며 그들의 문자가 있다. 또한 나무 피는 종이와 같이 쓴다. 투구와 병기가 없으며, 무기로 쓰지 않는다. 대한국(大漢國)의 동쪽으로 2만여 리나 된다. 오늘날 북아메리카 대륙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남사』의 「부상국」에도 전한다.[59] 머나먼 나라이야기라 이를 역사서에 처음 거론하였다. 이런 사실은 『통전』의 「부상전」에서도 전한다.

> 부상은, 남제(南齊)시기에 들린다. 폐제(廢帝) 영원(永元)의 초에, 그 나라 사문 혜심이 형주(荊州)로 와서, 말하길, '부상국은 대한국의 동쪽으로 2만 여리에 있으며, 그곳은 중국의 동쪽이다.'[60]

앞에서 보아 온 『통전』의 「부상전」과 『양서』의 「부상전」의 내용이다. 이는 부상이 멀고 먼 나라여서 사문 혜심밖에 없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양서』의 「부상전」에서 사문 혜심이 말하길 "부상국의 국법은, 남북에 두 개의 감옥이 있다. 죄가 가벼우면 남쪽 감옥에 넣으며, 중한 죄를 지으면 북쪽에 넣는다. 죄의 사면이 있으면 남쪽의 죄범을 사면하고, 북쪽의 죄를 지으면 사면하지 않는다. 북쪽의 감옥은 죄를 범하며, 남녀가 같이 짝을 지으면서, 남자 아이가 8세 되면, 감옥에서 나가 노복이 되고, 여자 아이가 9세가 되면, 감옥에서 나가 노비가 된

59) 『南史』권79「扶桑國」 扶桑國者, 齊永元元年, 其國有沙門慧深來至荊州조, 1976쪽.

60) 『通典』권186「扶桑」 5024쪽, 扶桑, 南齊時聞焉. 廢帝永元初, 其國有沙門慧深來至荊州, 說云, '扶桑在大漢國東二萬餘里, 地在中國之東.

다. 이는 중죄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며 남자는 8세에, 여자는 9세에 각각 노비가 된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죽어도 감옥에서 못 나간다. 귀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국가가 대회를 소집하여, 범죄인을 갱 중에서 양보하나, 집회의 사람들이 죄인의 먹고 마시며 회의에서, 장차 죽을 것을 결별하는 것과 같다. 연후에 범죄인의 주위에 분위기로, 한 층으로 이러한 범죄인을 배척한다며, 그러한 담임 관직을 승인하지 않고, 범죄인의 자손까지도 담임 관직을 승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삼층까지도 연결과 범죄인의 7대 자손 모두 관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귀한 신분의 사람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답을 구한 것이다.

부상국 사문 혜심이 제나라 형주에서 한 이야기다. 즉 『양서』의 「부상전」의 혜심의 이야기이다.

> 부상국의 사람들은 국왕을 을기이고, 제일 등의 존귀한 자는 대대로(大對盧)라 하고, 제이 등의 존귀한 자는 소대로(小對盧)라 하고, 제삼 등의 존귀한 자는 납돌사(納咄沙)라 한다. 국왕이 출행할 때에 피리 부는 악대와 의장대가 나간다. 그들의 의복의 색은 매년 바뀌며, 십 천간의 순서이며, 갑을 년에는 청색 옷을 입으며, 병정 년에는 홍색 옷을 입으며, 무기 년에는 황색 옷을 입으며, 경신년에는 백색 옷을 입으며, 임계 년에는 흑색 옷을 입는다. 국 중에 한 소가 있어, 소는 뿔이 굉장히 길고, 사람들은 소가 뿔은 운반 물품으로 쓰고 싶어, 소의 뿔을 20곡미의 무게의 물건으로 팔려 나갔다. 부상국의 수레는 마차·우차·사슴차가 있다. 그들은 사슴을 키우며, 중국인이 소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많았다. 그들은 우유를 짜는 것처럼 우유를 만든다. 상리를 만들고, 상리는 파괴되지 않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 포도가 많이 난다. 부상국은 철은 없으며 동이 나며, 금은이 귀하지 않다. 시장에서 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할 때, 먼저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조그만 집에 들어가 살며, 조혼한 여자 집에 일하며 살고, 일 년이 경

과하며 여자가 그 남자를 싫어하면, 그러면 나가야 하고,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면 결혼해야 한다. 혼례는 대략 중국과 같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상을 치루며, 7일 동안 먹지 않는다 ; 조부모가 죽으면, 손자가 상을 치루어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형제나 숙모나 백부와 자매가 죽으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귀신의 신상을 만들어 설치하면, 상을 지키는 사람이 행례하여 제존하면 빨리, 상복을 바꾸어 입지 않는다. 국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계위하면, 3년 국사를 처리를 않아도 된다. 이곳의 원래 불교가 없었고, 송 대명 2년에, 계빈국은 5개 화상이 부상국에 도착해서 운유하니, 부상국에서 불교 교의·불경과 불상의 전파는, 그 국에 의한 출가한 사람이 권하는, 부상국의 불교의 풍기는 불신(佛神)이 바뀔 것이다."[61]

윗글들은 모두 부상국 중 혜심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대한국에서 2만 리나 되는데서 왔던 이야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중국의 동쪽에서 부상국이다. 부상국 국왕을 을기이고, 귀인 가운데 제일 높은 자는 대대로(大對盧)라는 칭호이다. 이는 『통전』의 「부상」에서 말하길 '국왕을 을기이고, 제1의 존귀한 자를 대대로(大對盧)이고, 제2인 자로 소대로(小對盧)이고, 제3인 자로 납돌사(納咄沙)라 한다.'[62] 또 『남사』의 「부상국」의 신분상에서 '국왕을 을기이

61) 『梁書』권54「扶桑傳」 808쪽, 名國王爲乙祁; 貴人第一者爲大對盧, 第二者爲小對盧, 第三者爲納咄沙. 國王行有鼓角導從. 其衣色隨年改易, 甲乙年青, 丙丁年赤, 戊己年黃, 庚辛年白, 壬癸年黑. 有牛角甚長, 以角載物, 至勝二十斛. 車有馬車·牛車·鹿車. 國人養鹿, 如中國畜牛. 以乳爲酪. 有桑梨, 經年不壞. 多蒲桃. 其地無鐵有銅, 不貴金銀. 市無租估. 其婚姻, 婿往女家門外作屋, 晨夕灑掃, 經年而女不悅, 卽驅之, 相悅乃成婚. 婚禮大抵與中國同. 親喪, 七日不食; 祖父母喪, 五日不食; 兄弟伯叔姑姊妹, 三日不食. 設靈爲神像, 朝夕拜奠, 不制縗絰. 嗣王立, 三年不視國事. 其俗舊無佛法, 宋大明二年, 罽賓國嘗有比丘五人游行至其國, 流通佛法·經像, 教令出家, 風俗遂改."

62) 『通典』권186「扶桑」 5024쪽, 名國王爲乙祁, 貴人第一者爲大對盧, 第二者爲小對盧, 第三者爲納咄沙.

고, 제1의 존귀한 자를 대로(對盧)이고, 제2인 자로 소대로(小對盧)이고, 제3인 자로 납돌사(納咄沙)라 한다.’ 63)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신분이 대대로(大對盧)였다는 것의 일치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강역의 연장선상에 북아메리카구역이 포함되었다. 즉 고구려의 한 지파가, 동쪽으로 갔던 곳이, 바로 북아메리카지역이다.

그 내용을 부상국 혜심의 말대로 옮기면: “부상국의 사람들은 국왕을 을기(乙祁)이고, 제일 등의 존귀 자는 대대로(大對盧)라 하고, 제이 등의 존귀 자는 소대로(小對盧)라 하고, 제삼 등의 존귀 자는 납돌사(納咄沙)라 칭한다. 국왕이 출행할 때에 피리 부는 악대와 의장대가 따라 나간다. 그들의 의복의 색은 매년 바뀌며, 십 천간의 순서이며, 갑을 년에는 청색 옷을 입으며, 병정 년에는 홍색 옷을 입으며, 무기 년에는 황색 옷을 입으며, 경신 년에는 백색 옷을 입으며, 임계 년에는 흑색 옷을 입는다.” 라는 내용이다. 앞에서 말한 제일 신분을 대대로(大對盧)이고, 제이 신분은 소대로(小對盧)라고 한 사실의 신분상에서 나타난 고구려 민족의 한 지파였던 것 같다.

그 이야기에서는 부상국 중에 한 소가 있어, 소는 뿔이 굉장히 길고, 사람들은 소가 뿔은 운반 물품으로 쓰고 싶어, 소의 뿔을 20곡미의 무게의 물건으로 팔려 나갔다. 20곡미로 팔렸다는 것은 소 뿔 가격이 높았다. 부상국의 수레는 마차·우차·사슴차가 있다. 그들은 사슴을 키우며, 중국인이 소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많았다. 이는 사슴을 키우는 부상 민족이다. 그들은 우유를 짜는 것처럼 우유를 만든다. 이것도 그들의 사슴이 많아서 형성된 문화형태로써 북 아메리카의 생활양식 문화이다. 상리(桑梨)를 만들고, 상리는 파괴되지 않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 포도가 많이 난다. 포도가 오늘도 북아메리카의 보편적인 것이다. 부상국은 철은 없으며 동이 나며, 금은이 귀하지 않다. 이는 북아메리카의 금은 흔하다. 시장에서 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할 때, 먼저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조그만 집에 들어가 살며, 조혼한 여자 집에 일하며 살고, 일 년이 경과하며 여자가 그 남자를 싫

63) 『南史』권79「扶桑國」 1976쪽, 名國王爲乙祁, 貴人第一者爲對盧, 第二者爲小對盧, 第三者爲納咄沙.

어하면, 그러면 나가야 하고,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면 결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부상국 사문 혜심이 중국이라고 말했던 것은 『양서』를 쓴 당(唐) 요사렴(姚思廉)[64]조차도 몰랐던 것 같다. 이는 중국에도 고구려가 제대로 된 문화기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는 고구려의 결혼 습관에 『후한서』의 「고구려전」에서 똑 같다.[65] 이러한 제도는 ‘처음 말로써 혼인을 정하고, 다음에 여자의 집 대옥 뒤에 소옥을 지어 서옥이라 부른다.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한 뒤에야 남자의 집에 살러간다’ 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풍속과 부상국의 같은 것이다.

부상국 사문 혜심의 이야기는 혼례는 대략 중국과 같다. 부모가 죽으면, 아이가 상을 치루며,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 조부모가 죽으면, 손자가 상을 치르고,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형제나 숙모나 백부와 자매가 죽으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귀신의 신상을 만들어 설치하면, 상을 지키는 사람이 행례하여 제존하면 빨리, 상복을 바꾸어 입지 않았다. 국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계위하면, 3년 동안 국사를 처리를 않아도 되었다. 여기서 중국과 같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고구려의 풍습이다.

부상국에 원래 불교가 없었다. 유송(劉宋) 대명 2년(458)에, 계빈국은 비구 5인이 부상국에 도착하여, 부상국에서 불교 교의·불경과 불상의 전파는, 그곳에 의한 출가한 사람이 권하는, 부상국의 불교의 풍기는 불신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이야기인 듯싶다.

한 고조부터 평제까지의 기록인 『한서』의 「계빈국전」을 보자.

> 계빈국은 국왕이 순선성(循鮮城)에서 다스리며, 동쪽으로 장안까지는 1만 2천 2백리이다. 이곳은 서역도호가 관할하지 못한다. 호구와 군대의 수는 상당히 많고, 이 나라는 대국이다. 동북으로 서역도호가 다스리는 오루성(烏壘城)이 6천 8백 40

64) 唐 姚思廉의 撰한 『梁書』이다.
65) 『後漢書』권85「高句驪傳」 其婚姻皆就婦家, 生子長大, 然後將還조, 2813쪽.

리이고, 동으로 오타국(烏秅國)이 2천 2백 50리이고, 동북으로 난두국(難兜國)이 9일 여정으로 있고, 서북으로 대월지국(大月氏國)이 있고, 서남쪽으로 오익산리국(烏弋山離國)이 연결하여 있다.[66]

전한시대의 계빈국은 순선성에 살면서 동쪽으로 장안까지 거리가 1만 2천 2백리이다. 호구와 군대의 수는 많아 이곳을 대국이다. 따라서 계빈국은 어느 곳의 보호를 받지 않았던 독립 국가였다. 이곳 계빈의 동으로 오타국 2천 2백 50리이며, 호가 4백 90이며, 인구가 2천 7백 33이며, 군대는 7백 40인이었다.[67] 계빈의 동북으로 난두국은 9일 여정이고, 호가 5천이며, 인구가 3만 1천이며, 병사는 3천이었다.[68] 서북으로 대월지와 서남으로 오익산리국과 연결해 있다. 계빈국은 한나라부터 시작하여 양무제때의 역사서이다. 대월지국은 호가 10만이고, 인구가 40만이며, 군대가 10만이었다.[69] 오익산리국은 계비국과 마찬가지로 호구와 병사들은 많으며 대국이었다.[70]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전한 때의 인구 수치와의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유송 대명 2년(458)에 계빈국의 비구 5명이 갔다고 하는 사실도 고구려의 후손의 지파로써 동서교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수나라 때에 고구려 지파의 끝자락 동서 교섭의 대상을 추구하였던 자들이 1천명이상의 대상(隊商)들이 오갔던 기록이 있다는 고구려기록이 있다. 수나라 위운기의 기록에 나온다. 즉『구당서』「위운기전」에 나타나는 예이다.

거란이 영주를 자주 침범하여, (수) 황제가 조를 내려 위운

66)『漢書』권96상「罽賓國傳」3884쪽, 罽賓國, 王治循鮮城, 去長安萬二千二百里. 不屬都護. 戶口勝兵多, 大國也. 東北至都護治所六千八百四十里, 東至烏秅國二千二百五十里, 東北至難兜國九日行, 西北與大月氏·西南與烏弋山離接.
67)『漢書』권96상「烏秅國傳」 烏秅國조, 3882쪽.
68)『漢書』권96상「難兜國傳」 難兜國조, 3884쪽.
69)『漢書』권96상「大月氏國傳」 大月氏國조, 3890쪽.
70)『漢書』권96상「烏弋山離國傳」 烏弋山離國조, 3888쪽.

> 기에게 돌궐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거란 부락을 치도록 하였다. 계민 가한이 기병 2만을 주어, 그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위운기는 20영으로 나누어서, 넷으로 나아가게 하여, 영(營)이 각각 상거를 일리(一里)씩으로 하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규정하는 북소리에 맞추어 나갔고, 호각 소리에 정지하도록 했으며, 공적인 일이 없을 때는, 말을 달리도록 하게 했다. 삼영오신지후에, 북소리를 내며 전진하며, 군중(軍中)에서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방패 일인을 죽였으며, 무리에게 목을 벤 자를 보였다. 이에 돌궐장수는 그들에게 말한 것을 보였으며, 모두 다 앞에 몹시 두려워 떨며 조심하여갔으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지 자가 없었다. 거란은 본래 돌궐을 섬겼으며, 돌궐을 중심으로 시기가 많아, 위운기는 이미 거란내부로 들어 가, 돌궐이라 하고 전일에 유성군(柳城郡)을 말하면, 고구려 교역으로 말하니, 수조(隋朝)의 사자들이 영내에 있다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자, 비밀히 누설한 자를 참수하니, 거란은 방비가 없었다.[71]

수의 위운기는 동원된 돌궐 병사들을 위장하여 고구려에 관한 거짓 상단(商團)을 꾸몄다. 이 기록은 돌궐의 병사들이 고구려로 장사하여가려는 위장된 상행위였다. 수의 위운기는 고구려로 위장하여 가는 무리에 속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로 가는 서역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고구려 민족과의 동서 교섭의 통로였다. 서역과 교류하던 고구려가 장차 동천(東遷)을 생각하는 민족이었다.

부상국 사문 혜심의 이야기를 듣는다. 즉 『양서』의 「부상전」에서 혜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71) 『舊唐書』권75「韋雲起傳」2631쪽, 會契丹入抄營州, 詔雲起護突厥兵往討契丹部落. 啓民可汗發騎二萬, 受其處分. 雲起分爲二十營, 四道俱引, 營相去各一里, 不得交雜. 聞鼓聲而行, 聞角聲而止, 自非公使, 勿得走馬. 삼령 五申之後, 擊鼓而發, 軍中有犯約者, 斬紇干一人, 持首以徇. 於是突厥將帥來入謁之, 皆膝行股戰, 莫敢仰視. 契丹本事突厥, 情無猜忌, 雲起旣入其界, 使突厥詐云向柳城郡, 欲共高麗交易, 勿言營中有隋使, 敢漏泄者斬之. 契丹不備.

혜심이 또 말하길: “부상국은 동쪽으로 가면 1천여 리가 가면 여국(女國)이 있고, 모두 다 여자밖에 없고, 그녀들의 용모는 단정하고, 피부색의 희고, 몸에는 털이 나고,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고, 머리카락이 나면은 지상(地上)까지 난다. 매년 2·3월에, 그녀들은 경쟁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임신하여, 6·7개월에 아이를 낳는다. 여인의 가슴 전에 젖이 없고, 목 뒤의 후면에 털이 길고, 모근 부분은 백색이 되고, 모 가운데는 물 즙이 있고, 여인들은 집에 나와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는 자라서 일백 일이면 달릴 수가 있고, 3·4년이 지나면 장대한 성인이 된다. 여자는 사람을 보면 황망히 뛰려고 하며, 특별히 남자를 무서워한다. 그녀는 금수(禽獸)와 같이 초식을 한다. 초식은 중국의 사호초(邪蒿草)와 같으나, 단지 기의 미향과, 맛이 소금과 같이 짜다.”[72]

부상국의 중 혜심이 머나먼 타국에 와서 자기 고향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칭호에 대하여 고구려의 관직인 대대로(大對盧)를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대한국(大漢國)에서 동으로 2만 리나 멀다고 했던 사실이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가면 북아메리카이다. 이는 고구려에 있는 대대로(大對盧)가 관직이고, 그곳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 궤적의 모습과 유사하여 고구려인과 같다. 위의 모습은 부상국에서 천여리를 가면 여국(女國)이 있고, 여인의 피부가 희고 물속에서 임신하며 먹는 음식이 특이한 맛을 가진다. 이를 『남사』에서 부상국 사문 혜심이 말한 것으로 여국으로 같게 표기하였다.[73] 또 『통전』에서도 이를 여국으로 표기하였다.[74]

---

72) 『梁書』권54「扶桑傳」 809쪽, 慧深又云: “「扶桑東千餘里有女國, 容貌端正, 色甚潔白, 身體有毛, 髮長委地. 至二·三月, 競入水則任娠, 六七月産子. 女人胸前無乳, 項後生毛, 根白, 毛中有汁, 以乳子, 一百日能行, 三四年則成人矣. 見人驚避, 偏畏丈夫. 食鹹草如禽獸. 鹹草葉似邪蒿, 而氣香味鹹.”

73) 『南史』권79「女國」 慧深又云, 「扶桑東千餘里有女國조, 1976~1977쪽.

74) 『通典』권186「女國」 女國, 慧深云조, 5024~5025쪽.

부상국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즉『양서』의「부상전」의 관련된 이야기다. 이것도『통전』에 나타난「여국」의 내용이다.[75] 여기서는『양서』의「부상전」의 여국의 이야기이다.

> 천감(天監) 6년에, 진안(晉安) 인이 있어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여, 올라와서 보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자는 중국인과 같았고, 단지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남자는 즉 사람의 신체가 개의 머리 같고, 소리도 개 짖는 듯하다. 그들은 식물 중에 팥을 먹는다. 의복은 포로써 만들어 입었다. 그들의 흙으로 만든 담장을 사용하였으며, 방의 형상은 원형이었으며, 방문은 공혈과 같았다.[76]

부상국의 양 무제 천감 6년(507)에 진안 사람이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여 보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자는 중국인과 같았고, 단지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남자는 즉 사람의 신체가 개의 머리 같고, 소리도 개 짖는 듯하였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모습이다. 그들은 식물 중에서 팥을 먹는다. 의복은 포로써 만들어 입었다. 그들의 흙으로 만든 담장을 사용하였으며, 방문의 형상은 원형이었으며, 방문은 공혈이었다. 이들은 오늘날 북아메리카 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양 무제 천감 6년에 진안 인이 본 것은 부상인의 모습이다.

즉『양서』의「원제」에 대보(大寶) 3년 8월에 기재된 상서의 글의 일부분이다.

> 동쪽으로 더 가면 현도가 보이고, 서쪽으로 더 가면 백랑·고류가 보인다. 부상의 해가 보이며, 이러한 지방은 어떤 나라에 딸린 곳이 아니며, 홍려에 귀순하고, 먼 나라에 딸린 나라가

75)『通典』권186「女國」梁武帝天監6年조, 5025쪽.

76)『梁書』권54「扶桑傳」809쪽, 天監六年, 有晉安人渡海, 爲風所飄至一道, 登岸, 有人居止. 女則如中國, 而言語不可曉; 男則人身而狗頭, 其聲如吠. 其食有小豆. 其衣如布. 築土爲墻, 其形圓, 其戶如竇云.

다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77]

봉표에서 말을 이어가기를 동쪽으로 현도가 보이며, 또 해(日)가 보이는 부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먼 나라라는 부상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5. 결론

중국에서 대(代)에서 대진국(로마)은 3만 9천 4백리이다.[78] 낙랑군에서 왜국까지는 줄 잡아 7천여 리이다.[79] 왜국에서 동북쪽에다가 문신국, 문신국의 동쪽으로 대한국,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다시 베링 해를 건너 부상국까지는 3만 2천 여리이다. 중국에서 서쪽의 대진과 동쪽의 부상국은 거리가 비슷하다.

고구려 지파의 원정여행의 종착지는 베링 해를 건너서 정착한 곳이 부상국이다. 아마도 멕시코 만까지 인지도 모른다. 이 기록은『통전』권185「변방」에 있다.

부상국은 다시 말해 왜국의 동쪽에서 중국 리(里) 수로 말해 삼만 리였으며, 가까이는 해가 뜨는 곳이다.[80]

부상국은 왜국에서 3만 여리였다. 다른 기록은 왜국에서 문신 국까지는 동북으로 5천 여리였고, 문신 국에서 동쪽으로는 대한국까지는 7천 여리였고,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부상국까지는 2만 리였다. 그렇다면 왜국에서 동쪽으로 부상국까지의 거리는 대략 3만 2천 여리였다.

『북사』에서 고구려의 관위는 대대로·태대형의 순서에 있다. 대대로는 왕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삼국사기』의『수서』의 '태대형·대

77)『梁書』권5「元帝」 大寶3年8月 鄴奉表에서 130쪽, 重以東漸玄菟, 西逾白狼, 高柳生風, 扶桑盛日, 莫不編名屬國, 歸質鴻臚, 荒服來賓, 遐邇同福.

78)『北史』권97「大秦國」 大秦國은 '去代三萬九千四百里' 조, 3227쪽.

79)『北史』권94「倭國」 計從帶方至倭國, 循海水行, 歷朝鮮國, 乍南乍東, 七千餘里조, 3135쪽.

80)『通典』권185「邊防序」 4978쪽, 扶桑國復在倭國之東, 約去中國三萬里, 盖近於日出處.

형·소형·대로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나타난 대로의 관직은 부상국의 제1 관직과 제2 관직과 같다. 『삼국사기』에서 말하길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의 벼슬은 모두 12등급이니 제1은 대대로(大對盧) 혹은 토졸이라고 한다.' 고 한다. 그밖에 『삼국사기』는 『책부원구』는 '고구려는 후한 때 그 나라에서는 상가·대로(對盧) 등이 있고, 일설에는 큰 벼슬에 대대로(大對盧)가 있고' 라는 것은 부상국의 제1 관직인 대대로(大對盧)의 관직과 동일하다.

부상국의 제1, 제2, 대대로(大對盧)와 소대로(小對盧)라는 것은 고구려 관직과 같다. 고구려의 지파인 북아메리카의 부상국이다.

『삼국사기』의 「개소문전」의 첫 부분이다.

> 개소문의 성은 천씨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대중을 현혹시켰다. 생김새가 씩씩하고 뛰어났으며, 의지와 기개가 커서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동부대인 대대로로 죽으니 개소문이 마땅히 계승하여야 하였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하여 미워하였으므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81]

김부식의 역사 작성법은 당과 연관된 것을 염두에 두었다. 연개소문의 행적은 물속에서 태어났으며 생김새나 씩씩하고 크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개소문의 아버지는 동부대인 대대로로 죽었다.

81) 『三國史記』권제49「蓋蘇文傳」448~449쪽, 蓋蘇文, 姓泉氏, 自云生水中, 以惑衆, 儀表雄偉, 意氣豪逸, 其父東部大人大對盧死, 蓋蘇文當嗣, 而國人以性忍暴惡之.

| 참고 문헌

『三國史記』, (乙酉文化史, 1991)
『三國遺事』권4「遼東城育王塔」, (1956, 東國文化社,1956)
『東文選』권3「雪梅軒賦」, (민족문화추진회. 1998, 重版)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 1』(국립중앙도서관, 1970)
『漢書』(鼎文書局,1978)
『後漢書』(鼎文書局, 1978)
『三國志』(鼎文書局, 1978)
『北史』(鼎文書局, 1978)
『周書』(鼎文書局, 1978)
『梁書』(鼎文書局, 1978)
『水經注』, (臺灣商務印書館, 1986)
『建康實錄』(鼎文書局, 1978)
『通典』(鼎文書局, 1978)
『舊唐書』(鼎文書局, 1978)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서울: 한나래, 2004.
이보형, 「아메리카 원주민과 신대륙의 정복」, 『미국사 개설』, 일조각, 2018.
森 三樹三郎, 『梁の武帝-佛教王朝の悲劇-』, 平樂寺書店, 1956.
井上 秀雄, 『東アジア民族史 1 正史東夷傳』, 平凡社, 1974.

<Abstract>

A study of Dae-Dae-Roe(大對盧) system of Goguryo and Busang(扶桑)

-World of Busang-

Ji, Bae-Sun(Emeritus Professor, Yonsei Univerity)

Ta-ch’in(大秦,Roma) is 9,615 miles from Tai(代) of Northern Wei(北魏).It is about 1,700miles from Yueh-lang-Jun(樂浪郡) to Wo-Guo(倭國). Wen-Shen-Guo(文身國) from Wo-Guo to the northeast. Da-Han-Guo(大漢國) from Wen-Shen-Guo to the east. It is about 7,800 miles from Da-Han-Guo to the east again across the Beringia to the Busang(扶桑).

The distance from Chaina to Ta-ch’in(大秦,Roma) in the west and to the Busang(扶桑) in the east are the same.

In the Goguryo-ch’an(高麗傳) of Zhou-Shu(周書), the high-ranking official has the title of Dae-Dae-Roe(大對盧) as the first official rank(官品). Dae-Dae-Roe is not the official position given by the king. The Dae-Dae-Roe of Busang is the same system as the first official rank.

According to Samkuk saki(三國史記), Shih-T’ang Shu(新唐書), the official rank of Goguryo is 12thgrade, and the first is Dae-Dae-Roe or Tu-Zhuo(吐拙). In addition, according to Samkuk saki and Ce-Fu-Yuan-Gui(冊府元龜), ‘Goguryo had Xiang-Jia(相加)·Dae-Roe(對盧) as an official rank at Later Han(後漢), According to one report, there is Dae-Dae-Roe as the first official rank. It is the same as the Dae-Dae-Roe of Busang.

The first official rank: Dae-Dae-Roe, the second official rank: So-Dae-Roe(小對盧) of Busang, are the same as official rank of Goguryo. It is the type of official rank of Goguryo. It was a Busang of North America, an Goguryo tribe.

Key words: Goguryo, Ta-Ch’in, Busang, Dae-Dae-Roe, Dae-Roe.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

괵셀 튀르쾨쥬(S.Göksel Türközü)**

목 차

1. 서론
2. 터키에서의 한국학 연구
  2.1. 한국어 관련 도서
  2.2. 한국문학 관련 도서
  2.3. 일반 한국학 관련 도서
3. 한국문학 작품 번역 현황
4. 한국 인문학 도서 번역 현황
5.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
6. 결론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터키어로 번역된 한국학 관련 자료의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터키에서 대학 과정에 한국어문학과 설립으로 한국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앙카라 대학교에서 2003년에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9-OLU-2250002)

**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Erciyes Üniversitesi), sgturkozu@erciyes.edu.tr

시작된 것이다. 현재 터키의 3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어 교육이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 등의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앞서 언급 한 3 개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번역은 거의 전적으로 같은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국어를 알지 못 하고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터키 학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영어로 된 자료에 의존하여 영문 자료를 참고로 한다. 그 이유는 번역 된 한국학 출판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인문학 분야에서 한국학 관련 번역이 대단히 적고 과학적 도서 번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인문학 또는 과학 분야의 한국학 번역은 터키에서 한국학의 발전과 수용 가능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하겠다.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선 현재까지 터키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연구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한국 문학 그리고 일반 한국학 관련 도서를 살펴본 후 3장에서 터키에서의 한국문학 작품 번역 현황을, 4장에서 터키에서의 한국 인문학 도서 번역 현황을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을 다룰 것이다.

1. 서론

터키와 한국의 관계는 튀르크족의 뿌리인 돌궐, 한민족의 조상 고구려 시대에 시작했다는 것을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튀르크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양국의 교류는 6.25전쟁까지 활발하지 못 했다. 6.25전쟁 이후 한국과 터키의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했고 양국간의 문화협력 체결이 이루어졌지만 학술적 교류는 80년까지 미비했다. 지리적으로 멀어진 한국과 터키 간에 학술적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올바른 번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터키에서 한국학 관련 번역서 수와 상태는 충분한가?

본 연구는 형제국가로 특징 지워진 두 나라, 터키와 한국의 번역 교류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터키에서의 한국학

연구 상황을 살펴본 후 번역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 후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터키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 문학 및 인문학 도서 번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터키에서의 한국학 연구

터키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는 터키 대학에서 한국어문학과의 설립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현제 터키의 세 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과가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학 연구들이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자들의 의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키에서 한국학 연구는 중국이나 일본 그것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었지만 최근들어 대학교 내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됨으로써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터키에서 한국학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어 문학과의 교육은 열의를 갖고 임하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학에 관련된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이 근래에 부쩍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터키어로 소개된 한국학 관련 도서나 학술논문 그리고 학위 논문이 미미한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이 많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장 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학 연구소' 설립이었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가 2019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중핵대학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에 터키에서 처음을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앞으로 한국학 학자 양성이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 연구소는 한국 학자들의 터키로의 출입을 이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할 요인이 될 것이며 인접 국가들과의 한국학 관련 학술 회의가 활발해져 이 곳에서 한국인 학자들과 공동 연구가 행해지면서 한국학 연구의 발전은 분명히 큰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터키에서 한국학 연구는 어학으로 시작하였지만 문학, 경제, 역사,

문화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터키 내 한국 관련 도서의 대부분이 한국어와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터키에서 현재까지 출간된 한국어와 관련된 도서는 21권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기로 한다. 한국 문학 관련 도서는 아직까지 6권 밖에 없고, 언어와 문화 도서 2권 그리고 일반 문화 도서 2권이 있다.

2.1. 한국어 관련 도서

터키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도서는 최근 들어 많아진 편이다. 다음 표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도서를 정리해 봤다. 이들 중 4편은 일반 한국어 회화 중심이고 4편은 한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는 4권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에 터키에서 최초로 한-터 터-한 표준 사전이 출판되었다.

	저자	작품명	출판사	년도
1	김성주, M.Ertan Gökmen	Korece Dilbilgisi, 한국어문법	Ankara Üniversitesi	2002
2	Göksel Türközü, 김성주	Korece 1, 2, 3 한국어 1, 2, 3	Lotus Yayınları	2007
3	이난아	Korece-Türkçe, Türkçe -Korece Konuşma Kılavuzu 한-터, 터-한 말하기 가이드	Yargı Yayınevi	2007
4	Hatice Köroğlu	Kolay ve Pratik Korece El Kitabı 쉽고 실용적인 한국어 핸드북	Kapadokya Yayınları	2007
5	양소영	Türkler için Korece 1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1	Say Yayınları	2008
6	S.Gökse Türközü	Korece ve Türkçe Arasında ki Benzerlikler; Dil- Kültür Bağıntısında Korece ve Türkçe 한국어와 터키어의 유사점; 언	Likya Yayınları	2010

		어와 문화의 관계에 있는 한국어와 터키어		
7	S.Göksel Türközü	Kendi Kendine-Pratik Korece Konuşma Kılavuzu 자습 한국어 회화 가이드	Fono Yayınları	2011
8	S.Göksel Türközü, Mehmet Ölçer	30 Günde Korece 30일 한국어	Fono Yayınları	2012
9	M.Ertan Gökmen vd.	한국어	Ankara Üniversitesi Yayınevi	2014
10	Derya Çelik Işık	Korece Gezi ve Konuşma Rehberi 한국어, 여행 및 대화 가이드	Delta Kültür Yayınevi	2014
11	이화천	Korece Öğreniyorum 1, 2, 3 한국어를 배웁니다 1, 2, 3	Boğaziçi Üniversitesi	2015
12	S.Göksel Türközü, Mehmet Ölçer	Standart Korece Sözlük 표준 한국어 사전	Fono Yayınları	2015
13	S.Göksel Türközü	Konularına Göre Temel Korece Dilbilgisi 주제별 한국어 기초 문법	Likya	2017
14	Şehriban Karacan	Korece İlk Adım 1 (한국어로의 첫 걸음)	Fono Yayınları	2018
15	Mehmet Ölçer	Pratik Dil Kartları Korece Sözcükler (실용적인 언어 카드, 한국어 어휘)	Fono Yayınları	2018
16	Ender Çağlar Uçak	İleri Seviye TOPIK Kelimeleri (고급 토픽 어휘)	Kutlu Yayınevi	2018
17	Candan K. Giray	Korecede En Cok Kullanılan 3000 Sozcuk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00 단어)	Fono Yayınları	2018
18	Candan K. Giray	Korece Temel Sözcük Hazinesi (한국어 기초 어휘)	Fono Yayınları	2018
19	Ender Çağlar Uçak	Korece Kelime Kitabı 1 한국어 어휘 초급 1	Kutlu Yayınevi	2019

20	Ender Çağlar Uçak	Korece Kelime Kitabı 2 한국어 어휘 초급 2	Kutlu Yayınevi	2019
21	Esra Doğan-Ayşe Gül	Korece Gramer ve Pratik Konuşma Rehberi (한국어 문법 및 실용 회화)	Az Yayınları	2019
22	Soyoung Yang	Çok Karşılıklı Korece Dilbilgisi İfadeleri (다의 한국어 문법 표현)	YAY Yeni Anadolu Y.	2019
23	B. Orhan Doğan	Korecede En Çok Kullanılan 1500 Sözcük ve Tümce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00 어휘와 문장)	Bora Yayıncılık	2019
24	Abdurrahman Esendemir	Asialogy Korece Dilbilgisi (아시아학 한국어 문법)	Cinius Yayınları	2020

〈표-1〉 한국어 관련 도서

2.2. 한국 문학 관련 도서

현재까지 터키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 관련 도서는 6권 밖에 없다. 둘 다 터키에서 학위 받은 문학 박사 오은경 교수가 집필한 것인데 하나는 20세기 터키와 한국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다른 도서는 터키 문학에서 한국 전쟁을 다루는 것이다. 오은경의〈터키 문학에서의 한국 전쟁〉, 〈여성주의 비평: 20세기 터키-한국 소설에서의 여성〉 이라는 도서는 터키에서 출간된 양국 문학 관련 작품이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씨앗형 사업으로 한국어문학과 학과장인 하티제 쾨르올루 튀르쾨쥬 교수는 현대 한국 문학사와 현대 한국 문학 작품 분석이라는 두 권의 도서를 집필 출판하였다. 그리고 오은경 교수는 같은 사업으로 한국 고전 문학 교재를 집필 출판했다. 이 3권의 교재는 터키에서 그 동안 전실하게 필요했던 한국 문학에 대한 자료 부족을 채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학 관련된 도서 목록은 다음표와 같다.

	저자	작품명	출판사	년도
1	오은경	Feminist Eleştiri Bağlamında 20. yy. Türk ve Kore Romanında Kadın 여성주의비평: 20세기터키-한국 소설에서의 여성	Aydan Veb Ofset/Urun	2005/2016
2	오은경	Türk Edebiyatında Kore Savaşı 터키 문학에서의 한국 전쟁	Aydan Veb Ofset	2005
3	Hatice Köroğlu Türközü	한국현대문학사 (Modern Kore Edebiyat Tarihi)	Likya Kitap	2017
4	Hatice Köroğlu Türközü	한국현대문학작품분석 (Modern Kore Edebiyatı Eser Analizi)	Likya Kitap	2017
5	오은경	한국고전문학 (Klasik Kore Edebiyatı)	Urun Yayınları	2017
6	Jung Suk Yoo	근대 한국 여성 작가와 기독교 Modern Korean Female Writers and Christianity	Likya Kitap	2017
7	조흥윤	한국고전문학사	Lotus	2020

〈표-2〉 한국 문학 관련 도서

2.3. 일반 한국학 관련 도서

터키에서 일반 한국학 관련된 도서는 2002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것이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저자	작품명	출판사	년도
1	Engin Beksaç	Geleneksel Kore Resim Sanatı	Engin	2002

		한국 전통화	Yayınları	
2	이희철	Türkiye Kore İlişkileri 터키와 한국의 관계	Türk Tarih Kurumu	2007
3	Muharrem Bakkal vd.	Son 30 Yılda Türkiye ve Güney Kore'nin Ekonomik Performansı 지난 30년간 터키와 한국의 경제 활동	Hiperlink	2012
4	S.Göksel Türközü, Hatice Köroğlu Türközü, 오은경	Kore'yi Tanıyarak Korece Öğrenelim 한국을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워보자	Lotus Yayınevi	2014
5	정은경	Kore Milliyetçiliği 한국 민족주의	Likya Yayınları	2016
6	Tomris Çetin	Röportajlarla Seul Güney Kore Rüyalar Ülkesi 인터뷰를 통한 꿈의 나라 서울, 대한민국	İmleç Kitap	2016
7	S.Göksel Türközü	Çeviri Amaçlı Korece Atasözü 번역을 위한 한국어 속담	Likya	2017
8	Mustafa Macit	Kore Dalgası - Küresel Popüler Kültür Fenomeni Hallyu/ Kore Dizileri (한류, 글로벌 대중 문화 현상 한류/한국 드라마)	Bir Yayıncılık	2018
9	Mutlu Binark	Kültürel Diplomasi ve Kore Dalgası Hallyu- Güney Kore'de Sinema Endüstrisi, K-Dramalar ve K-Pop (문화적 외교 및 한류, 한국의 영화 사업, K-Drama와 K-POP)	Siyasal Kitabevi	2019
10	Asli Kavurmacı	Güney Kore'de Chaeboller ve Endüstri İlişkileri(한국의 재벌들 및 산업 교류)	Ekin Basım	2020

〈표-3〉 한국학 관련 터키어 도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한국학과 관련해서 터키어로 출판된 도서는 10권뿐이다. 첫번째로 2002년에 출간된 도서는 한국 전통 미술에 대한 것인데 저자는 한국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도서를 참고로 하여 한국 전통 미술을 다룬 것이다. 두번째 도서는 터키와 한국의 교류를 역사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터키에서 학위 받고 수년동안 터키에서 근무한 후 공사직에서 은퇴한 이희철 교수가 쓴 책이다. 이 책은 터키 국립 역사원에서 2007년에 출간되었다.

2012년에 주 한국 터키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Muharrem Bakkal이 집필한 경제와 관련된 도서는 최근 30년 동안의 한국 터키 경제적 교류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씨앗형 사업으로 집필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도서이다. 이 도서는 한국 문화를 터키어로 소개하되 문화와 관련된 어휘, 관용표현, 속담 등을 한국어로 다루면서 소개한다.

일반 한국학 관련 도서로 2016년에 나온 역사서가 있다.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사학 박사 정은경 교수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루는 도서를 출간했다. 또한 2016년에 출간된 도서 중 하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작성된 기행물 형식의 도서인데 한국을 꿈의 나라로 보는 작가가 한국에서 거주 중인 터키인들과 한국인들과 인터뷰하면서 서울 그리고 한국을 소개하고 있다.

터키 아타튀르크 대학교 신학 대학 교수인 무스타파 마지트는 '한류, 글로벌 대중 문화 현상 한류/한국 드라마'라는 도서를 2019년에 냈다. 사회학적으로 한류를 다루는 이 도서에서는 한류와 관련해서 잘못 된 부분이 눈에 많이 띈다. 2020년에 하제테페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교수인 무틀루 빈아르크가 '문화적 외교 및 한류, 한국의 영화 사업, K-Drama와 K-POP'라는 도서를 냈다. 한국 경제와 관련된 '한국의 재벌들과 산업 교류'라는 도서는 2020년에 나왔는데 저자는 터키 반드르마 대학교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슬르 카우르마즈 박사다.

3. 한국문학 작품 번역 현황

터키에서 한국 문학의 인지도와 번역 작품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언급한 바,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늦게 시작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번역가를 양성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 문학에 관한 연구자나 번역자들은 지속적이며 생산적인 번역을 하고 있다. 이 번역자들 중에는 한국인, 터키인 번역가들이 있다. 최근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그리고 다른 일련의 기관의 지원으로 한국 문학 작품들이 터키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작가	작품명	옮긴이	출판사	년도
1	이청준	예언자 Kahin	Sevgi Tamgüç	İletişim	1993
2	박범신 외	한국단편집 Kore Öyküleri	이난아	İletişim	2001
3	이청준	이어도 IO Adası	이난아	Everest	2004
4	이광수	무정 Merhametsiz Yasam	Yeşim Ferendeci	Agora	2004
5	김소월	진달래꽃 Açelya Çiçeği	Hatice Köroğlu	Agora	2005
6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Değişen Kahramanımız	Yeşim Ferendeci, S.Göksel Türközü	İmge	2006
7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Kendimi Yıkmaya Hakkım Var	이난아	Agora	2007
8	천상병	귀천 Göğe Dönüş	이난아	Özgür	2007
9	영귀자	원미동사람들 Uzak ve Güzel Mahalle	S.Göksel Türközü	Delta	2010
10	고운	고은시집 Yarın Destanı	오은경	Ürün	2011
11	고운	만인보 Onbin Can	오은경	Ürün	2011

12	이문열	시인 Şair	이난아	Delta	2011
13	신경숙	엄마를부탁해 Lütfen Anneme İyi Bak	Belgin Selen Haktanır	Doğan	2011
14	손홍규	이슬람정육점 Başka Topraklarda Rüzgâr Sert Eser	S.Göksel Türközü	Martı	2013
15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Uçabileceğini Hayal Eden Tavuk	Seda Ersavcı	Butik	2014
16	안도현	연어 Küçük Somonun Büyük Yolculuğu	S.Göksel Türközü	Dogan Egmont	2016
17	한강	채식주의자 Vejetaryen	S.Göksel Türközü	April	2017
18	현진건 외	한국문학단편집 Kore Öyküleri	Hatice Köroğlu Türközü	Yitik Ülke	2017
19	황석영	바리데기 Prenses Bari	S.Göksel Türközü	Doğan	2017
20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Yakıcı Susuzlukla	오은경	Urun	2017
21	황석영	낯익은 세상 Tanıdık Şeyler	S.Göksel Türközü	Doğan	2018
22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Gökyüzü, Rüzgâr, Yıldızlar ve Şiir	Mehmet Sait Sener	Dedalus	2018
23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Mutlu Günlerimiz	Mahinur Zehra Karahan	Mona	2018
24	최윤	마네킹 Manken	Burcu Uluçay	Çınar Yayın	2018
25	편혜영	재와 빨강 Küller ve Kızıl	Tayfun Kartav	Doğan	2019
26	한강	소년이 온다 Çocuk Geliyor	S.Göksel Türközü	April	2019
27	김언수	설계자들 Komplocular	S.Göksel Türközü	Doğan	2019

28	김연수	원더보이 Mucize Çocuk	S.Göksel Türközü	Doğan	2020
29	김형오	술탄과 황제 Sultan ve İmparator	S.Göksel Türközü, Hatice Köroğlu Türközü	Lotus	2020
30	한강	흰 Beyaz Kitap	S.Göksel Türközü	April	2021
31	손원평	아몬드 Badem	Tayfun Kartav	Peta	2021

〈표-4〉 터키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 6 편의 시집, 4 편의 단편집 그리고 18편의 소설이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소설들 중 다섯 편, 그러니까 이청준의 〈예언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과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최윤의 〈머네킹〉은 원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에서 터키어로 번역된 작품이다. 이청준의 〈예언자〉는 프랑스어판에서 터키어로 번역되었고 다른 네 작품은 영어에서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이제 터키에서 한국 문학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터키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질수록 문학 작품 번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한국 인문학 도서 번역 현황

터키에서 한국 인문학 도서 번역을 1998년에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첫번째 번역된 도서는 영어에서 터키어로 번역된 역사서이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터키어과에서 12년동안 강의를 한 Ali Rıza Balaman 교수가 번역한 도서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 그 후에 한국어에서 터키어로 번역된 도서는 어학서인데 〈한국의 언어〉라는 학술서이다. 2010년에 필자가 번역한 〈터키- 신화와 성서에 무대,

이슬람이 숨 쉬는 땅-〉이라는 도서는 터키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다룬다. 이 책을 터키에서 수년 동안 근무했던 이희철 교수가 쓴 것이다.

2016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한국 외국어대학교 터키어-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들과 공동으로 전통 한의학과 관련된 의학서를 터키어로 번역한 일이 있다. 이 도서는 시중에서 팔리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터키의 주요 대학 의대나 종합 병원 등으로 배포할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에 황경문 교수가 쓴 '맥락으로 읽는 새로운 한국사'라는 도서가 터키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같은 해 터키어로 번역된 BTS Icons of K-pop (터키어 K-pop Mucizesi)은 영국인 작가 아드리안 베슬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최근 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 BTS에 대해 쓴 책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지원으로 2013년에 터키어로 번역된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라는 도서는 소설 형식을 빌린 역사서이다.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의 몰락과 오스만 술탄의 이스탄불 정복을 다룬 이 책을 번역한 후에 터키의 이름난 역사학 전문 출판사가 2020년에 출판하였다.

2020년에 터키어로 번역된 'Kore Nasıl Kore Oldu?'라는 도서는 한국학과 관련해서 영어에서 번역된 책이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과정을 다루는 이 책의 영문 제목이 'Modern Korean: All The Matters'이고 저자는 Andrew Salmon이다.

마지막으로 터키어로 번역된 인문학 도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라는 도서인데 현제 출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	작품명	옮긴이	출판사	년도
1	Andrew C. Nahm	한국의 역사와 문화 Kore Tarihi ve Kültürü	Ali Riza Balaman	Ege Üniversitesi	1998
2	이익섭, 이상억, 채완	한국의 언어-Kore Dili	S.Ferah Akpınar	Aydoğdu Matbaa	2003

3	한국 역사 교사 학회	외국인 독자를 위한 한국사 Uluslararası Okurlar için Kore Tarihi	Michelle Seo Çiğdem Çıdamlı	Kore Cumhuriyeti Büyükelçiliği	2014
4	한국한의학 연구원	한의학 개론 Geleneksel Kore Tıbbına Giriş	오종진, S.Göksel Türközü, 양민지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6
5	황경문	맥락으로 읽는 새로운 한국사 Kore Tarihi	Ayşe Su Doğru	Feylosof	2018
6	Adrian Besley	BTS Icons of K-pop BTSK-PopMucizesi	Sevda Gürler, Merve Cavkaytar	Yakamoz Yayınları	2018
7	Andrew Salmon	Modern Korean: All The Matters Kore Nasıl Kore Oldu?	Cansen Mavituna	Metropolis	2020
8	최운식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	Hatice Köroğlu Türközü, S. Göksel Türközü	출판 중 (Nantu)	2021

〈표-5〉 한국 인문학 번역 도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4편의 역사서, 1편의 어학서, 1편의 의학서, 1편의 경제학 관련 도서, 2편의 문화관련 서적이 터키어로 번역 출판된 것이다. 인문학 번역 도서가 대단히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전문 번역가가 부족하고 출판사들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5.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것은 아니었다. 동시대 같은 문화권 속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심지어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문화의 결정체를 본인들의 시대, 문화,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번역의 대상은 주제에 따라 문화서적, 문학서적, 전문지식서적, 역사서적 등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문화적 번역, 문학적 번역, 전문서적 번역, 사료 고증 번역 등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이차적 세분화를 거친다면 문화적 번역은 시대에 따른 고전시, 근대시, 근현대시, 현대시, 고전 소설, 근대기 소설, 근현대 소설, 현대소설, 공상과학 소설 등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분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은 그 범위와 분야가 방대하고 세분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들은 번역에 임하기 앞서 그 작품을 지은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작가가 살았던 국가, 작가가 살았던 연대, 습작 당시 작가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 작품의 분야 등 다방면 걸쳐 정보를 습득한 후 번역에 임해야 좀 더 올바른 번역서가 나올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번역이라는 것은 '100% 완성된 번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오류를 최소화 하는 번역'을 목표로 삼고 번역에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서나 다양한 종류의 외국어 서적을 번역한다는 것은 작가의 삶, 작가의 상태, 그 시대상 등 방대한 정보를 '번역가의 입과 손'을 통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작가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풀어내는 번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번역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번역가들은 번역에 임할 때 굉장한 자부감을 갖는 동시에 막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간단하게, 전문지식서를 번역한다면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명사와 단어들을 숙지해야 할 것이며, 역사서를 번역한다고 하면 고대 언어와 그 표현들에 대한 바탕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서적을 번역해야 한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에서는 직역과 동시에 그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의역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에서 '인맥이 넓다'는 의미로 '발이 넓다'라는 말을 터키에서는 '팔이 길다'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경우 주인공들의 어투나 분위기 상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번역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역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번역의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고 심오하다. 번역가가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했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번역윤리를 잘 고심한 후 번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 터키는 그 관계가 고대로 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형제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이다. 역사적인 흐름과 문화적, 언어적 등 다양한 분야를 봤을 때 '비행기로 12시간 멀리 떨어진 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양국이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하고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터키에 소개되는 것 또한 문화적 교류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터키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류를 통해 지속되고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번역가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문화대사'로 불릴 수 있겠다.

터키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한국학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문학, 문화, 역사, 철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적, 문학 서적 등 번역이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고 따라서 번역서 또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매년 한국의 작가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학을 터키 한국어 수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있지만 작가들의 작품 번역 활동은 크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터키 내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학 교육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미비한 수준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차적으로 번역이 잘 이루어져야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차적 활동으로 양국의 문화 및 문학, 전문지식 등 교류와 공동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식 습득과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2차 3차 교류 및 공동작업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터키 내 한국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어-터키어 번역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들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 고유명사를 터키어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작가 이름부터 터키어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는 한국 작가들 이름의 영문 표기 때문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작가 '양귀자'의 터키어 표기는 'Yanğ Gü Ca'인데 영어 표기는 'Yang Kwija'로 되어 있고, 이테리어 표기는 'Yang Gui Ja'로 되어 있다. 터키어 출판사가 'Yang Gui Ja'를 선택하여 사용했다. 영문 표기로 하면 터키인들이 발음할 때 작가의 이름이 원문대로 발음되지 않는다. 또한 '김치', '을지로' 등의 고유명사는 터키어로 정확한 발음을 위해 'gimçi', 'Ilciro'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영어로 된 한국 역사서에는 '신라'를 Silla로 표기한 책도 있고 'Shilla'로 표기한 책도 있는데 터키어 표기는 'Şilla'가 맞다 하겠다.

6. 결론

양국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 된지 60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학술적이나 일반적 교류는 8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터키어 과 설립, 1989년에는 앙카라 대학교, 2000년에는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설립으로 양국의 연구자들은 서로를 자세히 알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본질 이자 목표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접근'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

며, 대부분 표면적일 뿐 그 깊이가 깊지 못하다 할 수 있겠다.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2000년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류의 열풍도 중요하지만 한국학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한류 또한 한국 문화의 일부분일 뿐 한국 문화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한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와 'K-pop' 이외에 다양한 정치, 경제, 음악, 역사, 문화, 문학, 철학, 등은 한국학을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연구가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한류 이외의 한국학을 소개한 것은 한국학 연구자들의 사명이며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첫 단계가 한국학의 전반을 터키에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선 표면적이며 입체적인,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번역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전반을 쉽게 소개하고 그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과 터키는 고대사로부터의 관계, 한국 전쟁을 통한 인연, 2002 한일 월드컵 등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양 국의 연구자들은 상호간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다수의 터키인이 '한류'라는 표면적인 한국 문화의 일부분만을 좇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 내 터키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쉽게 이러한 문제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양국의 문화를 '상호교류적' 방향을 목표로 삼고 서로의 문화 연구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본고의 주제로 돌아와 마무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양국의 문화 교류와 상호 교류'를 통한 첫 단계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의 번역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져야만 그 나라의 문화, 역사를 포함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곧

한국과 터키 양국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미래의 후학 양성의 씨앗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Hatice Köroğlu Türközü, S.Göksel Türközü,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Textbook for Turkish Learners’,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Society of Koreanology, 2020.

S.Göksel Türközü, 「문화번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터키어 번역」, 2012 한국어응용언어학 제3회 국제학술대회, 카이세리, 2012.

S.Göksel Türközü, ‘Kültürel Çeviri Bağlamında Türkçe-Korece Çeviri Çalışmaları(문화 번역 측면에서 터-한 번역 연구)’, Turnalar Dergisi, Kıbrıs-Balkanlar-Avrasya Türk Edebiyatları Vakfı, 2018, p.5-12.

<Abstract>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urkey

S.Göksel Türközü (Erciyes Üniversites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sources concerning Korean Studies, which have been conveyed and translated into Turkish an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It is said that Koreanology was academically introduced in Turkey whe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as establish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menced at Ankara University in 1989, followed by Erciyes University in 2003. In 2016 a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İstanbul University offering courses in the Korean language. Currently in Turkey, Korean language courses and Koreanological research and study activities are provided by 3 universities and Korean language courses are also offered at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the Korean Culture centres.

Studies of Korea are conducted mainly by academicians at the aforementioned three universities. Generally, translations from the Korean language are done almost exclusively by the same scholars. Turkish academicians who do not master the Korean language frequently resort to English sources in order to be able to study various aspects of Korea. The reason for this is the scarcity of translated Korean published material. Conducted investigations into the matter showed that there were very few translations of Korean text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urprisingly no scientific text had been translated whatsoever. Future translations from the Korean language in the fields of either humanities or science will be growingly more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and availability of Korean Studies in Turkey.

It would hardly be an exaggeration to emphasize the crucial role translation play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irstly, the current state of Korean Studies in Turkey, secondly, the published material pertaining to the Korean language, Korean literature and general Koreanology, thirdly,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lation of works of Korean literature, fourthly, the translations from Korean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lastly, the importance and problems of translation activities concerning the progression of Korean Studies in Turkey.

우크라이나 한국어교육에서 온라인 강좌 사례 연구

박 안토니나*

목 차

1. 서론
2.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의 현황
  2.1.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논의
  2.2.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현황
3.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설문 조사
  3.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3.2. 설문 조사 분석 및 결과
4. 결론 및 제언

〈논문개요〉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현재 전 서계의 교육기관이 고통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도 모든 교육기관의 개강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지 못한 교육기관과 교수자는 수업 설계, 개발부터 운영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

* 우크라이나, 우신스키 국립 사범대학

어지는 강좌는 U 대학과 K 교육원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훈련 과정 없이 수업을 준비해야 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우크라이나 확산으로 유례없이 진행된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이례적으로 진행된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어려움을 극복 해나가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이례적으로 진행된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분석해봤는데 그 결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리터러시 역량, 교육 도구 활용 능력 등 요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온라인 수업 질 제고를 위하여 향후 U 대학과 K 교육원의 수업 설계, 콘텐츠 개발, 학습 관리 시스템 지원 정책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한국어 교육, 한국어 온라인 강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1. 서론

최근에는 전 서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면대면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면 상호작용을 정보통신을 매개로 비대면 상호작용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대면 상호자용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유럽 우크라이나 교육기관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교육부에서 '원격 교육'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여 각 교육기관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바뀌어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원격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뒤에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안으로서 불가피하게, 급히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변화

는 오랜 숙제였고, 현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한국어 교육기관인 U 대학과 K 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한국어 강좌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의 현황

2.1.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논의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온라인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한 입장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온라인 교육(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or Tele-Education)이라는 용어 역시 여러 유사개념을 포괄하고 있다.[1] 온라인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1) 온라인 교육(On-line Education), 또는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은 강사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맞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기존 교육 대신 강사와 학생들이 실제로 맞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다양한 교육 형태이다. 넓은 개념으로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or Tele-Education), 온라인 원거리교육(On-line Distance Education), 웹기반 교육 (Web-Based Training), 열린 교육(Open Education), 이러닝(e-Learning)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용길, 「가상대학 현황 및 컨텐츠 개발」, 『産業經營硏究』 제27집 2호, 2004, 231쪽.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은 구성원들 간의 교수-학습의 동시성에 따라서 실시간 형태의 온라인 교육과 비실시간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은 구성원들 간의 교수-학습의 동시성에 따라서 실시간 형태의 온라인 교육과 비실시간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2)]

한국 내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영희(2015)에서는 해외 대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KF글로벌 E-school 한국어교육 과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권영애·송영은(2017)에서는 2015년 국내 K대학과 러시아 H대학과의 학점교류 강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최은지·한하림·서정민(2018)에서는 실시간 화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손미영(2019)에서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를 대학교의 정규과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희연 · 윤지원(2020)에서는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김현주(2020)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도재우(2020)의 글을 참고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기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직면하는 장애물로 수업 구조 재설계의 필요성, 기존 교수전략의 부적합, 교수자와 학습자의 낮은 온라인 수업 준비도, 대학 차원의 지원 미비, 수업 회 활동 설계의 어려움을 꼽았다.[3)]

---

2) 정희연 & 유지윤,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제21집, 2020, 1307쪽.

3) 김혜민, 독일 대학에서의 온라인 언어 수업 운영 사례 연구 –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제22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20년, 58쪽, 재인용.

2.2.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교육기관들은 우크라이나 교육부의 '원격 교육'에 대한 406호 결정문[4] 에 따라 이를 시행하였다. U 대학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30-P호 결정문과 제297호 결정문[5] 에 따라 이를 시행하였다. K 교육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치침에 따라 한국어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U 대학에 경우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온라인 수업을 MS 팀즈(MS Teams)를 비롯한 다양한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비실시간 수업은 유투브(Youtube) 영상 자료 및 콘텐츠 등 활용,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이나 비버(Viber-Group)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수합하는 방식을 권장했다. K 교육원에 경우 모든 온라인 수업을 줌(Zoom)과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온라인 한국어 수업설계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주지 않았다. 결국 교수자가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설계, 콘텐츠 선정, 운영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모든 교수자가 재택 수업을 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강의실 수업에서 접할 수 없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발 빠르게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U 대학과 K 교육원에서 오프라인 한국어 강좌를 온라인 강좌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은 아래 〈표-1〉와 같다.

---

4) 우크라이나 교육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https://mon.gov.ua/ua/npa/pro-organizacijni-zahodi-dlya-zapobigannya-poshirennyu-koronavirusu-s-ovid-19 (검색일: 2020년 9월 29일).

5) U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결정문 및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https://pdpu.edu.ua/informatsiya/studentam/do-uvahy-uchasnykiv-osvitnoho-protsesu-covid-19 (검색일: 2020년 9월 29일).

구분	운영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 화상 수업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및 즉각 피드백 줌(Zoom) 등 활용
콘텐츠 활용 수업	지정된 콘텐츠 선정 및 제공 비실시간 유투브(Youtube) 영상 자료 등 활용
과제 중심 수행 수업	학습자에게 과제 제시 및 피드백 과제 제시 – 학습지 등 구글클래스룸(Google classroom)등 활용

〈표-1〉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유형

앞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교육 기관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먼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줌(Zoom)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에 화상 수업을 실시했다. 수업 중 화면 공유를 통해 교수자가 준비한 수업 관련 자료나 학습자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평소 활용하지 않았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업에 참여했지만 수월한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여전히 필요하다. U 대학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화면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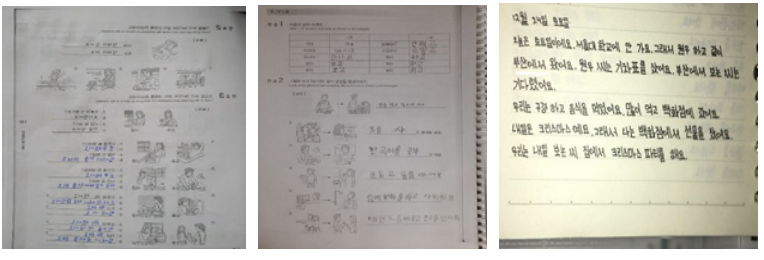
〈그림-1〉 쌍방향 실시간 수업 화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존 K 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와 누리-세종학당 콘텐츠를 보조 자료로 활용했다. 교수자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콘텐츠 선별한 뒤 콘텐츠 링크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학습자들은 콘텐츠를 시청한 후 과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비실시간으로 실시되었다.

〈그림-2〉 〈바른 한국어〉와 누리-세종학당 콘텐츠 수업 화면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제시한 과제를 학습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수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별도의 학습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교수자가 일일이 과제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림-3〉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을 활용한 학습 과제

3.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3.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온라인 한국어 강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U 대학과 K 교육원에서 온라인 한국어 강좌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습자들은 U 대학의 경우 총 29명 그리고 K 교육원의 경우 48명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한국어 강좌에 대한 자료 수집은 U 대학에서는 2020년 9월 20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 되었고 K 교육원에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구글 설문 조사 링크를 통해 배부되었다.

설문 조사의 세부적인 질문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한 점, 힘들었던 점, 온라인 한국어 수업경험 후 느낀 문제점, 온라인 한국어 수업 또는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 및 학습 차이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덧붙여 온라인 한국어 수업방식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수업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호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설문 조사 문항은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러시아어로 번역 후 제공하였다.

3.2. 설문 조사 분석 및 결과

	U대학		K 교육원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바른 한국어〉 유투브(Youtube) 지정 콘텐츠 활용	4명	16%	3	6.3%
〈누리-세종학당〉 유투브(Youtube) 지정 콘텐츠 활용	5명	20%	9	18.8%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줌(Zoom) 활용	16명	64%	48	100%

구글 클래스룸 (Google classroom) 활용	8명	32%	5	10.4%
기타	1명	4%	5	10.4%

〈표-2〉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한국어 온라인 수업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지만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보면 줌(Zoom)을 활용한 수업 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64%와 100%로 가장 높았다. 구글 클래스(Google classroom)를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U 대학 학습자들의 의견도 32% 정도였으나, 대대수의 학습자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수업 전달과 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줌(Zoom)을 활용한 수업은 기존의 면대면 수업과 동일한 내용을 수업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업 운영에서는 교수 설계 능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정보 중에서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독려하는 역할이다.[6]

	U대학		K 교육원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PC 기기	2명	6.9%	2	4.2%
노트북	27명	93.1%	35	72.9%
태블릿PC	1명	3.4%	6	12.5%
스마트폰	22명	75.9%	32	66.7%
기타				

〈표-3〉 온라인 수업 시 사용 기기

6) 이다운, 「비대면 시대 대학 온라인 강의 개발 사례 연구 -교양 글쓰기 교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10호, 2020, 201쪽.

온라인 수업 시 사용 기기에서는 〈표-3〉와 같이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U 대학의 학습자가 22명(75.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면 K 교육원의 35명(72.9%)의 학습자가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디지털 세상과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이자 나아가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조우하는 I-Generation이다. 즉 현재의 학습자는 디지털과 온라인에 충분히 익숙하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와 삶을 공유한다.[7] 이런 상황에서는 교수자에게도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PC,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교육 도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대처 능력, 교육 도구 활용 능력 등이 필요하다.

	U대학		K 교육원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PC, 스마트 기기 재생(소리) 등으로 인한 문제	12명	41.3%	43명	91.7%
교육 자료 공유 관련 문제	0명	0%	3명	6.3%
통신 환경(인터넷 연결과 속도 등) 문제	13명	44.8%	35명	72.9%
기타			7명	16.6%

〈표-4〉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불편함

교수자와 학습자는 PC, 스마트 기기, 다양한 플랫폼 등 활용, 교수자는 수업 설계부터 운영까지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PC, 스마트 기기, 다양한 플랫폼 활용 등은 학습자에게는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처음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한국어 강좌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내용은

7) 한송이·남영옥,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요인 요구 분석」,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제20권 13호, 2020, 1136쪽.

다음과 같다. PC, 스마트 기기 재생(소리)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K 교육원의 43명(91.7%)이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U 대학의 학습자들의 의견이 12명(41.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PC, 스마트기기, 화상 대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데에 있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 경험, 자기효능감, 매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교수자는 면대면 수업과는 차별화된 미디어 리터러시 자질이 요구되는데, 온라인 수업 운영기술(협동학습 촉진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피드백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테크놀로지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8]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도가 낮았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물론 평상시 등교 수업에서 PC, 스마트기기, 화상 대화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많았다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적었을 것이다.

온라인 수업 시 교육 자료 공유와 관련 문제에 대해 K 교육원 학습의 의견이 3명(6.3%)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통신 환경(인터넷 연결과 속도 등) 문제에 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K 교육원 학습자의 경우 35명(72.9%)와 U대학 학습자의 13명(44.8%)이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U대학		K 교육원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온라인 수업은 나의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된다.	14명	48.3%	28명	58.3%
온라인 수업은 나의 한국어 학습의 주도성을 높인다.	8명	27.6%	26명	54.2%
정해진 수업 없이 자유롭게	14명	48.3%	32명	66.7%

8) 한송이·남영옥, 앞의 논문, 1134쪽.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좋다.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강의가 싫다.	4명	13.8%	6명	12.5%
기타	6명	20.7%	18명	37.5%

〈표-5〉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실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려고 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으며 그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라인 수업이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된다는 U 대학 학습자가 14명(48.3%)과 K 교육원 학습자의 28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업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해진 수업 없이 자유롭게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좋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면 U 대학 학습자의 경우 14명(48.3%) 그리고 K 교육원 학습자 32명(66.7%)이 의견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수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다. 한편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강의가 싫다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 수업은 언어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온라인 수업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대학		K 교육원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면대면 교실수업을 선호한다.	15명	53.6%	23명	47.9%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3명	10.7%	2명	4.2%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을 선호한다.	9명	32.1%	21명	43.8%

기타	0명	0%	2명	4.2%

〈표-6〉 선호하는 한국어 수업 방식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편리성을 주지만 학습자들이 어떤 수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선호하는 한국어 수업 방식에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으며 〈표-5〉와 같이 나타났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업은 오프라인 교실 수업(58.3%)과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33.4%) 그리고 온라인 수업(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에 긍정적이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리, 문리적 분리[9],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과 교류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점도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과 연관이 된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목소리의 변화, 눈맞춤, 얼굴 표정 등 교사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정보[10]를 전달받을 수 없는 부분도 온라인 수업보다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연관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온라인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학습자와 다른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피드백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1]

한국어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을 주었는데, 이를 통해

9) Bozkurt, A. From Distance Education to Open and Distance Learning: A Holistic Evaluation of History, Definitions, and Theories. In S. Sisman-Ugur, & G. Kurubacak (Eds.), Handbook of Research on Learning in the Age of Transhumanism. Hershey, PA: IGI Global. 2019. pp. 261.

10) 김현우, 「온라인 한국어 수업과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의 학습자 성취도 비교 연구: 초급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제13호, 2020, 23쪽.

11) 한송이·남영옥, 앞의 논문, 1136쪽.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자율성 그리고 한국어 실력 향상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콘텐츠(동영상)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복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오프라인 교실 수업을 선호하는 의견을 표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편리성과 자율성에 긍정적이만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인터넷 속도나 스마트 기기와 PC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가 많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변화한 U 대학과 K 교육원 한국어 수업 현황에 대해 학습자들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 사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온라인 수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물리적인 분리 등 발생할 것은 물론 학습자와 가상공간에서의 수업은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의의 및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검증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단점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불가를 온라인 수업의 단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온라인 강좌, 이를 위한 학습 자료, 학습전략, 교수법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여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현재 U 대학 또는 K 교육원은 온라인 강좌를 운영 경험이 없었으며 교수자 중 상당수가 온라인 강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한국어 강좌 설계, 학습 자료 개발, 강좌 촬영 및 제작 등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지원할 시스템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은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교수자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지만 개별 교수자가 온라인 수업 전체를 총괄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의 설계, 개발, 운영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에 대한 신속한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교수 설계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매체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업 운영 능력, 수업 평가 및 성찰 능력[12] 함양을 위한 교수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수업은 교실 수업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과 학습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끝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수업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다양한 주제의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발표문에서 확인한 우크라이나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견은 온라인 수업과 혼합 수업을 직접 경험한 후에 소개된 결과가 우크라이나 한국어교육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 설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바란다.

12) 한송이·남영옥, 앞의 논문, 1135쪽.

| 참고 문헌

권영애, 송영은, 「학습만족도 중심의 실시간 원격 화상 교육 개선 방안 연구 - '한국디자인의 역사'와 '한국어' 강의 사례 중심으로 -」,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15-1집, 2017, 93-108쪽.

김현우, 「온라인 한국어 수업과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의 학습자 성취도 비교 연구 : 초급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제13호, 2020, 19-35쪽.

김현주,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제21집, 2020, 1679-1692쪽.

이다운, 「비대면 시대 대학 온라인 강의 개발 사례 연구 -교양 글쓰기 교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제10호, 2020, 195- 221쪽.

이영희,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돈암어문학』 제28집, 2015, 413-437쪽.

정은주, 강수경,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교수실재감 향상을 위한 항목 선정 연구」, 『언어와 문화』 제16집, 2020, 283-312쪽.

정희연, 유지윤,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제21집, 2020, 1305-1308쪽.

조용길, 「가상대학 현황 및 컨텐츠 개발」, 『産業經營硏究』 제27집, 2004, 231-255쪽.

한송이·남영옥,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요인 요구분석」,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13호, 2020, 1129-1149쪽.

Bozkurt, A. From Distance Education to Open and Distance Learning: A Holistic Evaluation of History, Definitions, and Theories. In S. Sisman-Ugur, & G. Kurubacak (Eds.), Handbook of Research on Learning in the Age of Transhumanism.

Hershey, PA: IGI Global. 2019. pp. 252-273.

<Abstract>

Examples of online Korean courses in Ukraine in Eastern Europe

Pak Antonina
(Southern Ukrainian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K. D. Ushinsk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Korean classes in Ukrainian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mine the limitations of online Korean classes, and present tasks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e researcher had no experience in conducting online Korean classes at all, and had to prepare classes without a separate training course to conduct online classes.

Due to the spread of Covid 19, an epidemic that occurred worldwide, in Ukrain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ere attempted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n learners through various trials and errors in online Korean classes that were unpreced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in an unusually conducted online Korean class, we tried to operate Korean language classes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esenting and analyzing the opinions of learners about online Korean classes through the operation of an unusually conducted online Korean class.

Key words: Korean language, Ukrainian Korean learners, online Korean language classes, Real-time interactive class,

Content utilization class, Task-oriented performance class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이주여성의 학부모로서의 역할 확립-

손영은* · 김자혜**

목 차

1. 서론
2. 이주여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2.1. 결혼이주여성의 학부모교육의 필요성
  2.2.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과 관련한 교재 분석
3.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및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안
  3.1. 8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3.2. 이주여성의 학부모 역할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4.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그 의의
5. 결론

〈논문개요〉

본고는 결혼이주여성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인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교재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지금은 수많은 한국어교재가 나오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사용할만한 한국어교재가 충분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향상만이 아닌

*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 가천대학교 한국어학센터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립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함이다. 다문화가정에서 사소하지만 조금은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다름'에 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또래 친구로부터 경험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로부터 다름에 대한 무시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녀의 학교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교육을 자녀의 국어교과서로 한다면 한국어능력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권위도 함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서론

최근 한 뉴스에서는 학교 교육 중심의 정책이 이주민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인 결혼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학교 교육 중심의 정책은 이주민 자녀에게는 그 효용성을 보이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그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며 이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1)]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일정 정도의 듣기와 말하기 실력은 갖춘 사례가 많다.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 이민자, 귀화자 등의 한국어 실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주여성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2)] 그러나 이에 반해 읽기와 쓰기 실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그 때문에 자녀들의 학습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1) 문화일보, 〈'다문화 코리아' 공존 넘어 통합으로〉한국어 교육, 자녀에만 초점… 엄마는 학교통신문도 못읽어 (2016.06.08.)

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한국어 실력에서 말하기기와 듣기의 경우 '보통이다'가 평균 45%, '잘한다'가 평균 28%, '매우 잘한다'가 평균 20%로 말하기와 듣기의 실력은 일정 정도 이상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한국어 실력〉, 2012. 한국통계포탈사이트(http://kosis.kr))

는 문제점이 생긴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자녀의 선행 학습 및 복습 그리고 과제 점검 등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로 인해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주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자괴감을 느끼는 사태로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학부모역할에 대한 고민에 접근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3]과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주여성을 위한 교재 및 어휘구성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4] 또한 학부모

3) 류진아(2011)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첫 번째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면서 경험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학업 적응에 대한 걱정, 자녀교육 지식의 부족에 따른 불안뿐 아니라 준비물 및 과제지도 등과 같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진아(2011)는 예비 학부모가 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재 개발의 기초 연구로서 현재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황 중심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재의 구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주여성들은 학부모 역할 중에서도 학습지원과 생활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조사 내용 중 예비 학부모를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86.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높은 요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남부현・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

4) 공지연・심혜령(2009)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어휘 목록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에 학교와의 1차적 소통의 매개인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기반으로 하여 학부모 역할을 위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여 목록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어휘집 작성을 제안하였다. 이애리(2011)은 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읽기 자료를 개발하였는데 가정통신문과 학교생활안내서를 바탕으로 읽기 자료를 구성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고은미(2009),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독해 자료 구성 방안」, 『국어문학』46, 국어문학회; 김정희(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자녀교육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진(2011), 「학부모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어교재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있다.[5] 학부모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녀와의 관계,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자녀의 심리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등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고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의 학습 선행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교육 실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또한 학부모로서 가정 내에서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여성들도 학교교육에 대한 일정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도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교육내용이 포함되고 있지만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기본 제재로 하여 이주여성이 자녀의

5) 장온정(2010)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관리, 부모역할 역량강화, 다양한 자녀문제 등의 영역에 대한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13회기에 걸쳐 한국 학교 교육체계와 초등학교 교과과정 및 과목 개괄설명, 입학준비사항, 학교 내 관계, 자녀의 학습지도, 일상생활습관지도, 부모자녀 관계향상, 자녀의 정체성확립, 자녀문제 행동진단 및 대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심보경・김정숙(2012)은 여성결혼이민자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교육 주체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기별 한국어 교육과 자녀학습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계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한국어 수업은 상황에 대한 전문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과 접속부사, 의성어, 의태어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독후감쓰기, 현장체험활동보고서 작성, 가족신문 만들기 등 교과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박선옥・김하림・최수현(2010), 「자녀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인문과학연구』 2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노정은・박진욱(2013), 「학부모 역할을 고려한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1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나동숙(2012), 「학령기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학습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연구 -1학년 국어교과의 받아쓰기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학습 선행자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주여성의 한국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교육제재로 선정한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학습의 기초적인 지식이 다양하게 담겨있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선행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자녀교육 뿐 아니라 이주여성 개인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6] 즉 본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함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주여성 개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며, 사회적·심리적 안정감을 느낌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노동자, 결혼이주자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물론 각 집단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이주여성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한 영역으로 구축이 된다면 이주여성들의 요구와 더불어 그들의 한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년간의 한국에서의 생활로 일정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가 가능한, 그리고 초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취학한 학부모가 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에 주 자료는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이며 차시는 30차시, 각 차시별 4시간씩, 6개월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이다. 위의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사나 다문화 지도사가 주 선행자가 진행할 것이며,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도서관, 학교 등에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6)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비롯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한 문화교육 등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우선 제작하는 이유는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의 연결지점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국어교육을 토해 한국어교육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이주여성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현황 및 필요성

2.1. 결혼이주여성의 학부모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의 수가 약 4%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 혼인·이혼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총 혼인건수 302,800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1,300건 중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의 혼인은 14,700건으로 나타났다.[7]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결과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에서 전체 305,446명 중 남성이 51,655명, 여성이 253,79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회통합뿐 아니라 자녀양육지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보건복지부 주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 주관 하에 진행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이 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과제가 있는데, 가족단위 한국어 정보화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 책자 발간 및 보급,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자원봉사 통역 도우미 운영 등이 있다(장온정, 2010). 또한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1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총 인용 연인원은 889,394명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이 54.7%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 보고서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7) 한국통계포털사이트(http://kosis.kr)

야 함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부모교육서비스의 세부실적으로 부모 성장영역, 영양 및 건강관리 영역, 부모-자녀 관계증진 영역, 학교・가정 생활지도 영역, 임신・출산 영역 순으로 많이 제공되었다.

2015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만6세 이하 아동이 117,877명, 만 7~12세 아동이 56,108명, 만 13~15세 아동이 18,82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48,297명,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2,525명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학부모 역할을 짊어져야 할 이주여성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모든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맞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변화 및 발전시킨다. 그 과정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르며 이에 잘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가족 안에서의 관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국에서 이러한 발달단계를 거쳐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 부담감은 정주자들보다도 더 크게 체감할 것이다. 각각의 문화마다 어머니가 가진 역할에 대한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자녀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를 매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할 및 관계를 형성하여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은아(2013)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 노릇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상적인' 혹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어머니 노릇을 재조직하며 모성의 의미를 재구성해가는 주체라고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심층면접 진행해온 바 자녀의 취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국 엄마들이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지 어떻게 교과서 내용 같은거 다 알잖아요. 그런

데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아이한테 다 물어봐야죠. 악기, 준비물 이름 같은 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문방구가서 물어봐도 되고 솔직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려운 거 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뭐 모르는 거는. (중략) 다른 엄마들 한국말 잘 못하는 엄마들보면 알림장 같은 거 보면 모르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공지연 · 심혜령(2009), 중국에서 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엄마가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애도 어휘력이 떨어지는게 느껴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엄마 저거 무슨 뜻이야' 물어봐요. (중략) 수업진도에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언어 이해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항상 걱정이 돼요." (류진아(2011), 사례F)

"숙제 봐 주는 것 어려워요. 학교 책, 우리가 배우는 한국어와 달라요. 엄마가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하기 힘들잖아요. 대화에 쓰는 말, 공부 단어 달라요." (남부현 · 김옥남(2012))

"(자녀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엄마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공부 많이 못 시켜주니까. 사실은 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첫째도. [그런 얘길 해요?] 둘이 같이 놀면서 '엄마 베트남 사람이니까 우리 공부 알아서 해야 돼' 동생한테 그렇게 말해요. '엄마 베트남 사람이니까 공부 못 가르치니까 우리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이은아(2013), 사례9)

"숙제는 아빠가 도와줘요.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도와주지 못해서 속상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신미진(2011),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학교

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부터 자신이 아이를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의기소침하기도 했다.

한편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 "우리 딸 공부시켜서 아이들 사이에서 '누가 공부 잘해' 하면 우리 딸 이름이 나오면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것 같아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문제집을 사와서 아이에게 학교 공부과정과 맞추어 시키니까 공부 잘 해요." (남부현 · 김옥남(2012))

>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교육 필요해요. 음 특히 국어하고 사회하고는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니 유치원에 갔을 때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심보경 · 김정숙(2012))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이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자녀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또한 무방할 것이다. 즉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과 실제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과 관련한 교재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문제의식에 따라 점점 교재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는 적다. 기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재는 의사소통 기능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부모 역할을 다루고 있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공지연・심혜령(2009)은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 농림부에서 출판한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8] 분석한 결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능 중심, 상황 중심에 따른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어휘, 문법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부분은 부족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재가 한국어 초급 교육이 끝난 뒤에 교육되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이 초급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어휘, 문법 표현의 난이도가 높아 초급 학습자가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에서 각 단원의 기능에 맞는 문법과 어휘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시된 어휘의 양과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구성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기는 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교재 중에서 학부모 역할을 고려한 것은 초급뿐이었는데 제시된 어휘의 양과 표현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어휘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제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서혁(2007)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을 분석하고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학습자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연습활동에 대한 예시 답안을 단원 내에 또는 부록의 형태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자음, 모음의 표기 순서를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셋째, 좀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법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9]

---

8) 해당 교재는 다음과 같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200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2007; 『우리 엄마의 한국어』, 2007.

9) 이 외에도 노정은・박진욱(2013), 나동숙(2012)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는 자녀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움을 들었고, 문법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교재로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제 학부모로서 경험하게 될 상황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어휘를 학습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

그 외에도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는 학부모 역할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된 것으로 각 범주별로 결혼이주여성이 알아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실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4~7과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교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내용지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배경지식 확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학습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배우는 내용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선정하거나 교육 전문가가 알아야 할 내용을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워야 할 내용으로 선정할 경우 학교생활 및 학제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더라도 내용의 제시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분하여 학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의 수준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읽기 뿐 아니라 네 가지 언어기능을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노정은 • 박진욱, 2013).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적절한 내용들을 선별해 교육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이주여성의 한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교육 필요해요. 음 특히 국어하고 사회하고는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니 유치원에 갔을 때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심보경 · 김정숙(2012))

이와 같이 학부모 역할 중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둔다면 초등학교 교과서 중 국어와 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다는 아쉬움을 설명하였다.

면 새롭게 교재를 만들지 않고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어 제시하는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하여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및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안

3.1. 8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8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각 학년에 따라 4개의 교과서[10]가 지급된다. 이에 교육 자료 즉,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학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자료
1학년 1학기 국어	• 글을 읽고 쓰는 자세 학습 • 기본글자 만들기 •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와 자기 기분을 나타내는 법 •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를 읽기 • 문장구조 익히기 • 문장부호와 띄어쓰기	1. 즐거운 마음으로 2. 재미있는 낱자 3. 글자를 만들어요 4. 기분을 말해요 5. 느낌이 솔솔 6. 문장을 바르게 7. 알맞게 띄어 읽어요 8. 겪은 일을 써요	몸으로 자음자 모양 만들기 / 'ㄱ' 그림 / 기차 ㄱㄴㄷ / 재미있는 내 얼굴 / 나무노래 / 개구리 / 그림을 보고 문장 말하기 / 소 세 마리 / 바람이 좋아요 / 뒤뚱뒤뚱 아기오리 / 아기의 대답 / 아침 / 비눗방울 / 괜찮아 / 앗! 따끔!
1학년 2 학 기	• 시 감상하기 • 글자의 짜임과 정확한	1. 느낌을 나누어요 2. 바르고 정확하게	매미 / 그만뒀다 / 구름빵 / 책이 꼼지락꼼

10) 초등학교 국어는 1학년 1,2학기 국어 가~나, 2학년 1,2학기 국어가~나, 3학년 1,2학기 국어 가~나, 4학년 1,2학기 국어 가~나, 5학년 1,2학기 가~나, 6학년 1,2학기 가~나로 구성되어 총 16권이다.

국어	낱말 익히기 •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하기 • 띄어 읽기 익히기 • 일기쓰기 • 이야기 감상하기 • 상대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기 • 음운변동 익히기 •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며 읽기	3. 알맞은 인사말 4. 뜻을 살려 읽어요 5. 인상 깊었던 일 6. 이야기꽃을 피워요 7. 다정하게 지내요 8. 생각하며 읽어요 9. 상상의 날개를 펴고	지락 / 두껍아 두껍아 / 안녕 / 또박또박 반갑게 인사해요 / 우리 반 또또 상자 / 슬퍼하는 나무 / 일기 / 달 / 도토리 / 구멍 난 그릇 / 개미의 여행 /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 무지개 물고기 / 표지판이 말을 해요 / 표지판 / 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 / 재주꾼 오 형제 / 황소 아저씨
2학년 1학기 국어	• 재미있는 말의 느낌 살려서 시 읽기 • 경험담 읽고 내 경험 말하기 • 반의어 낱말 • 고운 말 쓰기 • 글의 중요한 내용 파악하고 설명하는 글쓰기 •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고 쓰기 • 글쓴이 생각 찾기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쓰기 • 알맞은 문장부호와 낱말 • 일기와 시 쓰기 • 이어주는 말과 차례 • 말놀이	1. 아, 재미있구나! 2. 경험을 나누어요 3. 이렇게 해 보아요 4. 생각을 전해요 5. 무엇이 중요할까 6. 알기 쉽게 차례대로 7. 이렇게 생각해요 8. 보고 또 보고 9. 느낌을 나타내어요 10. 이야기 세상 속으로 11. 재미가 새록새록	꼬부랑할머니 / 까치 / 영치기영차 / 은방울꽃 / 수탉과 돼지 / 으악, 도깨비다! / 누나의 생일 / 개미 이야기 / 동물들은 어떻게 잘까요 / 재미있는 동물 이름 / 수민이와 곰 인형 / 까만 아기 양 / 할아버지의 약속 / 대보기 / 딱지 따먹기 / 오소리네 집 꽃밭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바쁜 내 콧구멍 / 여름 냇가
2 학 년 2 학 기 국어	• 인물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여 자신의 경험 말하기 • 상대의 말과 표정에 알맞게 반응하며 대화하기 •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기	1. 생각을 나타내어요 2. 즐겁게 대화해요 3. 마음을 담아서 4. 어떻게 정리할까요? 5. 이야기를 꾸며요 6. 알고 싶어요 7. 재미있는 말	글자 따 오기 놀이 /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 / 송편 빚는 밤 / 떡볶이 / 숨바꼭질하며 / 소중한 이 / 설빔 / 이빨고래와 수염고래 / 백두산 장생초 / 받아

	• 낱말의 관계 파악하기 •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이야기 표현하기 • 자신이 아는 대상을 소개하기 • 재미있는 말을 사용해 표현하기 • 알맞은 까닭을 들어 부탁하는 글쓰기 •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인형극 하기	8. 의견이 있어요 9. 인형극 공연은 재미있어요	쓰기 시험 / 내 동생은 못 말려 / 귀뚜라미 / 잠자는 사자 / 묻고 답하는 노래 / 박박 바가지 / 가을 아침 /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 의좋은 형제 / 황소가 된 돌쇠 / 작은 암탉
3학년 1학기 국어	• 시 암송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 중요한 내용 생각하고 적기 • 상황에 맞는 높임말 • 원인과 결과로 간추리기 • 알맞은 낱말 사용하기 • 겪은 일과 연관지어 읽기 •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 말투와 표정, 몸짓에 주의하여 파악하기 • 겪은 일을 떠올리며 독서감상문 작성하기	1. 감동을 나누어요 2. 문단의 짜임 3.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4. 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해요 5. 내용은 간추려요 6. 알맞게 소개해요 7. 아는 것을 떠올리며 8. 마음을 전해요 9. 상황에 어울리게 10. 생생한 느낌 그대로	• 미술시간 / 봄 오는 소리 / 산 샘물 / 바람과 빈 병 / 퐁퐁이와 툴툴이 /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 / 로봇 / 꼴찌라도 괜찮아 / 토끼의 재판 / 콩이 된장으로 변했어요 / 약과, 강정, 엿, 정과, 다식 / 살아 움직이는 식물 / 내 동생 싸게 팔아요 / 가을걷이 / 조선시대의 한글편지 / 백영숙을 보내며 / 검정고무신 / 머털도사 / 장금이의 꿈 / 나무 / 화전 / 먹을 수 있는 꽃 요리 / 어흥, 호랑이를 만나 볼래? / 빨강 두건 아씨께 / 도토리나무 / 발레 하는 할아버지
3학년 2학기 국어	• 재미있는 장면과 표현 찾고 느낀 점 말하기 • 알맞은 띄어쓰기를 하기	1. 재미가 솔솔 2. 띄어쓰기를 잘해요 3.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꼬물락꼬물락 / 발가락 / 수박씨 / 돌매미 / 팝콘 / 비눗방울 / 방

	• 일의 순서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기 • 들으면서 적어야 할 것을 적기 • 낱말의 짜임을 이해하고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쓰기 • 글쓴이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 읽기 • 시나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나누기 • 글을 읽기 전에 미리 할 일을 알아보고 듣거나 이야기를 실감나게 말하기 • 만화나 영화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4. 들으면서 적어요 5. 낱말의 짜임 6. 글에 담긴 마음 7. 감동을 느껴보아요 8. 실감 나게 말해요 9. 마음을 읽어요	귀쟁이 며느리 /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 냄비가 달린다 / 말하는 종이컵 인형 만들어 놀이하기 / 고무줄 마술 / 종이 봉지 공주 / 해치와 괴물 사 형제 /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 훈맹정음 / 닉 부이치치 / 행복한 사람 / 석장승 / 뿌듯함 / 딱 하루만 더 아프고 싶다 / 형과 목욕탕 다녀오기 / 동주의 개 / 병태와 콩 이야기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황제펭귄 /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 「쇠를 먹는 불가사리」 표지 / 살랑살랑 꼬리로 말해요 / 삼계탕에 담긴 행복 / 우유 한 병 / 똥딴지 / 배낭 속 우산 / 세뱃돈 소동 / 도깨비 방망이 / 삼 년 고개
4학년 1학기 국어	·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 확인 · 회의의 방법과 절차 확인 · 상황에 맞는 알맞은 문장 확인 ·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 확인 · 이야기와 시를 읽고 독서토론 ·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법 ·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드러내기	1. 이야기 속으로 2. 회의를 해요 3. 문장을 알맞게 4. 짜임새 있는 문단 5. 서로 다른 느낌 6. 소중한 정보 7. 의견과 근거 8. 국어사전과 함께 9. 생각을 나누어요. 10. 감동을 표현해요.	고양이야 미안해 / 독안에 든 빵 작전 / 행복한 비밀하나 / 집안 치우기 / 우리는 한편이야 / 여우와 포도 / 가끔씩 비오는 날 / 동그라미 표 쌓기 / 어린이들을 텔레비전으로부터 해방시키자 / 은 세 근에 담긴 이야기 / 부자나라의 부자 아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 국어사전 활용법 ·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생각나누기 · 시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공유하기		아이 / 우리힘으로 해결한 공유의 비극 / 참새네 칠판 / 작은 것 / 저녁 때 / 나도 씨앗 / 바다 / 섬집 아기 / 멀리 가는 향기 / 웃음 총
4학년2학기 국어	·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 정리 · 제안하는 글쓰기 · 대화 예절 알아보기 · 글의 중심생각 파악하기 · 컴퓨터를 활용하여 글쓰기 · 표준어와 방언 구별하기 ·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기 · 발표할 때 태도 확인 · 시와 현실의 차이 인지	1, 이야기를 간추려요 2. 제안하고 실천하고 3. 대화를 나누어요 4. 글 속의 생각을 찾아 5. 컴퓨터로 글을 써요 6. 우리말 여행을 떠나요 7. 적절한 의견을 찾아요. 8. 정보를 나누어요 9. 시와 이야기에 담긴 세상	울보 바보 이야기 / 은혜 갚은 고목 / 신기한 사과 나무/ 웃음이 필요한 까닭 / 플러그 휴식 / 진짜 멋진 세상을 위하여/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친구/ 허수아비/ 우리 엄마/ 비가 오면/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엿장수가 산다 / 저작권 침해/ 우주 정거장에서 잠자기와 먹고 마시는 방법/ 거미의 장난. 거인이 사는 나라. 만년 쌰스/ 글자놀이/ 세종대왕, 초정리서 요양, 행궁 짓고 한글 창제 몰두했다/ 눈사람
5학년1학년 국어	·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 확인 · 토의의 절차와 방법 확인 · 낱말의 다양한 뜻 확인 · 시를 통한 작품 감상 · 설명문과 띄어쓰기 · 다양한 담화 상황 확인 · 낱말의 뜻을 통해 글의 내용 파악 · 문장성분의 호응 관계	1. 인물의 말과 행동 2. 토의의 절차와 방법 3. 상황에 알맞은 낱말 4. 작품에 대한 생각 5. 대상의 특성을 살려 6. 말의 영향 7. 낱말의 뜻 8. 문장의 구조 9. 추론하며 읽기 10. 글쓰기의 과정	종우 화분 / 함께 쓰는 우산 / 옹고집전 / 동생만들기 대작전 / 일곱 발, 열아홉 발 / 체격 좋아진 청소년 / 초등학생의 체격 변화 / 우정에 대하여 / 걷는 법 / 몽돌 / 모서리 / 곤충 친구들에게 / 답장 / 뒷걸음질 / 분수

	확인 · 추론하며 글을 읽기 · 글쓰기 과정 경험하기 · 글의 종류에 따른 글 읽기 방법 · 문학작품의 종류별 감상 방법	11. 여러 가지 독서 방법 12.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겨레의 노래, 민요 / 신의 손을 만든 말 / 아이들에게 /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 니 꿈은 뭐이가? / 역경을 견뎌 낸 나무 /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 / 아름다운 이별 / 해 기우는 서쪽 창 / 먹기 싫은 것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고 / 스마트폰이 눈 질환 부른다 / 숭례문 / 문화재 보호 / 녹둔도 / 철새 / 딱정벌레 /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 빨강 연필
5 학 년 2 학 기 2국어	· 작품을 통해 감동 받은 이유 · 기행문 쓸 때 견문과 감상 구별 · 토론의 주제 정하기 · 글의 짜임과 요약 · 매체의 종류와 특성 알기 · 낱말의 발음 표기 · 소설 속 인물의 삶 평가 · 언어예절 배우기 · 상황에 따라 다른 읽기 방법 · 사건의 전개 과정 · 시와 이야기를 다른 이의 관점을 변경	1. 문학이 주는 감동 2. 견문과 감상을 나타내어요 3. 토론을 해요 4. 글의 짜임 5. 매체로 의사소통해요 6. 소중한 우리말 7. 인물의 삶 속으로 8. 언어 예절과 됨됨이 9. 다양하게 읽어요 10. 글을 요약해요 11. 문학 작품을 새롭게	마당을 나온 암탉/ 빨강 연필/ 책이 노니는 집/ 염소 탓/ 선물/ 송아지가 뚫어 준 울타리 구멍/ 정든 고향, 충주를 가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도 될까/ 감기와 독감/ 감성로봇에게는 네 가지가 있다/ 노인은 늘고 아이는 줄고/ 닥나무 선물 , 한지/ 지구가 둥근 증거/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노력만큼 크는 키/ 톡톡 터치만 해도 기부 태산 쌓여요/ 경순왕과 마의

			태자의 대화
6학년 1학기 국어	· 비유 표현 확인 · 글쓴이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 비교 분석 · 감정을 표현하는 글 작성 · 면담의 절차와 형식 확인 · 광고 글의 특성 확인 및 작성 · 낱말의 뿌리 확인 · 이야기의 구성 확인 및 뒷내용 구성 · 주제에 맞는 책 찾기 · 논설문 작성하기 · 글쓰기 및 퇴고 방법 확인 · 뉴스의 특성 확인 · 문학의 갈래 확인 및 작품 창작	1. 비유적 표현 2. 다양한 관점 3. 마음을 표현하는 글 4. 면담하기 5. 광고 읽기 6. 낱말의 분류 7. 이야기의 구성 8. 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 9. 주장과 근거 10. 쓴 글을 돌아보며 11. 뉴스의 관점 12. 문학의 갈래	길 / 목련그늘 아래서는 / 풀잎과 바람 / 어부지리 / 우주호텔 / 혀 밑에 도끼 / 세 여인의 고된 땀방울 / 콜럼버스 항해의 진실 / 부자가 행복하다 / 원숭이 꽃신 / 온양이 / 살구가 익을 무렵 / 다시 찾은 우리 / '00데이'는 우정을 표현하는 기회 / 국내 초콜릿 생산량 / 꿈의 북극 항로, 개척의 닻 올린다. / 북극 항로 개척, 좋은 일만은 아니야 / 물새알 산새알 / 마음이 담긴 그릇 / 행복한 왕자
6 학 년 2 학 기 국어	·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관련지어 말하기 ·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 적절한 근거 찾기 · 관용표현 익히기 · 이야기 바꾸기 · 연설문 만들기 ·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 비교하기 · 정보를 활용한 기사문 쓰기 · 이어주는 말의 쓰임 확인 · 뉴스 보도하기 · 희곡 쓰기	1. 인물의 삶을 찾아서 2. 자료를 활용한 발표 3. 적절한 근거 4. 효과적인 관용표현 5. 이야기 바꾸어 쓰기 6. 타당한 주장 7. 다양한 생각 8. 정보를 활용한 기사문 9. 생각과 논리 10. 뉴스와 생활 11. 문학의 향기	행복한 일/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판소리/ 내 인생의 목적지/ 거리에 버려지는 동물/ 방구 아저씨/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조그마한 기쁨, 나의 소원/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보기 / 우주 개발의 걸림돌, 우주 쓰레기/ 난중일기. 마지막 숨바꼭질/ 글쓰기 숙제/ 세상을 밝힌 꿈/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 웃는 기와./ 자전거 찾기 / 백번째 손님/ 크리스

			마스 캐럴

〈표-1〉 초등학교 1학기 국어 내용

각 학년 별 교과서를 학기별로 구별하여 구성한 위의 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자료로 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교육목표는 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은 각 교과서의 교육 순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교육 자료는 각 교과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작품들을 모두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는 가장 기본인 자모음과 한국어, 한국문학의 초급 과정을, 3~4학년에서는 중급 과정을,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저학년 과정 중 1학년 교과내용의 특징적인 교육은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세, 그리고 문학을 감상하는 기초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또한 2학년 과정에는 글의 짜임에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감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 등을 배운다. 3학년 과정에서는 이것에서 더욱 발전하여 글의 중요한 내용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작품의 인물을 이해하며 감상하고, 비언어적인 내용을 이용하여 느낌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4학년 과정은 글의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문장과 문단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작품을 통해 인물과 사건, 배경을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5학년 과정에서는 문장성분의 호응관계를 익힐 수 있게 하며 적절한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6학년에서는 타인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광고, 논설문,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 뿐 아니라 여러 문학의 갈래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3.2. 이주여성의 학부모 역할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차시	단원	교육목표	내용	기능
1	1-1 가 2. 재미있는 낱자	·자음과 모음을 습득할 수 있다.	·자모 교육 및 낱자 만들기	읽기: 지문 읽기 듣기: ㄱㄴㄷ 노래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자음 모음 읽기
2	1-1 가 3. 글자를 만들어요	·자음과 모음을 습득할 수 있다.	·자모 교육 및 글자 만들기	읽기: 지문 읽기 듣기: '나무노래'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글자 읽기
3	1-1 가 1.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할 때의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다. ·가족 어휘를 익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학습할 때의 바른 자세를 익혀본다. ·가족 및 동물 어휘를 익힌다. ·이/가, 을/를, 봅시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가족 어휘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어휘 듣기 쓰기: 가족 및 동물 어휘 쓰기 말하기: 가족 소개하기
4	1-1 가 4. 기분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익히고 자신의 기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배우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한다. 표정을 활용한 기분 어휘를 익힌다. ·입니다, 싶어요, 좋아요/싫어요, -면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지문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어휘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자기 소개하기, 기분 말하기
5	1-1 나 6. 문장을 바르게	·주술관계를 익힐 수 있다. ·흉내내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그림을 보고 주어, 목적어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흉내 내는 말을 익힌다. ·습니다, -(으)ㄴ가요?/ -나요?/인가요?, -지만, -고 문법을	읽기: 문제, 지문 읽기 듣기: 뒤뚱뒤뚱 아기오리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문장 완성해서 말하기, 흉내 내는 말 말하기

			익힌다.	
6	1-1 나 7. 알맞게 띄어 읽어요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를 익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를 익힌다. ·-에, -았/었/였-, -을 거에요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지문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바람이 좋아요〉 읽고 말하기
7	1-1 나 5. 느낌이 솔솔	·반복되는 말을 익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반복되는 말을 익혀 시를 읽는다. ·-의, 이에요/아니에요, 안, 못, 아서/어서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반복되는 말을 듣고 느낌 나누기
8	1-1 나 8. 겪은 일을 써요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고 겪은 일을 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본다. ·겪은 일을 써본다. ·-을 때, 무슨, 이나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지문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어제 있었던 일 말하기
9	1-2 가 2. 바르고 정확하게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글자를 올바르게 써본다. ·-만, -도, 까지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지문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시장에서 본 것 말하기
10	1-2 가 1. 느낌을 나누어요 3. 알맞은 인사	·작품 감상 후 느낌을 말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한다.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한다. ·-에서(장소), -으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구름빵 시청, 안녕 듣기

	말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로(위치), 동안 문법을 익힌다.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감상 말하기, 인사말하기
11	1-2 가 4. 뜻을 살려 읽어요 5. 인상 깊었던 일	·띄어쓰기를 할 수 있고 꾸며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띄어쓰기를 배운다. ·일기를 써본다. ·-은/는, -으니까, 십시오/으십시오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지문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슬퍼하는 나무 알맞게 띄어 발표하기
12	1-2 나 6. 이야기꽃을 피워요 7. 다정하게 지내요	·시나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 이야기를 해 본다. ·-같이, -지 못하다, -와/과, 아요/어요/여요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세종대왕, 무지개 물고기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
13	1-2 나 8. 생각하며 읽어요 9.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음운법칙을 익히고 인물의 행동을 상상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음운법칙을 이해하고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표현해 본다. ·-지요?, -으세요, 부터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재주꾼 오 형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인물을 상상한 내용 발표
14	2-1 가 1. 아, 재미있구나!	·반복되는 말을 사용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반복되는 말을 익히고 시를 감상한다. ·-에 대하여, -(으)ㄹ 때, -(으)ㄴ 척하다, -게 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 작품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시 낭송하기
15	2-1 가	·경험담을 말할 수	·비슷한 경험을 생	읽기: 수록 작품 읽기

	2. 경험을 나누어요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각하고 내 경험을 말해본다. ·-은 적이 있다, -지 않다, -(으)ㄹ 번하다 문법을 익힌다.	듣기: 교사가 읽는 작품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경험담 말하기
16	2-1 가 3. 이렇게 해 보아요	·반의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반의어 익히고 말놀이를 한다. ·-으며, -(으)ㄹ까요?, -으면 -을수록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 작품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작품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말놀이 하기
17	2-1 가 4. 생각을 전해요	·바른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바른말로 내 생각을 표현한다. ·-에 대하여, -기 위해서, 는데/(으)ㄴ데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윤정이와 병언이 이야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자녀 칭찬하는 말하기
18	2-1 가 5. 무엇이 중요할까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 때문에, -(으)ㄴ데/-는데/인데, 중에서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주제에 대해 설명하기
19	2-1 가 6. 알기 쉽게 차례대로	·자기가 겪은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일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한다. ·(으)러-가다/오다, -은 지, -고 나서 문법을 익힌다.	읽기: 문제 및 지문 읽기 듣기: 흥부와 놀부, 까만 아기 양, 수민이와 곰인형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143쪽 겪은 일 차례대로 말하기
20	2-1 나 7. 이렇게 생각	·알맞은 이유를 넣어 자신의 생각을	·글의 의도를 찾고 알맞은 까닭을 넣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해요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어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한다. ·아/어 버리다, (으)면 좋겠다, -은 적이 있다/없다-은 적이 있다/없다, -거나 문법을 익힌다.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자기 생각이 잘 드러나게 발표하기
21	2-1 나 8. 보고 또 보고	·알맞은 문장부호와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문장부호를 익힌다. ·-(으)ㄹ 것만 같다, -겠-, -아/어 주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작성한 편지 발표하기
22	2-1 나 9. 느낌을 나타내어요	·기억에 남는 일을 일기로 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일을 써본다. ·-자마자, -거나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작성한 일기 발표하기
23	2-1 나 10. 이야기 세상 속으로	·이어주는 말과 차례에 주의하여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이어 주는 말을 익히고 차례와 흐름을 파악한다. ·-만큼, -다가, -는 대로,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에 맞게 말하기
24	2-1 나 11. 재미가 새록새록	·말놀이를 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말놀이를 한다. ·-(으)면서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말놀이 하기
25	2-2 가	·자신의 경험과 비	·인물의 경험과 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1. 생각을 나타내어요 2. 즐겁게 대화해요	교하여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신의 경험을 비교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를 한다. ·-는지, -보다(비교), -(으)ㄹ 줄 알다 문법을 익힌다.	듣기: 주영이와 민석이 대화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화하기
26	2-2 가 3. 마음을 담아서 5. 이야기를 꾸며요	·글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을 파악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실감나게 읽어보고 차례에 맞게 이야기를 표현한다. ·위하여, 마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개미와 베짱이 동영상 시청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이야기를 꾸며 말하기
27	2-2 가 4. 어떻게 정리할까요?	·낱말의 관계를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처럼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토박이말을 사용하여 대화하기
28	2-2 나 6. 알고 싶어요 7. 재미있는 말	·대상을 소개할 수 있고 재미있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재미있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해 본다. ·-았을/없을 때, 말이다, -테니(까)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소개하는 방송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재미있는 말을 사용하여 말하기
29	2-2 나 8. 의견이 있어요 9. 인형극 공연은 재미있어요	·까닭을 들어 부탁하는 말을 쓸 수 있고 인형극 공연을 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부탁하는 글을 써보고 인형극을 한다. ·(으) 있다/없다, 거든요, (으)려고 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인형극 하기

30	3-1 가 1. 감동을 나누어요 2. 문단의 짜임	·느낌을 살려 시를 읽을 수 있으며 중심문장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을 파악하고 시를 감상한다. ·하지만, -기도 하다, -아/어 가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시 낭송하기
31	3-1 가 3.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4.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해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높임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높임말을 배운다. ·-았/었던 것 같다, -도록, 덕분에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선생님의 말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높임말 사용하여 말하기
32	3-1 가,나 5. 내용을 간추려요 6. 알맞게 소개해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알맞은 단어를 사용해 소개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소개하는 글을 쓴다. ·-번하다, -(으)ㄹ 리가 없다, -어 버리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사이좋은 친구'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토끼의 재판 역할극
33	3-1 나 7. 아는 것을 떠올리며 8. 마음을 전해요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이해하고 소리와 글자가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이해한다.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을 배운다. ·-더니, -기도 하다, -기로 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민주의 연극'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마음 표현하기
34	3-1 나 9. 상황에 어울리게 10, 생생한 느낌 그대로	·말투, 표정, 몸짓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인물의 말투, 표정, 몸짓을 이해한다.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는다. ·-다고 하다, -잖, -기 시작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검정고무신 시청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감상문 발표하기

35	3-2 가 2. 띄어쓰기를 잘해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띄어쓰기를 바르게 사용하여 부탁하는 글을 쓴다. ·-느라(고), -더라도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이야기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고쳐야 할 점 말하기
36	3-2 가 1. 재미가 솔솔 3.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작품을 감상하고 일의 순서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시나 이야기를 감상한 느낀 점을 나누고 이야기를 간추려본다. ·(으)므로, 에 따라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방귀쟁이 며느리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작품을 읽고 느낀 점 말하기
37	3-2 가 4. 들으면서 적어요 5. 낱말의 짜임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고 낱말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적어보고 낱말의 짜임을 갖추어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써본다. ·-아/어야만 하다, -ㄹ 만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검정소와 누렁소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설명하는 글 발표하기
38	3-2 나 6. 글에 담긴 마음 7. 감동을 느껴 보아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느낀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글을 읽어보고 감동적인 부분을 나눈다. ·-아/어 보니(까), (이)야말로, -던데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글을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말하기
39	3-2 나 8. 실남 나게 말해요 9. 마음을 읽어요	·듣거나 본 이야기를 실감나게 말할 수 있고 만화나 영화 속 인물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	·만화나 영화 속 인물의 마음을 파악해보고 실감나게 말해본다. ·다니까, -더니, -는데도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삼계탕에 담긴 행복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본 이야기를 실감나게 말하기

		힐 수 있다.		

〈표-2〉 이주여성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차년도

이주여성의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차년도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하여 1학년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2차년도에 비해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구성하게 된다. 1학년 과정은 1차년도 전체 과정 39차 중 13차로 약 1/3을 차지하게 된다. 1학년 과정에는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 뿐 아니라 한국어로서의 기초 지식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성하였다.

차시	단원	교육목표	내용	기능
1	4학년 1학기 1. 이야기 속으로 2. 회의를 해요	·소설의 3대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회의의 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소설의 3대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 이해한다. ·회의의 방법과 절차를 배운다. ·N에 불과하다, -기에는, -(으)ㄴ/는/(으)ㄹ듯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회의록 작성 말하기: 〈독 안에 든 빵 작전〉으로 역할극하기, 회의하기
2	4학년 1학기 3. 문장을 알맞게 4. 짜임새 있는 문단	·상황에 따른 문장 사용을 알 수 있다. ·중심문장과 근거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 명령문의 구성 확인한다. ·중심문장과 근거의 특징 확인한다. ·A-다는 것은, 은/는 -다는 것이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하나의 문장을 다양한 상황으로 작성하기, 중심문장과 근거 작성하기 말하기: 작성된 문장 발표하기
3	4학년 1학기 5. 서로 다른 느낌 6. 소중한 정보	·독서토론의 정의와 방법을 알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	·소설을 읽고 독서토론 한다. ·SNS를 활용한 정보공유 방법을 배운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뉴스시청하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독서토론하기

		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다면서, -하더니, -기는 문법을 익힌다.	
4	4학년 1학기 7. 의견과 근거 8. 국어사전과 함께	·주장에 맞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주장과 근거의 연결고리 확인한다. ·국어사전 활용방법 익힌다. ·-(으)ㄹ지라도, -기보다는, -다가는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하나의 단어를 설정하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말하기: 국어사전에서 단어 빨리 찾아서 발표하기
5	4학년 1학기 9. 생각을 나누어요. 10. 감동을 표현해요.	·다양한 매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감상한 후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매체의 다양성 확인 및 정보 공유한다. ·문학작품 감상 후 자신의 감상문 작성한다. ·-다니, -았었/ 었었, 뿐이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시 속에 상황을 글로 쓰기 말하기: 영상매체를 보고 감상문 발표하기
6	4학년 2학기 1. 이야기를 간추려요. 2. 제안하고 실천하고	·사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소설을 사건 중심으로 줄거리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 불편한 일을 바꾸기 위해 제안하는 글을 작성한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수록된 동영상 보며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제안하는 글 써보기 말하기: 제안하는 글을 발표하기
7	4학년 2학기 3. 대화를 나누어요. 4. 글 속의 생각을 찾아	·대화할 때 예의를 확인할 수 있다. ·글 속에서 낱말을 통해 중심생각을 찾아본다. ·한국어 문법을 익	·대화할 때 필요한 예의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낱말을 가지고 중심생각을 유추해 본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대화하는 내용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말하기: 예의를 지켜 대

		힐 수 있다.		화하기
8	4학년 2학기 5. 컴퓨터로 글을 써요 6. 우리말 여행을 떠나요	·컴퓨터 사용법을 익힌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한다.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를 살펴보고 방언의 뜻을 확인한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방언대화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답 쓰기, 컴퓨터로 글을 작성하기 말하기: 방언만으로 대화해보기
9	4학년 2학기 7. 적절한 의견을 찾아요. 8. 정보를 나누어요.	·글쓴이의 의견에 관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발표자와 청중자의 올바른 자세를 함양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주장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 ·발표할 때와 들을 때의 자세를 익혀본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발표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답 쓰기 말하기: 논리적인 발표하기
10	4학년 2학기 9. 시와 이야기에 담긴 세상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삶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소설과 시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삶을 조망해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답 쓰기 말하기: 소설 속 당시 삶의 모습을 발표해보자.
11	5학년 1학기 1. 인물의 말과 행동 2. 토의의 절차와 방법	·소설 속 인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토의의 정의와 특징을 배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소설 속 인물의 생각 확인한다. ·토의의 절차와 방법 확인한다. ·-데다가, -더라도, -다 보니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답 쓰기, 토의 글쓰기 말하기: 소설 속 인물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발표하기, 토의하기
12	5학년 1학기 3. 상황에 알맞	·유의어, 다의어 등의 단어를 배울 수	·낱말의 다양한 뜻 확인한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사듣

	은 낱말 4. 작품에 대한 생각	있다.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시를 통한 작품 감상한다. ·-더라도, -다는 인상을 주다 문법을 익힌다.	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낱말의 특징을 찾아서 글쓰기 말하기: 자신의 좋아하는 시 발표하기
13	5학년 1학기 5. 대상의 특성을 살려 6. 말의 영향	·설명문의 정의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담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설명문을 작성한다. ·다양한 담화 상황 확인한다. ·을/를 통해서, -음으로써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설명문 작성하기. 말하기: 비언어적인 표현을 익혀서 담화 상황에 역할극 하기.
14	5학년 1학기 7. 낱말의 뜻 8. 문장의 구조	·단어의 뜻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문장성분의 호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낱말의 뜻을 통해 글의 내용 파악한다. ·문장성분의 호응 관계 확인한다. ·(이)라고는, -(으)ㄴ 채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친구의 글을 수정해주기. 말하기: 상황에 맞는 말하기
15	5학년 1학기 9. 추론하며 읽기 10. 글쓰기의 과정	·추론하며 글 읽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글쓰기의 과정을 배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글쓰기 과정 경험한다. ·을/를 마다하다, -(이)기도 하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주제에 맞는 개요 짜기. 말하기: 추론하여 글을 읽고 다음상황에 대해 토의하기.
16	5학년 1학기 11. 여러 가지 독서 방법 12.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글 읽기의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문학작품 별 감상 방법을 배울 수 있	·논설문, 설명문, 정보문과 같은 다양한 글에 대한 읽기 방법 습득한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시, 소설, 영화, 연극 등과 같은 문학 작품 감상한다. ·-을/를 기울이다, (으)ㄴ 까닭에 문법을 익힌다.	설명문, 논설문, 감상문 쓰기 말하기: 인물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발표하기
17	5학년 2학기 1. 문학이 주는 감동 2. 견문과 감상을 나타내어요.	·문작작품을 읽고 감동받은 이유를 확인하자. ·여행에 대한 감상을 글로 작성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어떤 작품이 좋은 이유를 생각하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행의 기록문을 작성하여 인과관계에 맞게 작성해 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작품의 내용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기행문작성하기 말하기: 자신의 좋아하는 작품과 그 이유를 발표하기
18	5학년 2학기 3. 토론을 해요 4. 글의 짜임	·토론의 과정을 익힐 수 있다. ·글의 짜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토론의 과정을 익혀보자. ·글의 짜임을 파악하고 글을 요약하여 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토론의 내용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글의 짜임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요약문 작성하기 말하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토론해보기.
19	5학년 2학기 5. 매체로 의사소통해요 6. 소중한 우리말	·매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낱말의 뜻과 발음을 익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해보자. ·어려운 낱말들의 뜻과 발음을 정확하게 익혀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낱말의 발음을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말하기: 매체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해보고 발표하기
20	5학년 2학기 7. 인물의 삶 속으로 8. 언어 예절과	·다양한 작품 속 인물의 삶의 평가할 수 있다. ·언어 예절을 습득	·소설 속 인물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평가해 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언어예절에 맞는 대화태도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됨됨이	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언어 예절을 익혀서 바른 태도를 키워보자.	답 쓰기, 말하기: 소설 속 인물의 삶을 평가하여 발표하기
21	5학년 2학기 9. 다양하게 읽어요 10. 글을 요약해요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글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글의 장르에 따라 읽기 방법을 읽혀보자. ·글을 요약하며 말해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능통감투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말하기: 하나의 글을 읽고 요약하여 발표하기
22	5학년 2학기 11. 문학 작품을 새롭게	·관점을 달리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 소설과 시를 읽고 그 작품 속에 있는 관점을 달리하여 새롭게 작품을 평가해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별 하나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말하기: 관점을 달리하여 작품을 평가하고 발표하기
23	6학년 1학기 1. 비유적 표현 2. 다양한 관점	·다양한 비유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등과 같은 비유 표현 확인한다. ·글쓴이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 비교 분석한다. ·에 지나지 않다, -(으)ㄹ세라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비유 표현 작성하기. 말하기: 작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여 발표하기
24	6학년 1학기 3. 마음을 표현하는 글 4. 면담하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면담의 정의와 특징을 배울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	·감정을 표현하는 글 작성한다. ·면담의 절차와 형식 확인한다. ·에도 불구하고, (으)로 미루어보다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소설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면담 상황극 하기.

		힐 수 있다.		
25	6학년 1학기 5. 광고 읽기 6. 낱말의 분류	·광고 글의 정의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어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광고 글의 특성 확인 및 작성한다. ·낱말의 뿌리를 확인한다. ·인지라, -은 이상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광고보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단어의 근원이 같은 것끼리 써서 말뭉치 사전 만들기 말하기: 짧은 광고 만들어 발표
26	6학년 1학기 7. 이야기의 구성 8. 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	·소설의 뒷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다.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이야기의 구성 확인 및 뒷내용 구성한다. ·주제에 맞는 책을 찾아본다. ·로 미루어보다, -건(간에)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설화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소설의 뒷 내용 구성하기. 말하기: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하기에 관한 조별 게임하기
27	6학년 1학기 9. 주장과 근거 10. 쓴 글을 돌아보며	·논설문의 정의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글의 작성법 전체를 익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논설문 작성한다. ·글쓰기 및 퇴고 방법을 알아본다. ·-(으)ㄹ지언정, -(으)ㄴ 나머지 문법을 익힌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개요를 비롯한 온전한 글쓰기 말하기: 논설문 발표하기
28	6학년 1학기 11. 뉴스의 관점 12. 문학의 갈래	·뉴스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의 갈래 별 정의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뉴스의 특성 확인한다. ·문학의 갈래 확인 및 작품을 창작한다. ·-(으)ㄴ/-는 가운데, -노라면 문법을 익힌다.	읽기: 경제, 시사 관련 뉴스보기 듣기: 교사가 읽는 글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제 답 쓰기 말하기: 문학 작품을 작성하여 발표하기
29	6학년 2학기 1. 인물의 삶을	·작품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	·소설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허준 동영상 자료

	찾아서 2. 자료를 활용한 발표	교하여 말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비교하여 글을 작성해본다. ·대상을 설명할 때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살펴본다. .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허준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말하기: 효과적인 자료 배치를 통해 발표의 수준을 높이기
30	6학년 2학기 3. 적절한 근거 4. 효과적인 관용표현	·올바른 주장과 올바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관용의 표현을 읽힐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주장에 맞는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여 주장의 정확성을 높여본다. ·의사소통에 관용의 표현을 다양하게 익혀본다. .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관용표현 들어보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논설문 작성하기 말하기: 관용표현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하기
31	6학년 2학기 5. 이야기 바꾸어 쓰기 6. 타당한 주장	·이야기를 바꿔볼 수 있다.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의 흐름에 맞게 이야기를 바꿔본다. ·맥락에 맞는 글의 구성을 통해 연설문을 작성해본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태국에서 온 수박돌이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흐름에 맞게 이야기 바꿔서 글로 작성하기 말하기: 연설문 발표하기
32	6학년 2학기 7. 다양한 생각 8. 정보를 활용한 기사문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다. ·정보를 활용한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다양한 작품에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고 다른 지점을 찾아본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사문을 만들어 발표해본다.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기사문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기사문 만들기 말하기: 기사문을 만들어 발표해보기
33	6학년 2학기 9. 생각과 논리 10. 뉴스와 생활	·이어주는 낱말을 통해 정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낱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낱말을 알아본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뉴스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우리 동네 뉴

		·뉴스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다. ·뉴스와 일상생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스거리를 찾아서 작성하기 말하기: 뉴스 진행해보기.
34	6학년 2학기 11. 문학의 향기	·문학작품을 읽고 갈래를 바꿔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소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보자.	읽기: 수록된 글 읽기 듣기: 시 듣기 쓰기: 교과서 내 문자 답 쓰기,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작성하기 말하기: 소설의 내용을 작성된 시 발표하기

〈표-3〉 이주여성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2차년도

다음으로는 위에 제시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수업지도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단원은 2학년 1학기 국어 가의 내용 중 4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한 단원 당 4시간을 할당하여 총 4교시의 과정 속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원	4. 생각을 전해요		
주제	바른말로 내 생각 표현하기		
문법 및 표현	-에 대하여 -기 위해서 -는데/(으)ㄴ데		
기능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준비	국어 2-1 가 교과서, 국어활동 2-1 가		
교시	기능	수업내용	시간
1	1. 복습 및 도입	1-1 인사와 출석체크 1-2 복습 : 지난 시간에 배운 '-으며, -(으)ㄹ까요?,	15분

	2. 듣기 및 문법	-으면 -을수록'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3 교과서 88쪽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2-1 「윤정이와 병헌이 이야기」를 듣는다. 2-2 교재 91쪽 문제를 풀어본다. 2-3 '-에 대하여' 문법을 설명한다.	35분
2	3. 말하기 4. 읽기 및 문법	3-1 96~97쪽의 그림을 보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 한다. 3-2 98쪽 고운 말로 대답하기 게임을 한다. 3-3 99쪽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4-1 100~101쪽 지문을 읽는다. 4-2 -기 위해서 문법을 설명한다. 4-3 100~103쪽에 나온 문제를 풀어본다.	20분 30분
3	5. 쓰기	5-1 104쪽 그림을 보고 주변에 칭찬할 만한 인물이 있는지 떠올려본다. 5-2 105쪽을 활용해 칭찬쪽지를 작성해본다. 5-3 -는데/(으)ㄴ데 문법을 설명한다.	50분
4	6. 활동(역할극)	6-1 92~93쪽 그림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야기한다. 6-2 94쪽에서 잘못 말한 점을 찾아 고쳐 써본다. 6-3 모듬을 이루어 상황에 맞는 역할극을 한다. (상황: 옆 사람의 발을 밟음, 지나가다 옆 사람을 침, 물건을 떨어뜨려 옆 사람이 맞음) 6-4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	45분
	7. 과제 및 마무리	과제 '국어활동' 78~107쪽 풀어오기 자녀에게 학교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하는 지 알려주기	5분

〈표-4〉 이주여성의 학부모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수업지도안 예시

먼저 1교시에는 듣기와 문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그 전에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시킴으로 이전 학습내용과의 연결을 이어나가

도록 하고, 단원 첫 표지에 제시된 그림(고운 말을 듣고 있는 양파와 나쁜 말을 듣고 있는 양파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의견을 들어보며 도입을 진행한다. 그런 후 본격적으로 듣기를 진행하는 데, 교과서 내용 중 〈윤정이와 병헌이 이야기〉 듣기 파일을 함께 들어본다. 듣기는 2~3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후 교사와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데, 교과서 질문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듣기 후에는 해당 지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지문에서 한번 본 '-에 대하여' 문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에 대하여' 문법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따로 나누어주고, 해당 문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교과서에서 '-에 대하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학습자들이 문법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2교시에는 읽기와 말하기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교과서 96~97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학습자들끼리 의견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 후 '고운 말로 대답하기'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을 마친 후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습관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 100~101쪽에 제시된 지문을 읽어본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교사가 충분히 설명한다. 또한 지문 안에 있는 '-기 위해서' 문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1교시와 마찬가지로 문법 설명이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주어 설명하고 이를 교과서 안에서 확인함으로 문법의 용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100~103쪽에 나온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읽기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3교시는 쓰기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교과서 104쪽의 그림을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주변에 칭찬할 만한 인물을 떠올려보도록 한다. 남편이나 자녀, 혹은 친척 뿐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칭찬 쪽지'를 작성해볼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제시된 '-는데/(으)ㄴ데'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 또한 따로 유인물을 제시하여 가르치고 이를 교과서 안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4교시에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교과서 92~93쪽 그림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생각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94쪽에서 잘못 말한 점을 찾아 고쳐 써볼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모둠을 이루어 상황에 맞는 역할극을 진행한다. 모둠은 학습자의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3명~4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으로는 '옆 사람의 발을 밟음, 지나가다 옆 사람을 침, 물건을 떨어뜨려 옆 사람이 맞음' 등의 상황을 제시한 쪽지를 준비하고 모둠별로 제비를 뽑아 상황을 정한다. 모둠별로 충분히 연습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시간이 끝난 후 과제로 교과서 내용을 확장 및 연습할 수 있도록 한 국어활동 책에 같은 단원 부분인 78~107쪽을 풀어올 수 있도록 하고, 집에 돌아가 자녀에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는 과제를 내준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교과서 안에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능을 찾아 적절히 배분하고, 한국어 숙달도에 맞는 문법을 교과서 안에서 찾아 이것을 교육함으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효용성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다. 문법의 경우에는 진행해야 하는 내용에 맞추어 가감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나온 한국어문법은 학습자의 문식력 향상뿐 아니라 의사소통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그 의의

본고는 결혼이주여성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의 교재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주여

성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첫째, 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는 한 권에 2,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각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교재가 약 20,000원인 것에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교과서는 1/10의 가격으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는 한국어의 지식 뿐 아니라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까지 담겨있다. 단순히 문법적인 지식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법부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법, 비언어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까지 함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문식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아이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을 먼저 학습함으로 자녀의 선행학습자가 되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아이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에서 숙제를 봐주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여성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점점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위축되게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를 미리 학습하게 되면, 기초적인 문식력 향상과 더불어 아이들의 숙제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교수자 입장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있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서 자체가 교수자에게도 익숙한 영역이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뿐 아니라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나 관념 등과 같은 내용까지 함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결혼이주여성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어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학인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교재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지금은 수많은 한국어교재가 나오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사용할만한 한국어교재가 충분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향상만이 아닌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립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함이다. 다문화가정에서 사소하지만 조금은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다름'에 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또래 친구로부터 경험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로부터 다름에 대한 무시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녀의 학교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교육을 자녀의 국어교과서로 한다면 한국어능력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권위도 함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 문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6학년.

문화일보, 〈'다문화 코리아' 공존 넘어 통합으로〉한국어 교육, 자녀에만 초점… 엄마는 학교통신문도 못읽어 (2016.06.08.)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한국어 실력〉, 2012. 한국통계포탈사이트(http://kosis.kr)

고은미(2009),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독해 자료 구성 방안」, 『국어문학』46, 국어문학회.

공지연・심혜령(2009), 「학부모 역할을 위한 어휘집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연구」, 『한국사전학』21, 한국사전학회.

김정희(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자녀교육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동숙(2012), 「학령기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학습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연구 -1학년 국어교과의 받아쓰기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부현・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청소년복지학회.

노정은・박진욱(2013), 「학부모 역할을 고려한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1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박선옥・김하림・최수현(2010), 「자녀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인문과학연구』 2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류진아(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취학관련 경험과 대처방식에 관한 사례 연구」, 『상담학연구』12, 한국상담학회.

신미진(2011), 「학부모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어교재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보경・김정숙(2012),「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시기별 한국어교육 및 자녀학습 지도방안 연구」,『어문연구』71, 어문연구학회.

<Abstract>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using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

-Establishing the role of migrant women as parents-

Youngeun Son, Jahye Ki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earn how marriage immigrant women can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while performing their role as parents. For this purpose, it was intended to use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s as textbooks for Korean education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Of course, there are many Korean textbooks out now, and ones that can be us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are being distributed sufficiently. However, the focus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improve the Korean language skills of married immigrant women but also to establish a role as a parent and restore self-esteem. A minor but serious problem in multicultural families lies in ‘difference’. Children experience it from their peers at school, and married immigrant women are hurt by their children's disregard for differences. Therefore, in order to restore the self-esteem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they should b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school problems. In this regard, if married immigrant women us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textbook for their children, it is thought that they will be able to recover not only Korean language skills but also their authority as mothers.

New challenges of the Korean Department in Hungary: Dynamic expansion and focus on language education in a university setting

MECSI Beatrix* **and NGUYEN Krisztina****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Reflecting on previous studies on Korean Studies programs in Europe
   2.1. Reviews and criticism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through the years
3. Korean language education development: finding balance in the overall curriculum
   3.1. Brief overview of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in Korean BA and MA degree programs
   3.2. Dilemma about the purpose of language education
   3.3.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3.3.1. Integrating Korean culture learning into Korean language learning
4. Conclusion: The future of Korean Studies at Eötvös Loránd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and head of department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ötvös Loránd University, Budapest, Hungary. The author's e-mail address: mecsi.beatrix@btk.elte.hu

** First author. Assistant lecturer and doctoral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ötvös Loránd University, Budapest, Hung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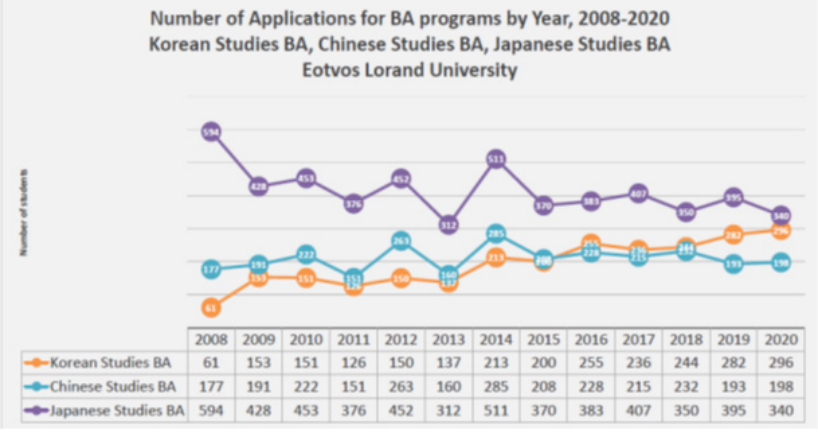
1. Introduc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Eötvös Loránd University Budapest (ELTE), placing it in context of other European Korean Studies Departments and to reflect on the challenges we face in order to build an exemplary platform for pursuing Korean Studies in Europe. There are different angles to look at the situation, and according to the person who gives an overview and opinion it greatly varies where the emphasis is put. For building a solid identity, we should look at not only the traditions as a department in a given university but also the expertise of the colleagues working for the department, and the needs in the field either academic or more vocation-oriented, and the possible future path of Korean Studies worldwide and place ourselves in this framework, while not losing our specific features during this process.

Korea-Hungary relationships date back to a long time in history, but it just happened in year 2008 when an increased interaction with Korean culture became particularly visible, with introducing Korean culture in Hungary in a degree not seen previously, and this was also the year which coine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ELTE.[1] In Hungary,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s the only centre focusing on Korean Studies, where complex and

1) Mecsi Beatrix, “Korean Culture in Hungary: Images, Korean Wave, Korean Cultural Center,” *Cultural Experienc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Hungary*. Presentation at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Budapest, April 23, 2015; Mecsi Beatrix, “Research and Teaching Korean Art in Hungary,” In *The 3rd Central Europe Conference of the KF and KASEUS Conference Proceedings*, 2020, pp. 6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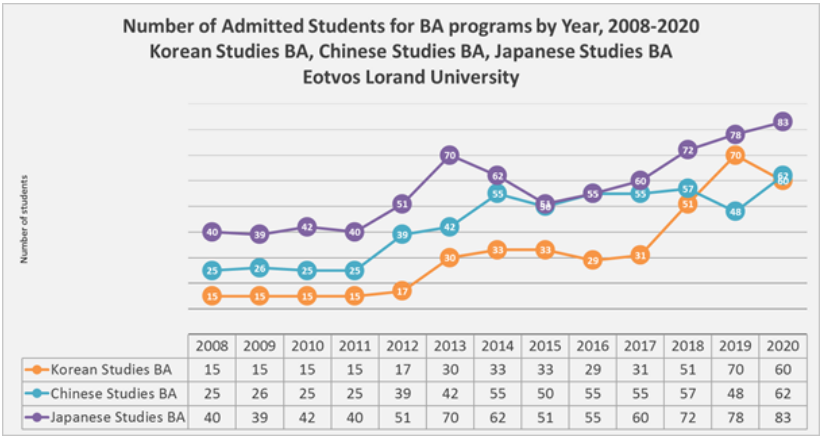
accredited programs on the language, social and cultural history are offered. Since 1997, when a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was launched at the Faculty of Humanities at ELTE, the number of students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teadily increases every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Korean Studies BA	61	153	151	126	150	137	213	200	255	236	244	282	296
Chinese Studies BA	177	191	222	151	263	160	285	208	228	215	232	193	198
Japanese Studies BA	594	428	453	376	452	312	511	370	383	407	350	395	340

<Graph 1> Number of applications for East Asian BA programs by year, 2008-2020[2].

2) Bachelor's program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began in 2008. Source of data: "Ponthatárok, Statisztikák (Admission Score Thresholds, Statistics)," *Felvi.hu*. Retrieved October 30, 2020, from https://www.felvi.hu/felveteli/ponthatarok_statisztikak. Compiled by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Korean Studies BA	15	15	15	15	17	30	33	33	29	31	51	70	60
Chinese Studies BA	25	26	25	25	39	42	55	50	55	55	57	48	62
Japanese Studies BA	40	39	42	40	51	70	62	51	55	60	72	78	83

<Graph 2> Number of admitted students for East Asian BA programs by year, 2008-2020[3)]

While the opportunity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to know more about Korea expands the framework of a university, we have a particular role in identifying what makes Korean Studies in an academic, university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e other ways of learning about Korea and it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times of digital accessibility of various contents, the unexpected situation of the pandemic has challenged the century-long traditions of learning in a more urging way and forced everyone to reflect on their roles and opportunities in this brand-new world.

While the accessibility of study material is doubtless a good sign, there are also many more factors that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for building an academic discipline. Apart from learning a language, which can be acquired by living in a foreign country or exposing oneself to the culture and its cultural contents, a more structural and

3) Note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admitted is determined by the university, in adherence to various regulations. Source of data: *ibid*. Compiled by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nalytical knowledge is needed in the case of teaching in a university, where not only the subject matter counts, but the approach and attitude towards the culture and study material is more emphasized.

In this study, we intend to focus on the role of language education in a university setting.

2. Reflecting on previous studies on Korean Studies programs in Europe

Trends implying growth in student numbers over the last years do not pertain to the Hungarian Korean Department only. An increase in numbers can be observable through vario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Europe where Korean language or Korean Studies programs are offered.[4] Simultaneously with the student population's growth, the departments accommodating Korean language or Korean Studies programs are developing and expanding as well.

Over the past two decades, which also marked intensifying levels of interest in Korean Studies research in the European region, numerous studies have been published concerning the Korean Studies programs themselves and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these programs. These studies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programs often not only focus on one

4) For example, 김훈태, 「동유럽 지역에서의 한국학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소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3,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9, 55~86쪽; 윤선영, 「중·동유럽내 CEEPUS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학 교육 현황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의 경우」, 『한국학논집』 7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217~241쪽.

specific institution,[5] but several.[6] The studies attempt to draw general conclusions about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programs primarily based on a program's curricula, the teaching materials used in the course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teaching staff, specifically the ratio of Korean native and non-native teachers. The findings reveal that universities where either Korean language courses or Korean Studies programs are offered are widely varied in their curricula and currently active teaching staff. Evidently, programs with a long-standing history have the necessary resources and network to employ a teaching staff with more expertise, who also specialize in various Korea-related fields. It can be generally observed that the more varied and qualified the teaching staff, the more diverse the curriculum is.[7] On the other hand, younger programs with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taff are facing difficulties in offering diversified courses to students. Another commonly stated finding concerns the teaching materials used during Korean courses.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lack of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expert teaching staff, the studies

5) For example, 정현숙,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1) —폴란드의 대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4, 국보학회, 2016, 251~283쪽; Kawk Bumo,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ope: Focusing on Korean Studies Program for the Degree Students in the Czech Republic," 『국어교육학연구』 54, 국어교육학회, 2019, 5~22쪽.

6) For example, 연재훈, 「유럽 지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2001, 381~401쪽; 김용직·김춘희,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 『비교문학』 35, 한국비교문학회, 2005, 315~385쪽; 박수영, 「동유럽 지역의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역사문화연구』 2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399~422쪽; 뒤발 마끄, 「유럽에서의 한국어학의 현황과 앞으로 가야할 길」, 『國語學』 57, 국어학회, 2010, 227~250쪽; 정진헌,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271~287쪽.

7) 윤선영, 앞의 논문, 217~241쪽.

generally suggest solutions that are executable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se immediate propositions concern the dispatch of visiting professors, primarily from Korea, and the extensive usage of mobility networks, such as the Europe-based CEEPUS (Central European Exchange Program for University Studies) network.[8] In relation to adopting adequate teaching materials for the Korean courses, the authors of these studies propose collaboration of local experts and funding to develop materials specific to a given course. Thus,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 from Kore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universities, or Korean companies is emphasized.[9] It must be noted that this strategy has been continuously reinforced in the last decades,[10] based on previous precedents from other East Asian programs.

2.1. Reviews and criticism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through the years

In order to achieve gradual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take reflections from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into consideration. Unfortunately, in the case of the Korean Department at ELTE, studies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programs over the years or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grams are scarce. Only few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delve into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and to present a comprehensive and factual overview about the situation of Korean Studies.

One such study dates back to 2004,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Department at ELTE.[11] This study introduces the history

8) 같은 논문, 217~241쪽; 정진헌, 앞의 논문, 271~287쪽.
9) 정현숙, 앞의 논문, 251~283쪽.
10) See for example 김용직·김춘희, 앞의 논문, 315~385쪽.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up until the early 2000s, mostly based on records and contributions by early travellers and the findings of a prominent researcher of Korean Studies, Gábor Osváth. At the time of the 2004 study, only a 'Korean language and civilization program' was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nner Asia Department.

Two years later, the situation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is mentioned in reference to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situatio n.[12] The author of the 2006 study argues that a given country's interest in Korean Studies is dependent on the country's own history, identity and its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Korea. Thus, these factors ought to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s discussed. She concludes that the central problem in Hungary at the time was the absence of a regular, comprehensive Korean program, which could help fostering future Korean Studies researchers. By presenting the concise history of other Korean program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is quite late compared to the Czech Republic, Poland or Bulgaria among others. Furthermore, she advocate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ultural Centre.

Another study was published in 2012, which focused on Korean literature teaching at ELTE.[13] The year 2008 marked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advancement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a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officially established at ELTE. In the second part of her study, the author briefly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Department,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11) 김보국, 「헝가리에서 한국학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동유럽발칸연구』 13,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4, 181~212쪽.
12) 박수영, 앞의 논문, 399~422쪽.
13) 유홍주, 「해외 대학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학 교수 방안 – 헝가리 엘테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135~157쪽.

Korean courses and the Korean BA program are popular within the East Asian Institute[14]. She points to the ever-growing interest in the 'Korean wave' or 'Hallyu' as the most prominent source of influence. By then, a couple of years had passed since the first Korean TV series hit the Hungarian national broadcast channel, and in the same year of 2012,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Budapest, Hungary opened.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closer availability of Korean cultural products, through television networks and the internet, motivated more students to learn about culture, compared to other East Asian departments. Finally, she points out the rapid structural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gain, in comparison to other East Asian departments, the MA program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as launched within a shorter time frame: in a matter of four years since the Department's establishment.

Concerning the initial phase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Mózes Csoma, former Head of Department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published a detailed study examining its historical aspect through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Hungary, similarly to the previous research in 2014.[15] However, Csoma's study provides current details about the BA and MA programs, presenting a summary of the programs' curriculum.

Two years prior, Kim Hun-tae also examined the curriculum, number of students and staff at the Korean Department at ELTE and revisited the findings in his 2019 study that concentrates more on the training of Korean Studies experts.[16] Based on the previously

14)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s affiliated to the East Asian Institute, which also facilitates th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Department of Mongolian and Inner Asian Studies and the Department of Buddhology and Tibetan Studies.

15) 초머 모세, 「한· 헝 관계사를 통해 본 헝가리 한국학에 대한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3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7~19쪽.

mentioned tripartite approach, his updated study compares three universities' Korean programs and departments in the Eastern European region.

Even though the study is mainly focused on Babes-Bolyai University in Romania, from where more detailed data are presented, an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is gained through the comparisons between Babes-Bolyai University, ELTE and Sofia University (in Bulgaria).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the latter offers the most diverse courses for its students, but concerning other fields of Korean Studies, such as history,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 literature, art or religion, an essentially more varied curriculum may be observed at ELTE.

He also discusses the low ratio of successfully graduated students at Babes-Bolyai University. Compared to the growing number of students admitted each year, primarily as a result of the positive influences of *Hallyu* on students' preference in Korean language learning, the percentage of graduates only reaches around 30% every academic year. Kim argues this might be due to the insufficient number of expert teaching staff, who could be able to provide appropriate guidance to the students to be more steadfast in their studies and even continue their studies at the MA level. Therefore, Kim advocates the appropriate training of local Korean Studies experts.

The most recent study abou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LTE was conduct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Hungary.[17] The study

16) 김훈태, 「동유럽 대학(大學)의 한국어학(韓國語學)의 현황(現況)과 발전(發展) 방향(方向) – 루마니아 · 헝가리 · 불가리아의 대학(大學)을 중심(中心)으로 –」, 『어문연구(語文硏究)』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307~332쪽.

17) 한정한,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517~540쪽.

asses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and institutions that offer non-degree Korean language programs. While the author acknowledges the central role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he found that the curricula of degree programs are rather unbalanced, focusing more on 'peripheral courses', such as history, culture, religion, art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entire East Asian region, instead of concentrating more on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 education. Jin Kyoung-ae also arrives at similar conclusion s.[18] It is correct that there are courses situating Korea in the greater East Asian context; however, by arriving at this conclusi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to which the Korean degree programs are embedded might have been disregarded. As previously mentioned,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tself is affiliated to the East Asian Institute. All degree programs here[19] share East Asian history, cultural history, religion and art history courses, which are compulsory for students to attend during their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urses and their effectiveness might be rightfully challenged. Nevertheless, numerous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curriculum of Korean Studies programs are discussed.

Continuing his analysi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Han identifies the sources of weakness in the insufficient number of Korean experts and the lack of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20] The conclusions are very similar to those that were drawn with regard to

18) Jin Kyoung Ae,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 of Korean Studies in Eötvös Loránd University," *The 3rd Central Europe Conference of the KF and KASEUS Conference Proceedings*, 2020, pp. 92–93.

19) Chinese Studies programs, Japanese Studies programs, Korean Studies programs and Mongolian Studies programs on BA, MA and doctoral degree levels. Tibetan Studies program on the BA level.

20) 한정한, 앞의 논문, 517~540쪽.

other Korean departments across Europe, especially Eastern Europe.

Examining the above studies about the Hungarian situation of Korean Studies, it is observable that despite its prolonged initial phase when a comprehensive framework was absent, Korean Studies as a distinct field of research has grown quite rapidly in Hungary in the last decade, primaril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By offering the most complex programs focusing on all aspects of Korean Studies, the Department has become the main centre for Korean Studies research in Hungary. With concerns over a balanced curriculum and the effectiveness of language education, it is now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Department to ensure that the changes of the last couple of years propel Korean Studies as a field of research to develop accordingly and broaden the horizons of Korean Studies in Hungary.

3. Korean language education development: finding balance in the overall curriculum

The previous studies discussed indicate that concerns about the overall curriculum of Korean Studies programs are very common.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LTE is also faced with criticism regarding the limited number of courses focused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lso the balance between Korean language courses and courses that are related to other areas of research, both Korean and East Asian. Concerning the latter, slightly opposing opinions were expressed: one stating that a more varied curricula should be offered, which requir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xpert teaching staff, who are experts in various fields, while the other voicing the need for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courses, and

simultaneously decreasing the emphasis placed on other courses, which would technically result in a less varied but a more Korean language-focused curriculum.

In the follow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will be discussed, highlighting the dilemma of the purpose of language education in a university setting, and finally, a study currently being conducted is introduced, which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language courses through adopt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an extensive and longitudinal research study.

3.1. Brief overview of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in Korean BA and MA degree programs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has been in the forefront since the first Korea-related programs started at the Faculty of Humanities. From offering practical Korean language courses to more systematic and diverse language cours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Currently 16 different language-related courses, including one on linguistics, are offered during the six semesters or three academic years of the Korean Studies BA program.

Korean language courses at the BA level		
Course name	Recommended semester	Number and duration of lessons per week
1. Modern Korean Language 1.*	1	4x45 minutes
2. Modern Korean Language 2.*	2	4x45 minutes
3. Modern Korean Language 3.*	3	2x45 minutes

4. Modern Korean Language 4.*	4	2x45 minutes
5. Modern Korean Language 5.*	5	2x45 minutes
6. Modern Korean Language 6.*	6	2x45 minutes
7. Chinese Characters (Hanja) 1.	1	2x45 minutes
8. Chinese Characters (Hanja) 2.	2	2x45 minutes
9. Reading Specialized Texts in Korean and Composition 1.	3	2x45 minutes
10. Reading Specialized Texts in Korean and Composition 2.	4	2x45 minutes
11. Korean Philology	4	2x45 minutes
12. Modern Korean Conversation 1.	4	2x45 minutes
13. Modern Korean Conversation 2.	5	2x45 minutes
14. Business Korean 1.	5	2x45 minutes
15. Business Korean 2.	6	2x45 minutes
16. Korean Translation and Composition	6	2x45 minutes

*Main language courses.

<Table 1> Korean language-related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BA program, effective in the 2020/2021 academic year.[21)]

For reference, the full BA curriculum consists of another ten Korea-related courses, such as Korean History, Korean Literature, Korean Modern Culture, Korean Traditional Culture etc., and eight courses that focus on the greater East-Asian context. There are five additional courses that are compulsory for every student at the Faculty of Humanities as general introductory courses to philology studies.

21) See full program structure at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BA progra m,” *Faculty of Humanities, Eötvös Loránd University*. Retrieved April 22, 2020, from https://btk.elte.hu/dstore/document/1771/BA%20koreai%20szakira ny%202019.pdf.

Concerning the MA program, four different language-related courses are offered during the four semesters or two academic years of the program. Three of which are held two times a week.

Korean language courses at the MA level		
Course name	Recommended semester	Number and duration of lessons per week
Modern Korean Language 1.*	1	4x45 minutes
Modern Korean Language 2.*	2	4x45 minutes
Modern Korean Translation and Composition 1.	3	4x45 minutes
Modern Korean Translation and Composition 2.	4	2x45 minutes

<Table 2> Korean language-related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MA program, effective in the 2020/2021 academic year.[22)]

The number of other Korea-related courses is nine, which includes courses focused on history, culture, literature and religion. Four other courses are designated as 'MA seminars', where Korea-specific subjects are taught, the content depending on the instructor. There are three further courses that are East Asia-focused.

The purpose of the BA program "[…] is to provide students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about Korean history,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while also situating Korea in the greater East Asian context.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an intermediate understanding of and proficiency in Korean

22) See full program structure at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MA program," *Faculty of Humanities, Eötvös Loránd University*. Retrieved April 22, 2020, from https://www.btk.elte.hu/file/MA_Koreanisztika_2016_2.pdf.

language at the end of the three-year program."[23] The MA program "[…] builds on the acquired knowledge at the BA-level and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in history,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and it is emphasized that "[m]ost courses are taught in Korean, and at the end of the two-year program, students are expected to achieve a strong upper intermediate or higher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24]

In the current 2020/2021 Fall semester seven instructors are teaching Korean language-related courses: four native Korean teachers (three full-time, one volunteer) and three non-native, Hungarian teachers (two full-time, one part-time). The staff are all varied in terms of qualification, with only two Korean instructors holding doctoral degrees, out of them only one instructor has a Korean language-related degree. Moreover, this professor is also a visiting professor, who is dispatched from a Korean university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Presently, two other (Hungarian) instructors are pursuing their doctoral degrees at the Korean Studies PhD program.

The materials used during the Korean language courses are largely dependent on the instructors' personal choice, previous years' traditions and the recommendation of other instructors. For long years, for the main language courses, one specific set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was used, which was published by one of the most prestigious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Naturally, this set grew outdated in its content and form, and more recent and more diverse publications were adopted for the language courses. In this case, the tradition of continuation was the most prevalent factor in choosing the

23)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Eötvös L oránd University*. Retrieved November 5, 2020, from http://tavolkeletiinteze t.elte.hu/index.php?menu=szervezet&almenu=koreaitanszek.

24) *Ibid*.

materials. With a diversifying teaching staff, opinions on selecting textbooks and adopting other forms of teaching materials also became varied. Among numerous factors, the course objectives also greatly impact the selection.

Even though the student population at the Korean Studies programs is almost fully homogenous, i.e. the majority of them are Hungarian nationals sharing a common Hungarian cultural background,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students whose mother tongue is Hungarian, but live abroad, usually in neighbouring countries such as Romania, Ukraine or Serbia, also join the program occasionally. From the current 2020/2021 Fall semester, two international students have also registered for the beginner language courses.

Regarding the students' major, the student popul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ourses, especially in the first-year BA level introductory courses, is very diverse. Each year more and more students are admitted to the Korean Studies BA program, and additionally, increasingly more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 Korean Studies minor or more specifically the Korean language courses. This semester's 50 non-major registered students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1.' course prove that a great variety is existing within one course: for instance, Japanese, Chinese, English,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tist, Psychology, Teacher Training, Computer Science, French Studies, Scandinavian Studies, Modern Greek Studies, Italian Studies, Ethnography major students and others can be found in the first-year introductory language course along 61 major students.

The main motivational factor behind the major students' choice of Korean Studies BA program is undoubtedly the interest toward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Major students who attended the 'Modern Korean Language 1.' course over the last three years were

asked about their motivation for applying to Korean Studies, and most of them, 40 students or 67% of the total 60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or both, frequently noting that they find the language very special.[25] Others, 11 students or 18% of those surveyed answered that they are motivated to learn the language due to the attractive prospects of finding a great job opportunity by speaking a rare language. The remaining 15%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edication towards language learning' or a 'keen interest in Korean history and politics'.

The ever-growing BA student population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the instructors. Since 2018, the number of major students admitted yearly is between 50-70 people,[26] and on average, 50 other non-major students also join the main introductory language course. The acceptance of students is encouraged by the university; however, with more students, the density levels in one course dramatically increase, which forms a serious obstacle to effective language teaching.

3.2. Dilemma about the purpose of language education

Among other challenges concer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one of the greatest might be determining or redefining the

25) The survey as part of a general survey focusing on the 'Modern Korean Language 1.' BA course was conducted by Krisztina Nguyen, one of the lecturers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1.' course, in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the 2017/2018 Fall semester. In 2017, 27 major students, in 2018, 16 major students and in 2019, 17 major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26) "Ponthatárok, Statisztikák (Admission Score Thresholds, Statistics)," *Felvi.hu*. Retrieved October 30, 2020, from https://www.felvi.hu/felveteli/ponthatarok_statisztikak.

exact purpose of language education at an unprecedented time of rapid expansion with many dynamically changing variables.

The language courses at the BA program generally aim to prepare students to acquire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skills and to provide them with necessary knowledge for their future MA studies. However, similarly to other programs and even oth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s encountering declining rates of interest among BA students to continue their studies on the MA level. After 2016, a year that marked an unparalleled increase in the number of MA program applicants with 41 students, the following year saw a considerable drop, as only eight students applied. In 2018, numbers rose again to 27, but they were far behind the 2016 records, and since then, there are fewer applicants each year, dropping to an approximately one-fourth of the 2018 numbers.[27)]

Most students who have successfully graduated and obtained their BA degree are more inclined to choose professional careers, where they can actively us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and knowledge about Korean culture, which they acquired during the program's three years, or they choose another career path, while some others decide to continue their studies in other fields.[28)] With the trend of clearly

---

27) *Ibid*.

28) Professional careers, which predominantly concern full-time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from and to Korean or general management tasks, are currently abundant du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companies in Hungary. The companies also actively encourage students to do an internship at their company, and more and more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se opportunities every year. Since 2018,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nnually co-hosts an event where Hungary-based Korean companies set up booths to invite students for one-on-one consultations and to promote available job and future career opportunities. The Department supports such events, because it is very beneficial for students, even for those who are only considering their application to Korean Studies programs, to see as many potential career paths as

declining applications to the MA program and students choosing professional careers over academic ones after graduation, the question arises whether Korean language education itself should be more focused to satisfy these demands, for exampl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Business Korean or Translation courses or by introducing new courses that are directed at developing certain language skills in depth.

Numerous factors are ought to be considered, of course. First and foremost, the university's perspectives and visions of nurturing academically outstanding students, who will become the future's leading global citizens. Aside from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 opinions of decision-makers, the overall curriculum of the individual programs are just as important as the perspectives of those instructors who are responsible for effectively carrying out Korean language lessons on a day-to-day basis, and the students themselves who are inves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their studies that should beneficially serve their future growth. To redefine or reinforce the purpose of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extensive research and dialogue between decision-makers, teaching staff and students are fundamental.

This question and how it will be eventually answered will be a crucial step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and also the path Korean Studies as a field of research will take in Hungary.

3.3.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possible. Due to the same reason, the Department also eagerly pursues opportuniti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various student and teacher mobility programs.

Regarding the previously discussed curriculum designs, and the ratio of courses that focus on Korean language or Korea-related subjects, while also taking students' interests and motivation into consider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LTE forms a focal point in the Department's overall profile, specifically in the BA program. Despite its central role,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Department has not been thoroughly and systematically examined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yet. The lack of such study could be explained by the relatively low number of local researchers, who are focused on Kore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n order to develop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dopt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to provide students with appropriate knowledge, skills and to nurture positive attitudes, which will be beneficial for them when participating in successful intercultural encounters, systematic considerations about all participants of the educational process are necessary.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Department, gather factual data, and based on the data identify key trends, a large-scale study is conducted currently. Details and partial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1) Integrating Korean culture learning into Korean language learning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mobility, flourishing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and widespread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day's globalized world provides a growing number of opportunities for intercultural encounters. For communication to be successful and effective in such encounters, one needs not only skills in a given foreign language, but also the ability or the competence to

apply these skills appropriately to the actual cultural context. Recently, more and more focus is directed at the development of this competence, i.e.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29] Bennett and Bennett define ICC concisely as "the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cross-cultural situations and to relate appropriately in a variety of cultural contexts."[30]

It is undeniable that culture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foreign language learning.[31] However, how it is introduced to students and how they are instructed throughout a lesson, especially regarding a language and culture that is geographically and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from the students' own language and culture, is largely dependent on the instructors, the teaching materials and the curriculum.

Based on this premise, the currently on-going study about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Department of Korean

29) Throughout the years, several models of ICC were designed. Among these models, the most frequently cited remains Byram's (1997) model,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 similar, sometimes interchangeable notion is intercultural competence or IC, which is referred to as a component of ICC along with linguistic competence, sociolinguistic competence and discourse competence, redefined by Byram. In Byram's (1997) model, the elements of IC are knowledge, skill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skill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attitudes of openness and curiosity and critical cultural awareness (Michael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pp. 57–63).

30) Janet M. Bennett – Milton J. Bennett,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Janet M. Bennett – Milton J. Bennett – Dan Landis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Thousand Oaks, CA: Sage, 2004, p. 149.

31) Michael Agar, *Language Shock: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2004; Claire Kramsch,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Ned H. Seelye,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1993.

Studies examines the participants, the materials and framework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he focus of the research is the main language courses ('Modern Korean Language 1-6') in the BA program.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involving questionnaires, interviews, lesson observations and the gathered curricula and teaching materials, content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gain insight into students' needs and wants, teachers' perspectives on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and their actual teaching methods used to develop students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cultural cont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additionally, to identify good practices.

At the current stage of the study, preliminar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students' needs and wants, focusing on beginner Korean language courses, several teaching materials were analysed, and the role of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has been thoroughly examined to prepare for the upcoming interviews with the instructors. Classroom lessons of the three main language courses that are offered during the Fall semester are currently being observ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With these initial data gathered, the findings reveal that similarly to the widely observable textbook-dependency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32] the central role of language textbook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undeniable. In general, language textbooks are an important carrier of cultural information; however, the approach taken to include culture,[33] the method of conceptualizing culture,[34]

32) Lies Sercu et al.,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5.

33) Kheira Adaskou – Donard Britten – Badia Fahsi, "Design Decisions on the Cultural Content of a Secondary English Course for Morocco," *ELT Journal*, Vol. 44, 1990, pp. 3–10.; Martin Cortazzi – Lixian Jin "Cultural

and even the amount of cultural content may largely vary.[35] When selecting the textbooks for a course, various expectations must be satisfied, but foreign language teachers are the least concerned with the textbooks' cultural content and culture teaching potential; however, teachers find culture teaching very important, and they are also quite critical about the textbooks' cultural content.[36] Therefore, while theoretically, teachers do have expectations of a textbook regarding its cultural content, actu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textbook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are necessary. The analysis of textbooks from this perspective has been traditionally carried out employing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37] Other approaches in the form of semiotic analysis were proposed,[38] and sets of evaluative questions were

---

Mirrors: Materials and Methods in the EFL Classroom." In Eli Hinkel (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6–219.

34) Germán Canale, "(Re)Searching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xtbooks, or the Politics of Hide and Seek,"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Vol. 29, No. 2, 2016, pp. 225–243; Claire Kramsch, "Foreign Language Textbooks' Construction of Foreign Reality,"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Vol. 44, No. 1, 1987, pp. 95–119.

35) Louise Damen,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Louise Damen,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7, pp. 253–277.

36) Leah Davcheva – Lies Sercu,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In Lies Sercu et al. (eds.),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5, pp. 90–109.

37) For example, Ka-Ming Yuen,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Cultures in English Textbooks," *ELT Journal*, Vol. 65, 2011, pp. 458–466; Zia Tajeddin – Shohreh Teimournezhad,"Exploring the Hidden Agenda in the Representation of Culture in International and Localised ELT Textbooks,"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Vol. 43, No. 2, 2015, pp. 180–193.

38) Weninger Csilla – Kiss Tamás, "Culture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Textbooks: A Semiotic Approach," *TESOL Quarterly*, Vol. 47, No. 4, 2013, pp. 694–716.

recommended as well.[39]

The present study adopted and modified a set of evaluative questions based on Damen's sets of questions as the general method for data collection.[40] Through meticulous content analysis of three sets of textbooks used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1.' BA course,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textbooks are largely varied in their cultural content and way of representing culture.[41] This fundamentally influences the role and appearance of culture in the language lesson, as textbooks usually set immediate course objectives and determine coursework.[42] The textbooks analysed contained primarily elements of civilization (e.g., history, geography, tourist attractions, traditions, holidays, culinary traditions etc.) and behaviour and speech patterns (e.g., different functions of communication, non-verbal language etc.).[43] However, not all textbooks contained necessary explanations to understand every element, which could potentially result in disregarding a given element's cultural significance, unless the instructor specifically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he majority of textbooks do not invite students for meaningful comparisons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ir own

39) Louise Damen, op. *cit*., pp. 253–277; Anthony Liddicoat–Angela Scarino, *Intercultural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oboken, NJ: Wiley–Blackwell, 2013.

40) Louise Damen, op. *cit*., pp. 253–277.

41) The analysed textbooks were (1) 한상미·박경희· 윤은미, 『100시간 한국어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2, 3) 김미옥·황인교·손은경·이수민, 『연세 한국어 1-1, 1-2 (영어판)』,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4, 5) 유소영·한정한, 『너랑 나랑 한국어 1-A, 1-B』, 용인: NOSVOS, 2014.

42) Leah Davcheva – Lies Sercu, op. *cit*., p. 90.

43) Elements of culture are based on the typology proposed by Holló. HollóDorottya,*Kultúra és Interkulturalitás a Nyelvórán (Culture and Interculturality in the Language Lesson)*, Budapest: Károli Gáspár Református Egyetem – L'Harmattan, 2019,p.18.

culture, even though reflection and comparison are essential methods for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he findings show the limited scope of cultural content presented in textbooks, which creates a very loose framework for culture teaching, and it simultaneously increases the dependency on the instructor. Furthermore, the salient theme of beginner language textbooks, i.e. the journey of a student attending a Korean language course in Korea, may possibly create difficulties for language learners outside of Korea. This theme dictates very specific exercises, usually without a reference to the learners' own culture. This would mean that students outside of Korea are faced with the task of imagining a life there without drawing on real life experiences, which would aid their cultural understanding. By missing these additional experiences, students may require even more explicit cultural guidance. Consequently, the question of course-specific or country-specific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rises. In Hungary, the only major textbook project was led by Gábor Osváth who designed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Hungarian learners.[44] Since then, nearly 20 years has passed,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oday is solely dependent on publications by Korean language institutes.

Of course, the choice of textbooks and their usage is primarily dependent on the language teacher, whose role is central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Teachers must assume a new, professional role to facilitate students' language learning process,[45] while also assisting them to become successful intercultural speakers. However,

---

44) Osváth Gábor, *Koreai nyelv alapfokon I (Beginner level Korean I)*, Budapest: Külkereskedelmi Főiskola, 1995; Osváth Gábor, *Koreai nyelv alapfokon II (Beginner level Korean II)*, Budapest: Külkereskedelmi Főiskola, 1996; Osváth Gábor, *Koreai nyelvkönyv (Korean language textbook)*, Budapest: private publication, 2008.

45) Lies Sercu et al., op. *cit*., pp. 130–159.

as preliminary studie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other foreign language teachers indicate, teachers' perception and actual teaching practices regarding teaching culture through language differ greatly.[46] While most of them regard culture teaching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as important parts of language teaching, they are not confident about their definitions and they are not sure how to teach them. The courses' time restrictions and complet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four skills result in further reluctance on their par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udies that prove changing tendencies.[47]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iews are planned to be conducted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teaching methods of native and non-native teachers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Research is necessary to gain insight into the present, overall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develop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Korean language courses in order to aid students in becoming successful intercultural communicators and for them to be able to use the language appropriately in a variety of communicative situations. With continuing the above discussed study, valuable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gained.

Finding the balance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during the language lessons is not an easy task. Nonetheless, the potential

---

46) Lucyna Aleksandrowicz-Pędich et al., "The Views of Teachers of English and French o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ing." In Lázár Ildikó (Ed.), *Incorporat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er Educ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p. 7–37.

47) Anna Czura, "Major Field of Study and Student Teachers' View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16, No. 1, pp. 83–98; Marta Garrote Salazar – María Fernández Agüero,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eaching: Defining the Intercultural Profile of Student Teachers," *Bellaterra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Language & Literature*, Vol. 9, No. 4, pp. 41–58.

competence development of students they may experience during the lessons cannot be disregarded.

4. Conclusion: The future of Korean Studies at Eötvös Loránd University

More than ten years has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LTE. The Department has undergone great structural changes as the Korean Studies MA and PhD program was established, the teaching staff became diversified with new researchers focusing on Korean Studi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multiplied. These changes created new challenges. Some are also similar to the challenges other European, specifically Easter European universities' Korean departments face currently.

As previous contrastive studies indicate, regardless of the time when the studies were conducted, European universities are tackling three common issues in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ir countries. These problems include (1) lack of an expert teaching staff, (2) issues of balance and variety within the curriculum and (3) lack of locally developed course materials. It is noticeable that all three issues are closely interrelated: curriculum revision and material development issues are dependent on the teaching staff and the researchers. Most studies recognize that training local experts is the key to sustain Korean departments in the long run. However, the training process may be an arduous one with several years of training and gaining experience, thus, it is not a quickly executable process in the case of young and developing Korean departments. Therefore, immediate solutions are proposed, which eith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funds and support from Korean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suggest utilizing mobility networks for cooperation.

For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LTE, one of the main concerns raised revolves around balancing the overall curricula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s. Different points of view result in differing opinions on whether Korean language courses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courses related to other areas of Korean Studies and general courses situating Korea in the larger East Asian context or diversity and thus, simultaneous focus on various areas of Korean Studies research is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A central dilemma relating to this complex question is determining the purpo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Recognizing the lack of systematic and extensive research that involves all participants, considers course objectives, teaching materials and curricula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a comprehensive study is proposed in order to gather data that are relevant and clearly reflect strength and weaknesses. By reflecting at the present situation, the future steps for development can be realized.

A large-scale study focusing on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in the main Korean language lessons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with some preliminary findings available alread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hrough which students may gai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hat ar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cquiring a language and using it in a variety of intercultural encounters, the partial study introduced has sought to examine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their potential for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The analysis of textbooks revealed that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the cultural content included, explanations for cultural items are sometimes omitted, and the

analysed textbooks rarely invited students to make meaningful comparisons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their own. This directly affects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in the classroom by increasing the burden of the instructor and by providing les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ituate the language in the cultural context. Choosing the textbook appropriate for a course is largely dependent on the Korean language teacher, who has a central role in aiding the students in their language learning process.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explore how Korean language teachers perceive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 and its potential to develop intercultural competence in a university setting.

Internally reflecting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LTE is a crucial task to be taken at the time of rapid expansion. Serious consideration is necessar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s a field of research in Hungary, where long-term stability, training of experts and the balance of curricula are some of the key concerns.

| Bibliography

김미옥·황인교·손은경·이수민,『연세 한국어 1-1, 1-2 (영어판)』』,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김보국,「헝가리에서 한국학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동유럽발칸연구』 13,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4, 181~212쪽.

김용직 – 김춘희,「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비교문학』35, 한국비교문학회, 2005, 315~385쪽.

김훈태,「동유럽 대학(大學)의 한국어학(韓國語學)의 현황(現況)과 발전(發展) 방향(方向) -루마니아 · 헝가리 · 불가리아의 대학(大學)을 중심(中心)으로-」,『어문연구(語文硏究)』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307~332쪽.

김훈태,「동유럽 지역에서의 한국학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소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를 중심으로」,『동유럽발칸연구』 43,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9, 55~86쪽.

뒤발 마끄,「유럽에서의 한국어학의 현황과 앞으로 가야할 길」,『國語學』57, 국어학회, 2010, 227~250쪽.

박수영,「동유럽 지역의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역사문화연구』2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399~421쪽.

연재훈,「유럽 지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이중언어학』18, 이중언어학회, 2001, ,381~401쪽.

유소영·한정한,『너랑 나랑 한국어 1-A, 1-B 』, 용인: NOSVOS, 2014.

유홍주,「해외 대학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학 교수 방안 – 헝가리 엘테 대학교를 중심으로」,『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135~157쪽.

윤선영,「중·동유럽내 CEEPUS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학 교육 현황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의 경우」, 『한국학논집』 7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217~241쪽.
정진헌,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271~287쪽.
정현숙,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1) —폴란드의 대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4, 국보학회, 2016, 251~283쪽.
초머 모세, 「한· 헝 관계사를 통해 본 헝가리 한국학에 대한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3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7~19쪽.
한상미·박경희· 윤은미, 『100시간 한국어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한정한, 「헝가리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517~540쪽.

Anna Czura, “Major Field of Study and Student Teachers’ View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16, No. 1, pp. 83–98.
Anthony Liddicoat – Angela Scarino, Intercultural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oboken, NJ: Wiley Blackwell, 2013.
Claire Kramsch, “Foreign Language Textbooks’ Construction of Foreign Reality,”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Vol. 44, No. 1, 1987, pp. 95–119.
Claire Kramsch,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Germán Canale, “(Re)Searching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xtbooks, or the Politics of Hide and Seek,”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Vol. 29, No. 2, 2016, pp. 225–243.
Holló Dorottya, Kultúra és Interkulturalitás a Nyelvórán (Culture and Interculturality in the Language Lesson), Budapest: Károli

Gáspár Református Egyetem – L'Harmattan, 2019.

Janet M. Bennett, & Milton J. Bennett,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Janet M. Bennett, Milton J. Bennett, & Dan Landis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Thousand Oaks, CA: Sage, 2004, pp. 147–165.

Jin Kyoung Ae,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 of Korean Studies in Eötvös Loránd University," The 3rd Central Europe Conference of the KF and KASEUS Conference Proceedings, 2020, pp. 75–93.

Ka-Ming Yuen,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Cultures in English Textbooks," ELT Journal, Vol. 65, 2011, pp. 458–466.

Kheira Adaskou – Donard Britten – Badia Fahsi, "Design Decisions on the Cultural Content of a Secondary English Course for Morocco," ELT Journal, Vol. 44, 1990, pp. 3–10.

Kawk Bumo,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ope: Focusing on Korean Studies Program for the Degree Students in the Czech Republic," 『국어교육학연구』 54, 국어교육학회, 2019, pp. 5~22.

Leah Davcheva – Lies Sercu,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In Lies Sercu et al. (eds.),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5, pp. 90–109.

Lies Sercu et al.,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5.

Louise Damen,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Louise Damen,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7, pp. 253–277.

Lucyna Aleksandrowicz-Pędich et al., "The Views of Teachers of

English and French o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ing.” In Lázár Ildikó (Ed.), Incorporat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er Educ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p. 7–37.

Marta Garrote Salazar – María Fernández Agüero,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eaching: Defining the Intercultural Profile of Student Teachers,” Bellaterra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Language & Literature, Vol. 9, No. 4, pp. 41–58.

Martin Cortazzi – Lixian Jin “Cultural Mirrors: Materials and Methods in the EFL Classroom.” In Eli Hinkel (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6–219.

Mecsi Beatrix, “Korean Culture in Hungary: Images, Korean Wave, Korean Cultural Center,” Cultural experienc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Hungary. Presentation at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Budapest, April 23, 2015.

Mecsi Beatrix, “Research and Teaching Korean Art in Hungary,” In The 3rd Central Europe Conference of the KF and KASEUS Conference Proceedings, 2020, pp. 67–72.

Michael Agar, Language Shock: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2004.

Michael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pp. 57–63.

Ned H. Seelye,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1993.

Osváth Gábor, Koreai nyelv alapfokon I (Beginner level Korean I), Budapest: Külkereskedelmi Főiskola, 1995.

Osváth Gábor, Koreai nyelv alapfokon II (Beginner level Korean II), Budapest: Külkereskedelmi Főiskola, 1996.

Osváth Gábor, Koreai nyelvkönyv (Korean language textbook), Budapest: private publication, 2008.

Weninger Csilla – Kiss Tamás, “Culture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Textbooks: A Semiotic Approach,” TESOL Quarterly, Vol. 47, No. 4, 2013, pp. 694–716.

Zia Tajeddin – Shohreh Teimournezhad, “Exploring the Hidden Agenda in the Representation of Culture in International and Localised ELT Textbooks,”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Vol. 43, No. 2, 2015, pp. 180–193.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BA program,” Faculty of Humanities, Eötvös Loránd University. Retrieved April 22, 2020, from https://btk.elte.hu/dstore/document/1771/BA%20koreai%20szakirany%202019.pdf.

“Courses in the Korean Studies MA program,” Faculty of Humanities, Eötvös Loránd University. Retrieved April 22, 2020, from https://www.btk.elte.hu/file/MA_Koreanisztika_2016_2.pdf.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Eötvös Loránd University. Retrieved November 5, 2020, from http://tavolkeletiintezet.elte.hu/index.php?menu=szervezet&almenu=koreaitanszek.

“Ponthatárok, Statisztikák (Admission Score Thresholds, Statistics),” Felvi.hu. Retrieved October 30, 2020, from https://www.felvi.hu/felveteli/ponthatarok_statisztikak.

<Abstract>

New challenges of the Korean Department in Hungary: Dynamic expansion and focus on language education in a university setting

MECSI Beatrix and NGUYENKrisztina
(Eötvös Loránd University, Budapest, Hungary)

In recent years, a rapid increase of interest in Korean Studies has been observable in Hungary.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Eötvös Loránd University (ELTE), the sole institution offering complex BA, MA and PhD programs in Hungary, more and more students seek to acquire the language mainly due to prior interest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ince its over 10-year-long standing, the Department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to simultaneously accommodate students' needs and offer high quality teaching to the ever-growing student population. Through an overview of previous studies about other European and then specifically the Hungarian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n insight was gained into the general issues and their potential solutions at these departments. One of the central topics, the situation and purpo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further elaborated upon by presenting first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LTE. Recognizing the lack of systematic and extensive research to reflect internally on the situation of language education and to develop the effectiveness of lessons, a comprehensive study was proposed. The currently on-going large-scale study focuses on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hat involves all participants, considers course objectives, teaching materials and

curricula in main Korean language courses at the BA level, and the study attempts to gather relevant data that clearly reflect strength and weaknesse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ramework. The partial findings suggest that a holistic approach is necessary to adjust the overall curriculum, and more dialogue is essential for new material development and to maintain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Department. The findings may also carry general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Korean Studies departments with exponentially growing (and homogenous) student population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Stud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Hungary,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 Discussing The Issue Of Research Approaches

Anastasia GURYEVA*

Table of contents

1. Nine Clouds Dream and Records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2. Gasa poems and sijo verse of Late Joseon period
3. Works of contemporary poet Jeong Hyeon-jong
4. Conclusion

Approaching Korean literature as a research subjec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its specifics basic for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in general, i.e., a special place, which literature and texts hold in Korean culture, the perception of literature, which does not coincide with that of Western culture,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terature in hanmun and vernacular tradition (with their intersections), etc. A specialist in Korean literature Dr. Marianna Nikitina formulated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a.gureva@spbu.ru

as an introductory phrase into the educational course on the subject[1] : “Korean literature should be viewed as a part of general East Asian cultural complex”[2]. This characteristic explains the features stated above, and serves the prerequisite for other specifics, such as intertextuality, imagery system, complex etymology of certain elements etc.

Such specifics make Korean literature research a sphere, which relates to a set of issues to consider when approaching the material, and a sphere interrelating with a wide range of areas, and a researcher in the field needs to be able to trace the relating features depending on each studied case. As these features influence specifics of Korean literature as an object of research, they should be considered also when developing new approaches and adapting Korean studies to new paradigms.

In recent research practice, literature at times loses its place as a philological field, and is studied as a part of social science, playing an auxiliary role in the process of examining social issues. Specific features of Korean literature may be overlooked, causing incorrect interpretations. At the same time, Korean literature as a studied subject allows a researcher apply various theories while attent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key specifics. This becomes possible owing to its multidisciplinary character - one of the most regarded criteria of a study in contemporary academia.

---

1) Korean literature course was elaborated by Dr. Marianna Nikitina and Dr. Adelaida Trotsevich in 1950s and for several decades taught by them in Leningrad State University, Russia (since 1991 –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Now their former students, Dr. Inna Choi and Dr. Anastasia Guryeva continue and develop the teaching and research tradition.

2) This postulate finds its development and multiple illustration in Marianna Nikitina’s research works, including her representative monograph *Ancient Korean Poetry in Relation with Ritual and Myth*, Moscow: Nauka, 1984.

I argue, that due to the above-stated specifics, Korean literature in its essence provides a base for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 paper concentrates on the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to show, that when seen as a part of the philological paradigm its complex character provides its relation with other areas of academic research. These relations have an ambivalent character. Thus, considering historical background, geographical markers, philosophical symbols, and other elements serve a deeper understanding of any regarded text. As well as vice versa – through a profound study of a literary text a researcher obtains new data not only on artistic (philological) features and social issues, but on some not obvious patterns of weltanschauung, mentality, and behavior. Fur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is knowledge as a key to understanding other texts and moreover, culture.

With this regard, the paper aims at examining relations of Korean literature with other fields of study basing on several particular examples. It holds more of practical rather than theoretical character.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ny research should have a theoretical basis and refer to the methods, which a researcher chooses to apply when implementing a research in its multidisciplinary scope. Therefore, we will limit the discussion to several illustrative examples without rendering a scope of theories possible to apply in each case.

In the paper, we will examine a number of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literature basing on three examples of three different groups of Korean literature representing three different periods, i.e., classical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its way to modernity, and contemporary literature:

1. Two representative work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Kim Man-jung's 金萬重(1637-1692) novels *Nine Clouds Dream* (九雲夢) and *Records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謝氏南征記);

2. *Gasa* 歌辭/歌詞poems and *sijo* 時調verse of Late Joseon period;

3. Works of contemporary poet Jeong Hyeon-jong 정현종 (born in 1939);

Let us view each of the examples in detail.

1. Nine Clouds Dream and Records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There is no necessity to introduce Kim Manjung's novel *Nine Clouds Dream*, which is considered one the main literature works of Joseon and Korean pre-modern literature, in general. The story of a Buddhist monk, who fell into doubts and received an opportunity to live a secular life in his dream, then after experiencing all kinds of pleasures and reaching a height of success in all spheres of life, he realized its vanity and wakes up reassured in his choice of life in a monastery. Written in a form of *mongyurok* 夢遊錄 - a record of dream journey - it is a multi-layered work with a variety of applied tools and, therefore, a number of ways to read and perceive it. Consequently, it has been studi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examined in many contexts.

The novel *Records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speaks about Lady Sa and her husband being involved into intrigues and wicked actions of the husband's concubine first making Lady Sa leave the house and wander after allegations against her, and then bringing her husband to a similar situation as he was also slandered. The King learned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and restored harmony.

The following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the novels are important to consider.

1.1. Religion and philosophy are the most obvious aspects.

In the core of the novel, there lies the Buddhist idea and Buddhist symbolism. Like Dream Journeys of earlier times (e.g., Kim Siseup's works), the structure of the work serves a tool applied in order to bring a reader to a realization of life futility with no value of such goals as career, pleasures related to relations with females, or fulfillment of social expectations. As a researcher and a translator of the novel into Russian, Dr. Adelaida Trotsevich shows, the writer applies compositional tools related to Buddhism on several levels of the novel. Tackling on this too broad subject to introduce thoroughly in one paper, we will render just a few examples. Thus, spatial picture of the work can be divided into three spheres in accordance with the Buddhist division into three spheres or three worlds: the world of form, the world of feeling, the realms of formlessness (not pictured, and only implied in the end of the novel as the one having no objects to describe). The names of the male protagonists (Yang So-yu and his Buddhist teacher Yukkwan) trace their roots to a Buddhist origin, whil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female names in the novel serve to depict the male protagonist passing consecutive stages to becoming Buddha. In the final, the nine main protagonists: a male and eight females symbolically form a mandala[3]. These short conclusions are enough to briefly illustrate the relation of the novel to Buddhism and its specifics within Korean culture.

To enhance the idea of the novel, symbolism is applied to the

3) For more detail, see Adelaida Trotsevich, *Medieval Korean Novel*, Moscow: Nauka, 1986 (in Russian).

other dimensions of the text, as well. Thus, the names of female protagonists follow another principle, besides the Buddhist symbolism, i.e. the symbolism of the *I-ching* 易經 (*Book of changes*). Each of eight heroines represents one of the eight hexagrams with their meanings, and they have a corresponding meaning in the male protagonists' life and his way to the final stage of personal development[4].

Unlike in the novel *Nine Clouds Dream*, the protagonists in the novel *Records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belong to the Confucian type. They represent an ideal type of person within the system of the Confucian principles (a loyal servant, a virtuous woman). Notably, throughout the contents of the novel, they preferred to keep their virtues rather than fight against the evil ones and actively overcome the hardships[5].

Thus, the features of the protagonists in the two novels reflect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s of different teachings in Korea.

1.2. Geography

In many literary works, the main idea of the text is developed with the help of a number of means and tools, and space-related symbolic is one among them. Geographical names and directions are commonly used in the work as 'markers', and pre-modern novels are not an exception. *Nine Clouds Dream* is an illustrative example, as understanding of the profound levels of the novel can't be full without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aspect., i.e., tracing the meaning of the geographical names used in the text. First, the names of Buddhist locations in the novel correspond with real Buddhist

4) Ibid.
5) Ibid.

monasteries in China. They have their history and bring a number of associations, which specify the meaning of each place on the protagonist's way. Second, it is possible to trace the routes of the male protagonist's journeys, which are many in the plot. Generally speaking, the directions of his movements correspond with the symbolism of zones in East Asian culture. Thus,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theory (五行說), the East is associated with life, conception, beginning, and the West is the opposite zone, having a relation with death, ending, a finishing point of a cycle. Kim Man-jung makes his protagonist visit different places, and the whole scheme of the directions he takes follows the above logic. Besides, this idea is supported through the seasons in the novel as the events start in spring and end in autumn[6].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ame tool is commonly applied in Korean literature, including contemporary works. Directions and locations often become a symbol serving one of the keys to understanding the work.

1.3. Popular culture of the period

Along with the profound thought in its base, Nine Clods Dream can be taken on another level of perception as a work belonging to popular reading. It is considered to have a plot with no conflict (a trait emphasized in Korean academia[7]), one of its main thematic lines deals with love and relation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ough 'love' as a concept is never mentioned lexically), and it has a

6) Ibid.

7) This feature of the novel was discussed at the Panel dedicated to *Nine Clouds Drea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he Reception of Classics and the Formation of Canons in East Asia", Kyujanggak,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fascinating story with such details as cross-dressing or pranks.

These and other features made *Nine Clouds Dream* a leisure reading for entertainment. The novel has several variants[8], some demonstrating a notable difference with each other. Textual interpolations and other deviations from earlier variants show graduate descend of the novel to the wide readers. Copying the popular work, readers added the parts, which they thought would make it even more entertaining.

As the novel gained its wide popularity, its plot served the base for other forms of expression. One of the examples is the dissemination of such interior decorations as folding screens with scenes from the *Nine Clouds Dream* novel drawn on them[9].

1.4. Gender

Nine Clouds Dream became one of the first literary works with a new representation of female images. The female protagonists in the novel are not only functional figures bestowed with a symbolic meaning of the stages in the male's life (as mentioned above). They are represented with clearly drawn personalities, which are expressed through their actions. Each of the females demonstrates her nature and active position at a certain point in the plot (in accordance with the endowed meaning). It is quite new for Korean literature. Several heroines acting outside of the habitual framework and behavioral patterns can be an aspect to be examined through the gender studies

8) Note the famous dispute between prof. Jeong Gyubok 정규복, who argued that *Nine Clouds Dream* was originally composed in *hanmun*, and prof. Daniel Bouchez (France), who was at the position that the novel was first written in vernacular.

9) For more detail, see a study on them by prof. Jeong Byeongseol. 정병설, 구운몽도 그림으로 읽는 〈구운몽〉서울: 문학동네, 2010.

lenses. The later usage of such images proves the importance of the new representation and shows its regular character. Thus, in later period, literature develops this kind of female images, a playing, but an educated one using literary associations in order to make games and pranks with males. This kind of female holds an active position towards males, this is a female, who is able to express herself freely, who can reproach a male and argue with him. Illustrative examples of these images may be found in vernacular poetry of Late Joseon, e.g., in a popular anthology *Songs of Great Peace at South wind* (*Namhun taepyeong-ga* 南薰太平歌) comprising the most popular verse of Joseon period[10].

As was explained above, the second novel represents Confucian virtues. The plot demonstrates personal traits characteristic for each of the ideal types in the novel, i.e., a loyal servant, a virtuous woman. The novel discovers the perception of the model behavior specific as it should be in various situations for the above types. The role of the concubine is emphasized. Besides,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rotagonists can be found in other works of Korean literature, including contemporary plots.

1.5. Politics

The novel *Record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was written by Kim Manjung as a reaction to the decision of king Sukjong to send away his wife Queen Inhyeon and to appoint his son from his consort a crown prince. Metaphorical critics belong to a tradition of political protest in East Asian literature, which was developed

10) The comparison of female images in *Nine Clouds Dream* and verse may be found in the author's publication: 구리예바 A.A., 구운몽과 남훈태평가의 여성인물, 그 비교의 일면문학과 해석, 가을, 2013.

peculiarly in Korean literature. The parallels in the plot are obvious enough and yet, the author creates a fascinating story. Without understanding the political background, it is impossible to grasp the meaning of the work. Likewise, the novel and the other examples of metaphoric critics and literary forms of protest add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political culture in Korea.

2. *Gasa* poems and *sijo* verse of Late Joseon period

To give a short introduction, this is a period when various genre transformations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ity and prepared literature for the large-scale shift, transforming to the contemporary forms.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genres in prose (novel, biographical genre *jeon* 傳etc.) and poetry, both in *hanmun* (*hansi* 漢詩) and vernacular verse (*sijo, gasa, japka* 時調, 歌辭/歌詞, 雜歌) there appear new forms demonstrating a wide scope of new phenomena. This period remains less studied than earlier periods of Joseon associated with classical forms and the most famous authors.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we chose this particular period to illustrate the multidisciplinary character of Korean literature.

Below we trace and shortly comment on the multidisciplinary aspects one can approach through the Late Joseon *gasa* and *sijo* as well as Late Joseon literature in general. Moreover, these are the aspects one should consider when studying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not to be shallow in the research conclusions. *Gasa* of the period may be classified in several groups, i.e., *gasa* 歌辭produced by intellectual elite (classical form), gasa of new thematics: *gihaeng-gasa* 紀行歌辭 (travelogues) and *gyubang-gasa* 閨房歌辭 (female *gasa*). A separately formed type is so-called musical *gasa* 歌詞 (a genre

transformation in which the melody prevails serving the base for the text). Sijo also undergoes genre transformations, and there appears a new form of *saseol-sijo* 辭說時調 – narrative sijo (or *jang-sijo* 長時調or *long sijo*).

2.1. Society

There are various social aspects to be traced basing on the material of Late Joseon vernacular poetry. Due to the widening of the readers' audience, and the consecutive widening of the authorship, the new kinds of texts of the period demonstrate essential changes compared to classical poems. One of them is entering of everyday life scenes and other elements into vernacular verse. Figures of ordinary people - artisans, merchants, hunters become objects of depiction. Therefore, examining the texts may reveal related specifics of lives and relations of different social strata.

Sociology of readership affects not only textual features, and there are many extra-literary aspects to discuss.

One of the important ones is relation of this poetry to the process of city culture formation. This issue is actively studied by Korean scholars[11], but has not been analyzed as an object of research in Western academia. City formation is classified in several periods and it covers Late Joseon society multi-dimensionally. A phenomenon associated with city culture is the development of so-called *pungryu* 風流. Within the context of the discussed stage of Korean culture, the term stands for gatherings of people enjoying performing arts, mainly music and singing by *kisaeng*. The performed material was predominantly represented by the genres of vernacular verse.

11) 김학성, 18-19세기의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한국시가연구, 11. 서울, 2002. 5-28쪽.

Ambivalently, the popularity of the texts among *pungryu* circles resulted in new trends in verse and influenced the specifics of the genre transformation development.

2.2. Heritage studies/Colonial studies

This subject leads to the consideration of heritage related issues. A block of questions to consider concerns the dissemination of the above verse genr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rst, this is such activities, as collection, research and republishing of the texts by Japanese (both in Korea, and Japan)[12]. Secondly, one may consider the activities of research,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texts by Koreans[13]. Third, Japanese organized performing activities of *kisaeng*[14]. The fourth issue is the activities related to preserving the performing tradition, appointing official keepers of the tradition by Koreans. Besides, *sijo* and *gasa* became the first objects to be recorded in Korea (e.g., by *Nippophone* recording company)[15]. These issues may be also approached as a part of Colonial studies.

2.3. Gender

Many texts of Late Joseon vividly illustrate the variety of gender issues. Females' participating in not only reading activities, but in composing vernacular texts, serve the development of new subjects in

12) Regarding this issue, see 노경희, 일제강점기 경성 거주 일본인의 한국학 고문헌 연구 활동서지학보, 서울: 한국서지학회 №35. 2010.6.

13) See, for example, Anastasia Guryeva,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Poetry in Vernacular in Colonial Korea",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Seoul, 2013.

14) 권도희한국근대음악사회사, 서울: 민속원, 2004.

15) Ibid.

the texts. In turn, the texts represent new images of females[16]. Love and separation are not the only subjects one may find in the texts. Women more commonly become an object of depiction, and enter texts as participants of dialogues, speaking to both their beloved ones, and a variety of other people as a part of street and market scenes. The role of females as performers of these texts should be also considered.

2.4.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1) contacts with westerners

Travelogues *gihaeng gasa* appeared in the period prior to Late Joseon. At the same time, this was Late Joseon, when the texts turned their attention to foreigners as objects of depiction. The poets fix their impressions after meeting westerners, and the perception of foreign reality. In Asian academia, the texts dealing with travelling to Peking form a special area of study.

(2)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s

The poets travel abroad often with a diplomatic mission. This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also the background history behind the texts themselve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is the famous *Song of Travelling to Japan* (*Ildong janyu-ga* 日東壯遊歌) by Kim In-gyeom 金仁謙(1707-1772). As is widely known, the author was invited to Japan to take part in the poetry competition organized in Edo. This kind of facts is to be considered as a sign of a certain level of relations and involvement of Korean officials in international events.

16) This issue is studied in 최규수,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에 나타난 여성인물상의 특징적 경향과 의미한국여성문학연구 12. 서울, 2006. 290-317쪽.

The process of readers' circles widening influenced the publishing activity. There are new types of editions worked out and disseminated in Late Joseon period. First, as representative of the lower classes enter reading circles, commercial editions came into being. Cheap books able to meet the taste and financial abilities of new readers required new methods of book editing and dissemination (e.g., low-price block-prints 坊刻本*banggakbon*). Peculiarly, book-shops could not be successful in Korea, while book lending shops became a popular form of commercial activity in Late Joseon. This issue relates to both poetry and novel.

3. Works of contemporary poet Jeong Hyeon-jong

Jeong Hyeon-jong is a profound author popular among Korean intellectuals. Besides, he introduced Korean readers with works of Latin American authors and received Pablo Neruda Prize for translation activity. As he explained, in his earlier works he pursued experiment, but later turned towards tradition[17]. His poems are complex, their laconism calls for various interpretations. Below we will give an overview of multidisciplinary aspects to trace in the poet's works.

3.1. Religion and thought

The works of Jeong Hyeon-jong,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serve models of complex intertextuality

17)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prof. Jeong Hyon-jong during the interview, which he gave to the author of this paper in May,1998. We express our gratitude for this opportunity.

and a multilayered structure. In particular, this also concerns a combination of interweaved elements tracing their roots to different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Namely, some of his texts contain elements related to Christianity, and elements related to Taoism. Especially in later works, the poet opposes life at the Nature's bosom to the city life. To express this idea, he may use allusions to a recluse poet of ancient China Tao Yuan-ming 陶淵明 and use abstract symbolism which can be understood only through attentive reading. There are cases, when the elements of the two kinds meet and form different layers within one poem. E.g., in the poem "Tenderness of Things" (사물의 정다움*Samul-eui jeongdaeum*) one can trace a Taoist idea of the importance of the wholeness of things. In the same poem, the author uses elements relating to Christianity ranging from a concept (salvation구원), or a citation (e.g. vanity of vanities헛되고 헛됨) to the general vision[18].

3.2. Politics

In his youth years, Jeong Hyeon-jong studied from Ham Seokheon 함석헌(1901-1989)[19], a famous activist and a teacher of youth. Influenced by his ideas, Jeong started his poetical activities expressing his political protest against Pak Chung-hee. The poet uses symbolism and indirect critics applying traditional models. The texts are also informative on the facts what aspects of Pak Chung -hee's activities were perceived negatively by intellectuals.

In the later works, namely, poems of the 1990s, Jeong Hyeon-jong also touches upon political issues. Among others, he speaks of the

18) For the original text see 정현종, 고통의 축제, 서울: 민음사, 2002, 14-15쪽.
19) Ibid.

nuclear issue. E.g., in the poem “With the help of beauty” (*Areumdaumeuro*아름다움으로) he suggests an aesthetic means of protection. It is important to produce culture and arts, something which everyone would wish to keep and value, and this will be the best fortress built of beauty[20].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to demonstrate a political dimension of the works by the particular poet. There are varieties of issues raised in contemporary poetry. Besides, it is poetry, which becomes an aesthetic weapon to protect one’s rights and a means of fighting.

3.3. Environment

Jeong Hyeon-jong’s care for Nature is a part of his views and active position, shared in his poetical works. Some poems contain explicit and emotional exclamations combined with philosophic elements. In some texts, environmental motifs are expressed implicitly, and are closer to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Nature and a human as its integral part, rather than to contemporary specified trends. Thus, in the poem “Blue skies” (*Pureun haneul* 푸른 하늘)[21], he chooses such Nature inhabitants as birds and trees as his counterparts to discuss the catastrophic situation, when “There is no blue skies above contemporary people”. The poet places himself in the same position as other elements of Nature, actually being closer to understanding the core principles of life than other humans. This position of a human equal to any other small element in Nature (insect, plant etc.) is rooted in traditional vision of the world and can be found in pre-modern Korean literature. One of representative examples is poems of Yi Kyubo (이규보,1168-1241)[22].

20) 정현종, 갈증이며 생물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60쪽.
21) Ibid, p. 41-43.

In his poem “” (*Maeumeun Tteongnip* 마음은 떡잎)[23], the poet alludes to Tao Yuan-ming’s (陶淵明, 365-427) *The Peach Blossom* (桃源) and refers to concepts of a Taoist character (e.g., speechlessness) in order to show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city and Nature, emphasizing the truth and life in the latter. This opposition is of a different kind with those in East Asian thought – the interrelation of city and Nature can’t be harmonic, and they do not complement each other. This text holds a similar structure with a *sijo* of an unknown author with a boy character related to a Taoist immortal[24]. The fact, that the author depicts a young boy as the one “keeping silence” (a symbol of true knowledge) – just as in the *sijo* - in opposition to the bustling of an “uncle from city”, gives hope for the future generation.

4. Conclusion

This is impossible to explore the vast issue stated in the title of the paper within one particular research. Above, the illustrations of a complex character of Korean literature works served to show the importance of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examining the subject. At the same time, we saw that literature can make an impact on the better understanding of various processes and social phenomena.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se complex aspects, understanding of the examined works can’t be full. Each line, each image is to be

22) Adelaida Trotsevich,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o the end of the 19thcentury*, Saint Petersburg: Saint Petersburg State Unviersity Press, 2004. P. 79-80.

23) 정현종, 갈증이며 생물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38-39쪽.

24) 구리예바 A.A., 조선후기의 대화구성법 시조 -『남훈태평가』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0집, 한국문예비평학회, 서울, 2009. 346쪽.

analyzed in relation with the context, and the context is a unique combination of factors and interrelations. Philological approach with its paying the value to the textual analysis enables one to consider the complex factors staying on the multidisciplinary side. Meanwhile, treating literature only as an auxiliary tool for understanding social issues without a close study of the text and extra-textual characteristics would minimize the result to scratching the surface only. Depending on the goals of the research, a scholar can choose a focal point to study, but should not neglect other aspects constituting the whole of the text and its interrelations with other areas. This method complies with contemporary approaches preferring interdisciplinary vision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a profound study.

| Bibliography

김학성, 18-19세기의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한국시가연구, 11. 서울, 2002. 5-28쪽.

구리예바 A.A., 구운몽과 남훈태평가의 여성인물, 그 비교의 일면문학과 해석, 가을, 2013.

구리예바 A.A., 조선후기의 대화구성법 시조 -『남훈태평가』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0집, 한국문예비평학회, 서울, 2009. 331-353쪽.

권도희한국근대음악사회사, 서울: 민속원, 2004.

노경희, 일제강점기 경성 거주 일본인의 한국학 고문헌 연구 활동서지학보, 서울: 한국서지학회 №35. 2010.6.

정병설, 구운몽도 그림으로 읽는 〈구운몽〉서울: 문학동네, 2010.

정현종, 고통의 축제, 서울: 민음사, 2002. 정현종, 갈증이며 생물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최규수,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에 나타난 여성인물상의 특징적 경향과 의미한국여성문학연구 12. 서울, 2006. 290-317쪽.

Anastasia Guryeva,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Poetry in Vernacular in Colonial Korea”,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Seoul, 2013.

Adelaida Trotsevich,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aint Petersburg: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Press, 2004.

Adelaida Trotsevich, *Medieval Korean Novel*, Moscow: Nauka, 1986 (in Russian).

Marianna Nikitina, *Ancient Korean Poetry in Relation with Ritual and Myth*, Moscow: Nauka, 1984.

<Abstract>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DISCUSSING THE ISSUE OF RESEARCH APPROACHES

Anastasia GURYEVA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The paper aims at discussing Korean literature as a research subject in relation with its multidisciplinary character and examines relations of Korean literature with other fields of study basing on certain examples. A number of multidisciplinary aspects is traced in three examples of three different groups of Korean literature representing three different periods.

For the variety of illustration, we chose the works to examine from classical literature, namely prose, from classical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namely new types of Korean vernacular verse formed in 18-19 cc., and from contemporary literature, namely poetry. These are two novels by Kim Man-jung's 金萬重(1637-1692) (*Nine Clouds Dream* (九雲夢) and *Records of Lady Sa's Trip to the South* (謝氏南征記)), *gasa* 歌辭/歌詞 and *sijo* 時調verse of Late Joseon period, and works of contemporary poet Jeong Hyeon-jong 정현종 (born in 1939). Using these examples, the paper traces such aspects as religion and philosophy, geography, gender,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society, environment, heritage, colonial studies book culture, popular culture, etc.

The autho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philological approach and textual analysis enables one to consider the complex factors staying

on the multidisciplinary side. Depending on the goals of the research, a scholar can choose a focal point to study, but should not neglect other aspects constituting the whole of the text and its interrelations with other areas.

학술지 규정

학술지 발간 규정

1.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중앙유라시아한국학』(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으로 한다.
2. [목적 및 성격] 본 학술지는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기관지이자 유럽과 중동 CIS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반 한국학 관련 연구를 수렴하는 국제 학술지로서, 세계 한국학 제반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발간] 『중앙유라시아한국학』은 연 1회, 정기(3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1회 발간 시에 10여 편 내외의 논문을 수록하며,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 게재 예정 논문의 편수가 기준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특정 논문을 다음 호에 수록할 수 있다. 발간 연기 논문의 선정은 게재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투고] 학회지 게재를 위한 논문 투고는 상시 허용하되, 정기 발간일 2개월 전인 1월 31일에 투고 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논문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4. [편집위원회 구성과 심사] 학회지 게재 논문은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무, 자격 및 선출 절차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논문 심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것은 심사 규정을 따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구성 및 임무]
   ⑴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⑵ 편집위원의 수는 6인 이상 12인 이하로 한다.
⑶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⑷ 편집위원회는 『중앙유라시아한국학』의 편집, 투고 논문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⑸ 편집위원회 예하에 편집간사를 위촉하여 학회지 발간과 관련한 연락 및 제반 업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⑹ 편집위원회의 최초 구성은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임교수진의 전원회의를 통하며, 이후의 위원회 구성은 편집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한다.

2. [자격 및 선출]
⑴ 편집위원은 제반 한국학의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로 한다.
⑵ 편집위원의 수는 역사, 문학, 어학, 사회, 예술 등 한국학의 각 분야별 전공자가 1인 이상, 유럽과 중동 CIS지역 등 지역별 인사가 1인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며, 각 분야 및 지역 전공자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한다.
⑶ 편집위원은 위원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임교수 중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⑷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편집회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45일 전에 제반 의결 사항의 논의를 위하여 정기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그 외 각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 규정

1. [심사 대상] 『중앙유라시아한국학』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심사 주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 진행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3. [심사의 절차]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1단계: [요건심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학회에서 정한 투고 논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 심사 및 논문 유사도 검사 등 요건심사를 진행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반려한다.

2단계: [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추천] 편집위원들은 요건심사를 통과한 각각의 투고 논문에 관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심사위원의 추천은 관련 전공학자 중 연구업적과 학술역량이 탁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추천된 심사위원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기준]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으로 발행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라야 한다.
   ⑵ 문제나 방법, 결과 면에서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 논의를 재정리한 수준의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⑶ 적절한 근거와 정합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증의 과정 없이 주장만이 제시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⑷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재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논지 전개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필요한 주석 등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평가항목과 점수] 논문 심사 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6	8	10	12	14	16	18	20	심사 세부 사항
주제의 독창성									방법론이나 문제의식이 참신한가? 연구 내용 및 결과가 독창적인가?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 방법론이 적절한가?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론을 고려하였는가?
논리전개의 타당성									논증 과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자료가 적절하며 엄밀한 검증을 하였는가?
체재의 완결성									규정에 명기된 논문 체재를 잘 따랐는가? (국문 · 영문 초록, 주석, 참고문헌 등)
학문적 기여도									세계의 한국학 연구에 기여하였는가?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가?
총점									100~90점: 게재 89~80점: 수정후게재 79~70점: 수정후 재심, 69점~: 반려

6.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게재(90~100점)',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70~79점)', '반려(0~69)'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 후 심사 소견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심사논문 관리기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관리하고,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대로 게재한다.
②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반려'의 판정을 따른다.
③ 심사위원 3인 중 1인으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으로 판정한다.
④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의 판정을 따른다.

⑤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⑥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따른다.
⑦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따른다.
⑧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따른다.
⑨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따른다.
⑩ 1차 판정 결과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수정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 권고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⑪ 1차 판정 결과 '반려'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반려' 사유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⑫ 1차 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신중한 심의를 거쳐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또는 '반려'를 결정한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은 논문은 ⑩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반려' 결정을 받은 논문은 ⑪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4. [기타]
⑴ 투고 신청서, 심사 소견서. 재심의서 등의 양식은 따로 정한다.
⑵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투고 요령

1. [논문의 범위] 본『중앙유라시아한국학』에는 제반 한국학 분야의 원고 중 학술논문만을 게재하며 학술 원고의 번역이나 학술 저서의 리뷰 등은 게재하지 않는다.
2. [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및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한국학 연구자에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여타 지역 및 전공의 연구자도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의 작성]
   ⑴ 투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고논문을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단, 인명이나 지명 또는 혼동하기 쉬운 경우 등 필요시 ( ) 안에 한자나 기타 언어를 병기하되, 한문이나 기타 언어 등 원문을 인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 영어로 작성 시에 한국어를 제외한 동아시아 언어의 로마자 표기는 일본어의 경우 Hepburn, 중국어의 경우 Pinyin을 사용한다.
   ⑵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그 분량을 한국어 논문 기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영어 논문 기준 6,000~10,000단어로 한다. 기준 분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경우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⑶ 논문의 체재는 제목, 저자명, 차례, 논문 개요,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⑷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⑸ 공동논문의 경우 교신저자와 제1저자,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⑹ 논문 개요와 영문 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명시한다. 한국어 초록은 글자 수(띄어쓰기 포함) 800~1500자, 영문 초록은 200~500단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반드시 영문 초록을 작성한다.
   ⑺ 논문투고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을 별지를 이용하여 밝혀야 한다.
   ⑻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저자명, 학술지명, 논문명, 해당권호, 발행기관, 발행시기, 해당 페이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

는 반드시 논문 수록 학술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⑼ 원고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크기 : A4(210×297mm)

② 용지여백 : 위·아래 20, 왼·오른쪽 15, 제본 0, 머리말 10, 꼬리말 15

③ 줄 간격 : 한국어 1.6, 영어 2.0(각주: 한국어 1.3, 영어 1.0)

④ 한국어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신명조
영어 글자 모양: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Times New Roman

⑤ 문단 모양 : 왼·오른쪽 0, 들여쓰기 2(각주 -3, 인용 3)

⑥ 항목 번호 부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논문

1.
1.1.
1.1.1.

㉡ 영어 논문

I.
1.
(1)

⑦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강조 및 인용 표시
강조 : ‘ ’
직접인용 : “ ”

·출판물(논저) 표시
㉠ 한국어 논저
논문 : 「 」
단행본 및 학술지 : 『 』
㉡ 영문 논저
논문 : “ ”
단행본 및 학술지 : 이탤릭체로 표시

⑧ 주석(각주)은 다음과 같은 체재를 따른다.

㉠ 한국어 논저(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국어 논저의 인용 정보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1) 소논문

서대석,「한국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국어국문학』101, 국어국문학회, 1989, 7~9쪽.

2) 학위논문

조홍윤,「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7~61쪽.

2) 저서

조동일,『한국문학통사』3, 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468~469쪽.

3) 동일 문헌의 연속 인용

같은 책, 420쪽.

같은 논문, 371쪽.

4) 앞에 인용된 문헌의 재인용

서대석, 앞의 논문, 20쪽.

조동일, 앞의 책, 311쪽.

㉡ 영문 논저

1)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pp.32-35.

2) Robert A. J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1969, p.327.

3) *Ibid*., pp.329-330.

4) Albert B. Lord, op. *cit*., p.38.

㉢ 기타 언어 논저 : 기타 언어 논저는 영문 논저의 형식을 따르되 한국어를 제외한 동아시아 언어는 로마자 표기로 바꾸어 ( ) 안에 영문 번역을 표기한다.

⑨ 참고문헌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기본 자료, 한국어 논저, 영문 논저, 여타 언어 논저, 기타(웹 사이트 등)의 순서로 단을 바꾸어

작성하며, 저자명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 저자명, 논문명, 게재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출판연도,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

저서: 저자명, 저서명, 출판 도시: 출판사명, 출판연도

㉠ 한국어 논저(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국어 논저의 참고문헌은 한국어로 표기한다.)

〈논문〉

김대행,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15, 한국구비문학회, 2002, 1~30쪽.

조희웅, 「설화의 유형 분류」, 『설화문학연구』(상),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351~370쪽.

박경신,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80쪽.

서대석, 「한국서사문학에 나타난 한」, 『문학과 비평』 1권 4호, 한국문학비평학회, 1987, 298~305쪽.

〈저서(자료집 포함)〉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월터 J. 옹 지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영문 및 기타 언어 논저

〈논문〉

Alan Dundes, “The J.A.P. and the J.A.M. in American Jokelor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98. No.390, 1985, pp.456-475.

Felix J. Oinas, “Folk Ep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p.75-93.

〈저서(자료집 포함)〉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Daniel P. Biebuyck, *Hero and Chief,*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기타 언어 논저: 기타 언어 논저는 영문 논저의 형식을 따르되

한국어를 제외한 동아시아 언어는 로마자 표기로 바꾸어 (　　) 안에 영문 번역을 표기한다.

4. [원고의 제출] 원고 파일을 학술지 투고용 이메일인 info@iukorean.net으로 제출한다. 제출 마감은 매년 3월 31일(5월 31일 간행)로 한다. 투고시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을 적시한 별지 파일을 첨부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본 학술지 『중앙유라시아한국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학술 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투고자 의무) : 본 학술지의 투고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상임 위원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2. 임시 위원 : 사안에 따라 위촉

제5조(위원의 선출) : 위원의 선출은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1. 위원회 상임 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자 중,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임시 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윤리 위반 사례) :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附議)할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위조, 변조,

표절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그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위조 : 타인의 논문 명의를 자신의 논문 명의로 바꿔 게재하는 행위
* 변조 : 타인의 국문저서나 논문에서 제출된 주장을 도용하여 자신의 논문

으로 바꿔 게재하는 행위,

외국 저서나 논문에서 제출된 주장을 도용하여 자신의 논문으로 바꿔 게재하는 행위, 자신의 기존

저서나 논문에서 제출된 주장을 도용하여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꾸며 게재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기존 저서나 논문, 자신의 기존 저서나 논문에서 인용 부호를 사용함이 없이 연속적으

로 여섯 구절 이상을 도용하는 행위, 외국 저서나 논문에서 인용 부호를 사용함이 없이 연속적으로

여섯 구절 이상을 번역하여 도용하는 행위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않은 원저자의 보유 자료,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경우

4)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7조(심사 절차) : 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윤리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외부의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회는 필요시에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5)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

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

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7) 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윤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8)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

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9)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 심사 개시 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 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에 참가한 윤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징계) : 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학술지 투고 제한
2. 학술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5. 학술지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시
6.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7. 편집위원회에 공개 사과문 제출

제10조(후속 조치) :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 이루어진다.

제11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Journal Regulations

Journal Publication Regulations

1. [Name] The name of this journal is 『중앙유라시아한국학』(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2. [Purpose and Characteristic]This journal is a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Istanbu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stitutional journal that collects research on Korean studies from Europe, Middle East, and the CIS. This journal aims to introduce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round the world and aims to raise new awareness of new issues regarding Korean studies.
3. [Publishing]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will be published annually on May 31st. It will contain around 10 theses, and if the number of theses scheduled for publication exceeds 10 by a significant number, some theses may be included in the next issue. The selection of theses that will be published in the next issue is based on the confirmed date of publication.
4. [Submission] Theses submission for journal publication is always allowed, but the submission deadline for the upcoming issue is March 31st, which is 2 months before the regular publication date. All matters related to theses submission follow the theses submission regulations.
5. [Composition of the Editorial Committee and Review] Submitted papers go through a strict review process. An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review process. The editorial committee composition, duties, qualifications, and election procedures follow the editorial committee regulations. The theses review and methods follow the review regulations.

Editorial Committee Regulations

1. [Composition and mission]
   (1) The editorial committee consists of the editor-in-chief and other editors.
   (2) The number of the editorial committee is 6~12.
   (3) The term of office of the editorial committee is 2 years and committee members can be re-elected.
   (4)The editorial committee supervises all matters related to the editing, reviewing, and publishing of theses submitted to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5) An editorial secretary, under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elect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all communication and affairs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6) The initial composition of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made through a plenary meeting of the full-time professor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Istanbul University. The subsequent compositions shall be made through the meeting of the editorial committee.

2. [Qualification and Election]
   (1) The editorial board shall consist of members who are academics with high internal and external reputation in the area of Korean studies and those who have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s in the area of Korean studies.
   (2) The editorial committee must consist of at least 1 person in each field of Korean studi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history, literature, language, social studies, and art. Also, the committee must consist of at least one person form each region such as Europe, Middle East, and the CIS regions. The ratio of committee members from each area and region must

be evenly distributed.

(3) The editors are appointed by the editor-in-chief through a plenary meeting of the committee. However, at least one full-tim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Istanbul University must be included.

(4) The editor-in-chief is elec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3. [Editorial Committee Meeting] The editorial committee regularly convenes 45 days before journal publication to discuss matters regarding publication. In addition, a temporary editorial meeting may be conve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editor-in chief to discuss agendas submitted by editorial committee members.

Review regulations

1. [Review subject] All theses submitted to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must undergo strict review.

2. [Reviewer] The review process for submitted theses is carried out by the editorial committee.

3. [Review process] The editorial committee carries out the thesis review according to the procedure below.

Step 1: [Requirement Review] The editorial committee conducts a review on requirements such as compliance with the thesis submission requirements and compliance with plagiarism standards. Theses that have not passed the requirements are rejected.

Step 2: [Selection criteria for reviewers and recommendation] Editorial committee members recommend reviewers that can professionally review the submitted theses that have passed the requirement review. Only academics studying related areas with excellent research achievements and high academic competence should be recommended.

Step 3: [Selection and review by reviewers] Three reviewers who are judged to be the most suitable among the recommendations are selected and requested to review the submitted theses.

4. [Review Criteria]For the thesis to pass the review,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⑴The thesis must be a new manuscript that hasn't been published in other academic journals or books.
   ⑵ The thesis must contain new perceptions of problems, methods and results that have not yet been reported to the academic community. Manuscripts that are still at the level of reorganizing existing discussions are not accepted.
   ⑶ Arguments must be based on appropriate evidence and consistent reasoning. Manuscripts that only present arguments without evidence will not be accepted.
   ⑷ The manuscript must have a complete academic format. Manuscripts that do not have a proper and logical argumentative framework and those that lack appropriate footnotes will not be accepted.

5. [Review criterion and scoring] The specific criterion and scores awarded for thesis review are as follows.

Points / Category	6	8	10	12	14	16	18	20	Review criterion
Originality of the subject									Is the methodology or problem suggestion original? Are th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original?
Suitability of the research method									Is the research methodology appropriate? Has the required methodology been considere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development									Is the argument logical and reasonable? Is the data appropriate and rigorously verified?
Compliance with standards									Have the standard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been followed? (Korean and English abstracts, annotations, references)
Academic contribution									Has the paper contributed to the world's research on Korean studies? Does the paper promote related research?
Total									100~90: Published 89~80: Published after revision 79~70: Reviewed again after revision, 69~ : Rejected

6. [Reviewer's duties] The reviewers score the requested theses by each category and submit the score (100~90: Published, 89~80: Published after revision 79~70: Reviewed again after revision, 69~: Rejected) together with their remarks to the editorial committee within the specified deadline.

7. [Standards for managing the review thesis] The editorial committee manages the theses submitted to the journal and makes decisions on whether to publish the theses according to the review results. The publishing standard is as follows.

①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decision by all reviewers shall be published.

②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rejected" decision by 2 or more reviewers shall be given the "rejected"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③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rejected" decision by 1 reviewer out of 3 shall be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④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published"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each reviewer shall be given the "published"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⑤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published" "reviewed again after revision" decision by each reviewer shall be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⑥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published after revision"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each reviewer shall be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⑦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published after revision" "reviewed again after revision" decision by each reviewer shall be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⑧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published after revision" "reviewed again after revision" decision by each reviewer shall be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⑨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reviewed after revision" "reviewed again after revision" decision by each reviewer shall be given the "reviewed after revision" decision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⑩ Regarding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decision,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decide on what needs to be revised and inform the contributor. The thesis will be published only if the revision recommendations have been implemented faithfully. Contributors

that have been given the "published after revision" may attach their views on the recommendations for revision. But, if the committee decides that more time is required to revise the thesis, the editorial committee may postpone the publishing of the thesis until the next issue.

⑪ Regarding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rejected" decision, the editorial committee reviews the reasons for the rejection and the contributor is notified of the reasons for rejection.

⑫ Regarding theses that have been given the "reviewed after revision" decision, the editorial committee, after careful deliberation, gives their decision on whether the thesis will be "published after revision" or "reviewed after revision" or "rejected". Theses that have received the "publish after revision" or "reviewed after revision" will follow procedures laid out in ⑩ while theses that have received the 'rejected' decision will follow procedures laid out in ⑪.

4. [Misc]

(1) The format of the submission application form, review opinion form, and the revision form are determined separately.

(2) Other matters are decided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editorial committee.

Thesis Submission Regulations

1. [Thesis scope] Only academic theses in the Korean studies field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tral Eurasia. Translations of academic manuscripts and academic publication reviews shall not be published.
2. [Qualifications for submission] Submissions are limited to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and/or Central Eurasia. However, research regarding other regions may be published after the review of the editorial committee.
3. [Thesis regulations]
   ⑴ Contributors must submit their papers in Korean or English excluding special cases. However, if necessary, easily confused terms such as places and names may be referred to using parantheses ( ) in their original languages. Cases where original texts in Chinese and other languages are cited are excluded. When the paper is written in English, Hepburn must be used when romanizing Japanese and Pinyin must be used when romanizing Chinese.
   ⑵ The thesis shall be written using a word processor. The quantity should be between 6000~10000 words for English theses and around 150 pages of 200 character manuscripts for Korean theses. The thesis may be rejected if the quantity of the thesis is significantly below or above the requirements.
   ⑶ The order of the theses should be as follows: Title, author's name, table of contents, abstract, main text, references, and an English abstract.
   ⑷ Rejected theses can not be resubmitted.
   ⑸ In joint papers, the corresponding author, the first author, and the co-author must be identified and the email address of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be stated.

⑹ At least 5 keywords must be stated in the thesis abstract and the English abstract. The Korean abstract should be between 800~150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and the English abstract should between 200~500 words. An English abstract is required even if the paper is written in Korean.

⑺ The thesis contributor must disclose the contributor's name affiliation, position, and email address using a separate document.

⑻ Bibliography with complete references (author name, journal name, thesis name, volume number, publishing institution, publication date, page number etc.) must be provided. If a thesis is referred to, the page of the journal containing the thesis must be specified.

⑼ The submission format is as follows:

① Paper size : A4(210×297mm)

② Paper margin : Top/Bottom 20, Left/Right 15, Binding 0, Header 10, Footer 15

③ Line spacing: Korean 1.6, English 2.0(footnotes: Korean 1.3, English 1.0)

④ Korean font requirements : Horizontal letter scaling 100, letter spacing 0, size 10(footnotes and quotations 9), 신명조

English font requirements: Horizontal letter scaling 100, letter spacing 0, size 10(footnotes and quotations 9), Times New Roman

⑤ Paragraph shape : Left·right 0, indent 2(footnotes －3, quotations 3)

⑥ The order of item number assignments are as follows.

㉠ Korean theses

1.

1.1.

1.1.1.

㉡ English theses

I.

1.

(1)

II.

⑦ The symbol system is as follows.

·Highlights and citations

Highlights : ‘ ’

Citations : “ ”

·Publications(theses)

㉠ Korean publications

Theses : 「 」

Books and journals : 『 』

㉡ English publications

Theses : “ ”

Books and journals : In italics

⑧ Comments (footnotes)

㉠ Korean publications (Even when writing an English thesis, citation information for Korean publication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1) Article

서대석, 「한국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1989, 7~9쪽.

2) Theses/Dissertation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7~61쪽.

2) Books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468~469쪽.

3) Continuous citation of the same document

같은 책, 420쪽.

같은 논문, 371쪽.

4) Re-citation of a previously cited publication

서대석, 앞의 논문, 20쪽.

조동일, 앞의 책, 311쪽.

㉡ English publications

1)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pp.32-35.

2) Robert A. J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1969, p.327.

3) *Ibid*., pp.329-330.

4) Albert B. Lord, op. *cit*., p.38.

㉣ Publications in other languages : Publications in other languages should follow the format of English bibliographies. However, publications with East Asian titles (excluding Korean) should be romanized. Also, the titles should be translated to English and written in parantheses () next to the romanization.

⑨ Bibliography

The bibliography should be written in the order of basic data, Korean publications, English publications, Publications in other languages, others (web sites etc) while changing paragraphs per reference. References should be ordered from A~Z in the order of the author's name.

Theses: Author's name, name of theses, name of journal, volume number, publisher, publication year, cited page

Publications: Author's name, name of publication, publication city: publisher name, published year

㉠ Korean publications (Write citation information in Korean even when English publications are cited)

<Theses>

김대행,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15, 한국구비문학회, 2002, 1~30쪽.

조희웅, 「설화의 유형 분류」, 『설화문학연구』(상),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351~370쪽.

박경신,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80쪽.

서대석, 「한국서사문학에 나타난 한」, 『문학과 비평』 1권 4호, 한국문학비평학회, 1987, 298~305쪽.

<Publ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pamphlets)>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월터 J. 옹 지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Publications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Theses>

Alan Dundes, “The J.A.P. and the J.A.M. in American Jokelor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98. No.390, 1985, pp.456-475.

Felix J. Oinas, “Folk Ep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p.75-93.

<Publ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pamphlets)>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Daniel P. Biebuyck, *Hero and Chief,*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Publications in other languages: Publications in other languages should follow the format of English. However, publications with East Asian titles (excluding Korean) should be converted to English and written in parantheses ().

4. [Submission of thesis] Submit manuscript files to info@iukorean.net (journal submission email). The submission deadline is January 31 every year (published on March 31). Attach a separate file indicating the contributor's name, affiliation, position, and e-mail address when submitting a manuscript.

Research Ethics Committee Regulations

Article 1(Purpose) :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to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thics committee) and to establish the research ethics of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Eurasia.

Article 2(Function) : The committee examines the violation of academic research ethics and reports the results to the editorial committee.

Article 3(Obligation of contributors) : Contributors to this journal must comply with academic regulations and faithfully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a researcher by pursuing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their research.

Article 4(Composition of the Ethics Committee) : The composition of the ethics committee is as follows.

1. Standing Members
    1) Chairman : 1
    2) Committee members : Within 10
2. Temporary members : Chosen when needed

Article 5(Election of members) : 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follows the following process.

1. The standing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chosen among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editor-in-chief and the approval of the editorial committee. The ethics committee chairman is elected from among the committee members.
2. The term of office of the standing members is two years, and re-election is possible.
3. Temporary members are chosen by the Ethics Committee, and their term of office shall automatically expire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matter they were elected for has ended.

Article 6(Ethics violation case) : The following are the violations that will be judged by the ethics committee.

1) In case of forgery, modification, or plagiarism by stealing others' or one's own research results as new research results: The act of forgery, modification, and plagiarism are defined as follows, but the final decision on the act i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 Forgery: Publishing another person's thesis as your own paper
* Modification: Stealing the arguments in others' publications or theses and publishing it as one's own theses regardless of the original language and using one's own argument from a previous publication and theses and publishing it as a new thesis
* Plagiarism: The act of using more than six sentences without quotation marks from others' publications and these or one's own publications and theses regardless of the original language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sentences have been translated..

2) Unauthorized use of the original author's ideas, logical process, unique terms, data, and analytic system even if unpublished
3) When a person who has not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the research is posted as a co-author
4) When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moral defect in the initia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5) Intentional degrading and/or concealing of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emphasize the finding of one's own research

Article 7(Review procedures) : The ethics committee's review follows the following procedures.

1)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by the ethics committee is done by the chairman's request for review, committee's request for review, or by an external report on research misconduct. Upon receipt of the request for review, the chairman must immediately convene the committee and the request must be deliberated and decided upon within 60 days of the original receipt.
2) The ethics committee decides on the agenda review procedure such

as internal review or external review through discussions on the agenda. Members who may effect the progress of the review are excluded from the review.

3) The ethics committee reviews whether research ethics have been violated after careful deliberation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contributor. If needed, the ethics committee may interview the contributor, the informant, and the reviewers of the thesis in question.
4) The morality of the research results is determined based on the honesty, efficiency, and objectivity of the research progress and results.
5) The chairman makes the final decision on the agenda together with the attendance of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and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The contributor may have an opportunity to contest the result if he receives approval to do so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man.
6) The contestation of the result by the contributor is done through a closed meeting of the ethics committee. The chairman fully explains the progress of the review and informs the researcher to attend the meeting with the required data for contestation.
7) The chairman of the ethics committee delivers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he ethics committee's decision has been overturned after the contributor has made his/her contestation to the editorial committee. The decision of the overturning is made by the attendance of the majority of the ethics committee and the majority decision of the attending members.
8) If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by the informant (or report) are found to be inappropriate or if the contestation by the contributor is found out to be valid as the result of the committee's review, the informant (or reporter) and the contributor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that there is no charge made against the contributor.
9) Ethics committee members may not disclose the contributor's identity or the review process to external parties.
10) After the review process has started, the informant's identity must not

be disclosed. There must be maximum effort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formant.

11) Anyone under suspicion of research malfeasanc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violated research ethics until the official decision of the ethics committee has been made.

Article 8 (Report of review results) : The ethics committee must immediately report the review results ot the editorial committee. The report must contain the following items.

1. The reason and contents of the commission
2. Malfeasance subject to examination
3. List of the ethics committe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review and the review procedure
4. The basis for the decision and evidence regarding the decision
5. Interview of the contributor subject to review and the disciplinary action to be taken

Article 9(Disciplinary action) : The ethics committee decides the type of disciplinary action after the review and interview processes have been completed.

1. Submission restrictions of manuscripts by the contributor
2. Cancellation of the paper published in the journal and deletion of the thesis from the journal website
3. Disclosure of research misconduct after the malfeasance has been confirmed on the first journal published after the misconduct and the journal website
4. Notification of the malfeasance to the contributor's institution
5. Submission of a public apology to the editorial board by the contributor

Article 10(Follow-up action) : The editorial committee reviews the reports of the ethics committee and takes the following actions.

1. The editor-in-chief immediately implements the decisions of the ethics committe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editorial committee.
2. If the review results are judged to have a problem with their rationality and validity, the editorial committee may request the matter to be

reviewed again or request the report to the revised.

3. The editorial committee's request is made with a document stating the specific reasons.

Article 11(Administrative matters)

1. Matters not specified in these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plenary meeting of the editorial committee and the ethics committee.
2. Revision of the ethics regulation is decided through a plenary meeting of the editorial committee and the ethics committee.

| 중앙유라시아한국학 제 1집 |

인쇄일 : 2021년 05월 30일

발행일 : 2021년 05월 31일

발행인 : 도서출판 지식나무

발행처 :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BALABANAĞA MAH. ORDU CAD. NO:6 LALELİ FATİH

İSTANBUL, Turkey / info@iukorean.net

인 쇄 : 금풍문화사(02-2264-2305)

ISSN 2765-7302